





# 목 차

## 발행인의 글

시니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뉴 라이프 사이클	10
뫼라도학교	23
서울시 50+재단	32
제3의 인생 재단	42
시민교육의 스펙트럼 .....	
공교육 안에서의 시민교육	50
시민교육은 100m 달리가 아닌 마라톤	57
공생이 상생이다	64
시티즌십 파운데이션	71
NECE	75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다 .....	
마을, 사람과 만나다	80
손으로 짓는 마을	87
살래청년식당 '마지'	95
매탄고등학교 동아리 '골목대장'	109

변화하는 학교 .....	
마을을 살린 학교 이야기	120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하라	126
변하는 시대, 변하는 학교	132
스스로 움직이는 참여의 힘 .....	
우리에겐 몸놀이가 필요하다	140
치료와 소통의 블루칩, 몸 활동	146
파크렛 프로젝트	154
주니버스	159
한국사회와 평생학습 .....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평생학습의 기반을 위협한다	168
민주시민교육 조례, 단단한 주체 형성을 고민하다	179
자유학기제, 마을은 아직 준비중?!	191

## ‘와’ 일 년의 기록 나는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나

재미있게 본 영화를 떠올려 보면 그 앞쪽 부근에 <올드 보이>가 위치합니다. 내용과 형식 두루 옹골차서 박찬욱이라는 세 글자가 머릿속에 저절로 입력되었습니다. 그 중에 매우 인상 깊었던 대화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늘 틀린 질문을 하니까 틀린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당신을 15년 동안 가뒀냐고 물을 게 아니라, 내가 15년 만에 당신을 왜 풀어줬을까를 질문해야지.”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질문이 있는 교실’입니다. 순응과 암기로 표현되는 지금까지의 교육현장을 생각하면 ‘질문하기’는 실로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걸음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영화 속 대사처럼 질문 그 자체를 넘어 적절한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15년 동안 가뒀던 것에 대해 질문하면 그 귀결점은 ‘왜’라고 하는 원인 분석으로 향하게 되지만 왜 풀어줬는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면 ‘무엇을’이라는 대응방안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 콘텐츠가 천양지차가 되기 때문에 결국 콘텐츠를 제대로 읽고 장악하는 힘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노출한 콘텐츠 23개를 오프라인으로 엮어 냈습니다. <이슈&인물>과 <혁신·교육사고> 2개의 꼭지에 실렸던 기사를 6개의 키워드로 분류하여 활자화시켰습니다. <이슈&인물>의 경우 취재나 인터뷰 방식을 거쳐 기사화시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핵심을 꼽으라면 단연 ‘질문’입니다. 본질을 향해 가는 질문만이 좋은 답변, 정확한 콘텐츠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교육사고>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이 없으면 좋은 필자, 질 높은 콘텐츠를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질문이 곧 수준 높은 기사를 담보하진 않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 독자 여러분과 눈높이가 다를 수 있고, 기사화 하는 과정에서의 실력이 부족하면 응당 만족도도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질문이 기사의 퀄리티를 규정짓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비단 기사 작성 과정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일상 생활 속에서 질문하기가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합니다. 경주마처럼 차안대를 쓰고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삶은 진정 행복한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말고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할지, 나는 지금 동료, 이웃에게 내 걸을 내 주고 있는지, 나에게 학습되어진 인식은 정말로 나의 것인지... 그래야 속도를 제어하고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식소비가 아니라 지적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존을 넘어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야 황량한 골목이 아니라 정겨운 ‘쌍문동 골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무크지의 콘텐츠는 새로울 것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에 실렸던 것을 리바이벌 했을 뿐이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을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쌀쌀한 골목길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타계하신 신영복 선생님의 다음 인터뷰 글귀가 마음에 크게 와 닿습니다. 먼 길을 가되 오늘을 즐겁게, 그리고 지치지 않기!!

“중심부는 변방의 자유로움과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류문명의 중심은 부단히 변방에서 변방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변화는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장기성과 굴곡성을 생각하면, 가시적 성과나 목표 달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아름답게, 자부심 있게, 그 자체를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오래 버티니까. 작은 숲(공동체)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작은 약속도 하고, 그 ‘인간적인 과정’을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것!”

# 시니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뉴 라이프 사이클

워라도학교

서울시 50+재단

제3의 인생 재단

2015년 <이슈&인물> <혁신·교육사고> 코너를 함께 꾸려주신 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김수향(더시안교육연구소 이사)
- 황명화(세이브 더 칠드런 팀장)
- 김정원, 김미경, 임소정(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 정성원(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 뉴 라이프 사이클 New Life Cycle

### 인생 후반기에도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뉴 라이프 사이클」 보고서를 보고 찾아간 곳은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수탁기관인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에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만 사전적 의미의 싱크탱크라기 보다는 실행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혁신을 제기한 Think & Do Thank 조직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Think 보다는 Do에 방점이 찍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메시지를 발신하는 연구소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한 체질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의미한 숫자나 기호의 나열 혹은 책상물림의 뜬구름 잡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천착한 실행을 근거로 메시지를 직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길어 올린 내용을 추상화, 이론화하여 지식생태계를 더 풍부히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창립 당시부터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주목하고 그중에서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출현과 사회적 역할에 남다른 노력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경험을 제3섹터와 연결하여 '사회공헌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복설계아카데미>(이하 행설아)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약 53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베이비부머의 욕구 및 지원방안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보고서 주 집필자인 희망제작소 배영순 선임연구원을 만났습니다.

- 이번 연구 대상은 총 803명으로 45~65세의 은퇴자 및 은퇴 예정자이며 행설아를 수료한 교육생 일부(153명)를 포함하였다.
- 표본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선정하였으며 비교육생의 경우 행설아 교육생과 인적 배경(학력, 소득 수준, 경력 등)을 유사하게 설정하였다.
- 직업은 사무·관리직(대기업, 중소기업, 공무원 중심)이며 대졸 이상 83.7%, 고졸 16.3%의 학력수준과 평균 약 6,600만 원 소득의 중산층에 속한다. 따라서 전체 중년층의 인식과 욕구를 설명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 양적인 지표로는 파악하기 힘든 체험, 의식의 변화, 새로운 가치의 형성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해 1, 2차 면접, 추가 전화면접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 뉴라이프 사이클의 개념과 중요성

**정성원** 연구보고서에서 '뉴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제기했는데 그 개념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영순** 고령화 시대에 시니어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질 것이고 의학이 발달하니 평균수명이 증가할 것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인생 후반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이 아니고요. 100세 시대라고 봤을 때 기존의 생애주기가 적합하지 않다. 기존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로 봤던 이 시기가 정말 끝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 성장 발전하는 시기로 보이는데 여기서 끝나는 기존의 생애주기가 맞는 것일까. 이분들의 특징을 봤을 때 인생 후반기에도 충분히 또 다른 성장, 또 다른 발전, 또 다른 인생 목표가 보이는 시기라고 봤고, 그렇다면 새로운 생애단계가 출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새로운 생애단계의 출현은 '청소년기'의 등장이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생애단계를 선정해야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애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정한 것입니다. 인생 후반기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생애주기가 필요하다, 뉴 라이프 사이클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 어떤 관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는가

**박은미** 연구보고서에서 생애주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고

민을 시작하신 건가요?

**배영순** 그 얘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2011년부터 시니어사업에 합류했지만 제작소에서는 2006년에 연구사업을 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제작소의 다른 센터는 혁신, 사회적경제, 뿌리 등 주제 중심으로 나뉘었는데 저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였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 그룹들만의 특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이나 연구 논문을 봐서 생애 주기가 다르다, 필요하다 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경험한 것들을 통해,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선형적으로 조금 다르게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사회에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애주기라는 관점으로 연구결과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정성원** 이번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영순** 지금까지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생애 주기가 필요하다, 100세 시대에 맞춤 복지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언급은 있었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생애단계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여서 그렇지 사실 프랑스의 경우는 100년 전에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유럽에서는 이미 인생 후반기를 좀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시각이나 연구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왜 집중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있었고 새로운 생애 단계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인생 후반기에 대한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피터 래스렛 (Peter Laslett)이 서드에이지(The third age)라는 유명한 얘기도 했고요. 해외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 이것이 낯선 이야기가 아

니고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국에 맞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해외는 한국과 다르게 노후 소득보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한국의 시점에서, 우리가 직접 만났던 시니어들의 목소리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할 때, '뉴 라이프 사이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생애과제는 무엇인가

**정성원** 노년기의 진입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와 탄생의 시기라는 것이 뉴 라이프 사이클의 핵심 개념인 것인데요. 베이비부머 세대 입장에서 보면 생애 과제가 어떤 것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영순** 새로운 생애 과제로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먼저, 자아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시기를 청소년기와 비교했습니다. 청소년기라는 것이 인생 전환기이잖아요. 저희가 중년 전환기, 중년 안정기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제2성인기에 들어섰을 때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기에 맞는 **새로운 일**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제1성인기라고 표현한 청년기, 장년기 때 맺었던 관계가 대부분 변하고 은퇴를 하면서 사라진다고 보는 게 거의 맞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생애 과제인 것입니다.

### 생애 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

**정성원** 그런 생애 과제를 제대로 구현해내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까요?

**배영순** 이번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시민영역에 맞는 프로그램 영역,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고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금씩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2성인기는 새로운 창조, 탐색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 그 정책을 만들었을 때 다른 세대들이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 전환이나 합의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정책부터 나오게 되면 '왜 지금 청년도 일자리가 없는데'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중장년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시니어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 청년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가 줄어들거냐는, 경합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으로는 인식 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니어가 되었을 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20대, 40대이지만 동의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실 잘 만들어놓은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든지 정책 시행이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프라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 6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갈 곳이 없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늘 산에 갈 수도 없고,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집에서 자신의 공간이 없다고 하세요. 은퇴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공간이 없어요. 경로당에도 갈 수 없는 나이시죠. 70대도 가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50, 60대는 거기 가고 싶지도 않으신 거고요. 이분들이 뭔가 새로운 교육을 받고도 갈 공간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인프라를 참고하면 어느 선에서 정비를 해야 하는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프로그램을 듣고 싶은데 어디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플랫폼도 약하죠. 이 연령대가 컴퓨터를 다 잘하지 못하고 IT 접촉이 용이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고려한 플랫폼에 대한 고민도 큰 단위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시민단체에서도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적 인식의 재정립이랄까 공감대가 중요한데 한국사회에서는 노인이라고 하는 기존 관점에 근거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짐으로 생각하거나 정책적인 후순위로 밀리고 여기에 자원을 투입할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복지 정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생산적인 일에 투입하는 것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자기 욕망에 눈 뜬 세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적인 영역이 아니고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니 한 사회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여전히 우리의 인식은 단순한 케어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관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니어 스스로 입증해

야 하는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것들이 나와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책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직은 일부에서만 그런 목소리가 나오죠.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후순위에 밀려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 것인지 하는 고민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소나 제3섹터 등 이것을 선도할 수 있는 그룹에서 더 많은 문제제기와 활동의 성과, 이런 것이 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연구보고서도 굉장히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영순** 이 보고서가 나온 후 심층면접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시 봤었는데요. 그 중 한 분이 해외 쪽 사례를 많이 찾아보고 어떤 쪽으로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많이 공부하는 분입니다. 그 분이 일본 사례를 말씀하면서 인식 전환이 안되어 있는데 쉽게 될 수 있겠냐,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는 제2의 인생, 고령화 시대에는 인생 2막이 있다는 것을 정규교육에 넣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60, 70대에는 당연히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에,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인식돼서 지금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누가 거부감을 갖습니까. 지금 시대에 청소년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불과 100년, 150년 전에 청소년이 노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너무 선연적이고 도전적인 내용이었지만 시니어 스스로도 이 문제가 인식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아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조사하면서 흥미로웠던 것이 한 인구학자는 일자리가 너무 없다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인구가 줄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경우는 빨리 은퇴하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법적으로 계속 정년 연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일자리를 제



배영순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공하는 것 같지만 사회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계속 제안하고 기업에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기업들은 이윤에 민감한 집단이잖아요. 공장의 전체 설비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시니어 노동자가 남아있게끔 차라리 설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유럽을 보면 또 하나의 착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초고속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이분들이 직장에 오래 남아 있는 게 가장 좋은 복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좀 더 사회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생기니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0세 이상만 고용합니다』라는 책을 보면 일본에는 60세 이상만 고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초반에는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이것을 충분히 빠르게 확보해요.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기업들도 고민해보고 한국의 노동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도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년이면 한국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니까요.

### 시니어 교육은 어떤 관점으로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가

**정성원** 연구논문을 보니 실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은 행설아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자가 약 70%인데 비해 후자는 약 2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교육이 가지고 있는 효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야 하지만 그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실제로 적당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니어 관련 교육을 한다면 어떠한 관점으로 기획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의견을 주신다면요.

**배영순** 맞춤형 교육, 복지라고 하는데 교육생들의 욕구에 맞게 그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사회공헌 활동과 같은 콘텐츠는 맞지 않고 교육에 대한 의지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준을 생활 수준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적절한 욕구에 맞춰야 합니다.

교육을 진행할 때 사회공헌 활동 등 제3섹터를 소개하면 많이 놀라십니다. 시니어들은 접해 보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의 20대들이 시니어가 될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낯선 분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해 많이 소개하

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 대상을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 사회공헌 교육이라고 해서 참가했는데 교육생이 전부 주부로 구성되어 있으면 남성의 경우 한번 오고 다음에는 참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성별, 욕구별로 교육생을 세분화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높이는 데 좋을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를 만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시니어 드림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에게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사회공헌과 접목시켜서 진행해보자고 했을 때, 진행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니어 스스로 열심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니어의 특성상 책임감도 강하고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 진행했기 때문에 한 팀의 탈락도 없이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행설아 교육생과 비교육생의 차이

**박은미** 연구보고서에서 교육을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확연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층연구를 통해 그것이 어떤 변화의 차이인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배영순** 이 연구의 주요 특징이라면,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하는 행설아와 이곳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으로 결과가 귀결될 것 같아서, 유사한 인적 배경(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직업 등)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행설아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경제적 이슈에 대해 덜 민감했습니다. 조사 대상 자체가 중산층 이상이었기 때문에 행설아를 듣지 않은 분들도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는 중산층 이하 소득 수준을 가진 분들보다 덜 민감하지 않을까 예측했었는데, 결과를 받아보니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에 반해 행설아에 참여했던 분들은 경제적 이슈가 제2의 인생에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관심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차이가 있습니다. 행설아분들은 인생 설계 프로그램을 수강했기 때문에 인생 설계 이후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생 설계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상이 관심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하는, 경험한 적이 있다 라는 부분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 학습 이후 지속성을 위한 시스템은 무엇인가

**박은미** 교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애주기 대상들에게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고, 제언 부분에서도 이러한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지요. 성인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관념을 조금은 없애주는 느낌도 들었고,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어떤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은 분들이 사회적자본으로서 역할을 펼쳐가는 것에 있어서도 얘기해주셨는데요.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고민됩니다. 관계, 학습의 부분도 있지만 지속을 위한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영순** 그 부분은 이번 연구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제언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 때 충분히 자극을 받으십니다. 새로운 교육을 접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토론하는 방법, 혁신적인 워크숍 등에 많은 흥미를 보이세요. 문제는 자극 받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립원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신이 배운 내용을 펼칠 수 있는 활동처, 수요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인프라 부분이 약한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의지도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것도 아주 정확하네요. 이런 부분을 알아봐주면 내가 이 다음 단계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희는 얼마든지 지원해드릴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육을 받고도 세팅된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령대 분들은 그런 훈련, 본인 스스로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없으세요. 취업하고 장기 근속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력 전환을 해봤다든지 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했으니 알아서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청소년기처럼 인프라가 있어서 정부나 민간단체가 지원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뭔가를 펼치기 전의 추진 단계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연구를 하면서도 고민이었고 제언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 고민이었습니다.

**박은미** <뫼라도학교>는 학습관보다는 같이 했던 멤버들 안에서 과제들을 해결해가자는

인식이 잡혀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기와 2기가 다르고, 3기는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이점이 무엇이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배영순** 추진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기수가 아무래도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교육으로 자극받는 것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추진력을 받기 전에 인프라가 되어 있으면, 학습관의 뫼라도학교도 그런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프라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룹 내에서 모임을 하려면 누군가 전화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야죠. 같은 세대 내에서 협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작은 에피소드로 누가 그럼 총무 역할을 하겠냐 이런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 새로운 관계 맺기와 세대공감

**박은미** 총무 역할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이분들이 활동했던 곳들은 수직적 관계가 대부분이었는데 뫼라도학교나 행살이는 수평적 관계 맺음을 하는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청년들과 연결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것을 봤는데요.

**배영순** 시니어끼리의 소통 문제는 교육이나 워크숍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것을 받으면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것이 생기세요. 하나의 사례로 저희 프로그램에 전형적으로 보수적인 남성분이 계셨는데, 교육 후에 회사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을 죽이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시니어분들이 토론을 활발하게 잘 하는데 자신은 많이 숙이고 있다, 자기까지 나서면 산으로 간다면서 자신이 마음공부를 계속한다는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 태도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시니어분들이 감동을 잘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좀 충격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거부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거부반응조차도 자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니어분들끼리도 조금 다른 형태의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와 청년 세대가 함께 진행한 세대공감 시리즈는 다른 의미의 소통이었습니다. 세대공감 시리즈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것은 세대 이슈의 주체는 절대적으로 시니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시니어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어르신이니까 예의있게 대해야 한다는 수준인데 시니어분들은 끊임없이 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말을 듣든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대답하는 지점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시니어분들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제나 이슈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니어들이 먼저 움직이는 주제를 가지고 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멘토멘티 관계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역량을 쓸 수 있는, 한쪽에 어떤 역량이 있으면 다른 쪽 역량도 동시에 필요한 것, 대화를 할 때는 두 세대가 동등하게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는 '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짧은 일정으로 따로 의사소통 커리큘럼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조종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니어분들이 고등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습득을 해야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가 되면서 프로그램의 처음과 끝에 확연히 다른 인터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뭐라도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운영하겠지만 세대에 대한 부분도 한두 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시니어의 변화 추이

**정성원** 희망제작소가 2006년부터 시니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특징을 발견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초기와 비교했을 때 변화된 모습이 있나요?

**배영순** 제작소 자랑 같지만, 제작소가 시니어사업을 하면서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2011년 전국에서 사용하면서 정책화 되었습니다. 사회공헌 일자리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시니어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야 한다는 공통적인 고민에 대해 사회공헌 일자리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중인 박은미 파트장(가운데)과 정성원 관장(우)

초기에 비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면, 초기에는 교육과 함께 제3섹터에서 이들을 필요로 할 경우 직접 일자리 연결을 주도해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3섹터 영역에 단체들이 많지 않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마케팅과 회계인데 제3섹터에서 원하는 인력은 그렇게까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는데 시니어들이 직접 모이고, 그들 스스로 방법을 찾는 등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답을 스스로 찾으신 거죠. 9년간 진행되면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진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제3섹터에서 할 수 있는 아이템

**정성원** 제3섹터에서 해볼 수 있는 아이템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배영순** 심층면접자들이 중년 전환기 지원 강사 육성 아카데미, 인문학 생애설계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3섹터를 소개하는 다른 콘텐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응답도 많았고, 행실이는 두 달 과정인데 짧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교육을 들을 때는 마인드 전환이 잘 됐는데 끝나고 나니 금방 효과가 사라졌다고, 기간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가 많았습니다.

제작소에서도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3섹터를 소개하는 시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교육 등의 부분은 다루지 못했는데요.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인문학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중년 전환기 지원 강사 육성 아카데미는 시니어들에게 일자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교육자뿐 아니라 교육자에게 직업을 갖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니어 교육을 하면 피교육자와 교육자는 비슷한 연령을 선호합니다. 중년 전환기를 이해할 수 있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층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습관 뭐라도학교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캠페인을 통한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정성원**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배영순** 제작소에서는 많이 얘기해서 뻔한 말처럼 들리지만, 시니어분들은 자신이 노년기가 아니라 제2의 성인기로 불린다는 것에 대해 좋아하십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애주기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반드시 뉴 라이프 사이클로 바라보지 않더라도 다르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 희망제작소 <http://www.makehope.org>

글 정성원

## 뭐라도학교

우리는 젊고 새로운 꿈을 꾸다

### ‘마윈’과 ‘침묵의 나선이론’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2014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알리바바의 기업가치는 약 174조 원에 달했고 회장인 마윈 씨는 중국 최고의 부자로 등극하게 되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 마윈 씨가 국내 TV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자신이 50대라면 젊은 사람들을 밀어주세요. 젊은 사람들의 실력이 더 좋기 때문이죠.”

“60대라면 본인을 위해 시간을 투자 하세요. 기회를 찾기엔 조금 늦었으니까요.”

‘다시 기회를 잡기는 어렵다’는 마윈 씨의 이야기가 시니어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문제의 핵심은, 그의 발언은 일각(一角)일 뿐이고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사회 통념이 빙산(冰山)이라는 점에 있다.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문제는 사회 발전의 일 주체로서 제대로 된 인정과 대접을 하지 않음은 물론 개인차원에서 보면 그로 인해 시니어 스스로 위축되고 고립되어 외로운 섬으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가정에서는 눈치 없는 ‘삼식이’요 사회에서는 용도 폐기된 이방인일 뿐. 다행히 최근 들어 시니어가 가지는 긍정성에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흐름

이 조성되고는 있으나 그것은 여전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침묵의 나선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우세할 경우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마치 나선의 바깥쪽으로 돌면서 세가 더 커지는 것과 같은 경향이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 나선의 안쪽으로 돌면서 침묵하고 더 쪼그라든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한국사회처럼 시니어에 대한 평가절하가 주류인 사회에서는 시니어 스스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중년의 일자리는 청년 실업률 숫자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시니어의 보람 찾기는 한가한 소리로 질타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리 만무하다. 결국 시니어 스스로 모여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현실에 부딪혀가며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만 한다. 나선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돌아야 하는 것이다.

### 문제 해결의 베이스캠프 워라도학교

시니어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2014년 수원시평생학습관의 개설 프로그램 362개 중 시니어라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단 1개. 그러나 이런 고민도 들었다. 그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숫자를 늘리면 좀 나아질까? 강좌만 듣고 뿔뿔이 흩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니어에게 프로그램이라는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낸 결론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2012년에 시작한 ‘누구나학교’는 프로그램 명칭이 아니다. 시민들이 배움과 가르침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학습하는 가운데 휴먼 네트워크를 이뤄나가는 마당, 즉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니어를 위해 몇 개의 프로그램을 더 제공하는 것보다는 학습을 매개로 그들이 뛰어놀면서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촉진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 훨씬 의미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필두로 한 중장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별다른 맞춤형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이 문제는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인 시니어들이 나서야만 한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의 주체는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시니어 일 수밖에 없으며 프로그램도 학습관 직원의 평균적 문제의식과 감수성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적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차에

2014년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인생학교>를 마련하였는데 프로그램 신청자들의 자기소개서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읽다 보니 다른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찾기 어려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 욕구를 숙주로 삼을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의 당사자주의’ 그리고 ‘학습을 매개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 하에 플랫폼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제2의 인생학교>(이하 인생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강좌 종료 후에도 동문회라는 그물망을 통해 연결시키고 그것을 베이스캠프 삼아 다양한 액션과 경제적 활동을 하게 만드는 터전, 이름하여 <워라도학교>를 만들게 되었다.



워라도학교의 기본 포맷 도형화

추상적 아이디어가 실제로 물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고와 에너지가 소요되는데, 에너지의 양은 대개 두 가지 측면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아이디어의 복잡성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의 능력 문제이다. 워라도학교의 경우 난이도가 높기도 할뿐더러 참고해서 따라 배울만한 기존 모델이 부재하다는 점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고난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제3섹터 업무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별로 없는 주체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1년여의 물화 과정은 그야말로 간난신고요 고난의 행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과 과정

2014년 5월부터 한 달여 기간 동안 강의, 토론, 탐방, 워크숍 등으로 이뤄진 ‘인생학교’가 종료된 후 40여 명의 수료생이 동문회를 만들었다. 이후 동문회는 학습관으로부터 워라도학교를 제안 받아 10여 명으로 구성된 TF를 결성한 후 1박 2일 워크숍을 포함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가닥을 잡아 나가기 시작하였다. 살아온 이력, 사용하는 언어, 상이한 가치관과 태도, 워라도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이런 많은 다름 속에서도 결국

2014년 12월에 드디어 '뫼라도학교 창립 총회'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 때문이었다. 이후 2, 3기 '인생수업'(인생학교의 새로운 이름)를 통해 배출된 수료생 90여 명의 멤버가 모여 뫼라도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 뫼라도학교 구성

<뫼라도학교>는 크게 3개의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다.

### 기본 클래스 :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과정의 단계

① 인생수업 : <뫼라도학교> 정회원이 되는 관문 형태로 연 2회 개최

### 전문 클래스 : 시니어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 심화과정의 단계

- ① 사회공헌/사회적경제 아카데미 : 이론과 사례, 현장 탐방 등 소셜 디자이너 양성
- ② 시니어 전문강사 양성과정 : 시니어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전문강사 양성
- ③ 우리들교실 강사 워크숍 : 실제 강좌를 개설할 멤버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

### 창작 클래스 : 시니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배움과 나눔의 커뮤니티

- ① 월담 : 회원 스스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여 함께 배우는 공개강좌 형태
- ② 우리들교실 : 회원 스스로 강좌를 개설하여 지식과 지혜를 나눔
- ③ 커뮤니티 : 회원간의 교류와 활동의 장.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삼식이 브런치', 마음맞는 사람끼리 배낭하나 매고 떠나는 '어디든 여행단'이 있다.

3개의 클래스를 통해 자신의 단계와 적성에 맞는 학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아이템을 중심으로 회원들 자발적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총 7개의 사업단 중 대표적인 것이 시니어의 인생 스토리를 이미지와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추억디자인연구소'이다. 영상에 관심 있는 회원의 제안으로 사업단이 구성되자마자 2014년 수원창안대회에 출전하여 86개의 팀들과 겨뤄 당당히 3등을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 사업단은 출범 이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모임을 개최하면서 회원들의 단합과 성장을 도모하였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별도의 영상 촬영 편집 기술을 익혀 나가고 있다. 이렇게 10여 명의 회원들이 차분히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복지관, 주민센터, 구민회관, 도서관, 학교 등지로 강의를 나가고 있고 또 다른 한편

으로는 '사진 상담'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어느 날 이 사업단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작은 봉투 하나씩을 나눠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프로젝트나 강의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적립하여 매월 배당금 형태로 회원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이다.



추억디자인연구소 이종림 소장이 회원에게 배당금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

개인적으로는 참 감동적이었다. 노란 봉투 안에 들어 있는 금액은 이전 직장생활 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매우 가벼웠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 참여하여 배우고 익혀 사회공헌을 하면서 받는 돈. 노동에 합당한 금액은 결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한발 더 나아가 이 봉투를 가족 모임에서 공개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만일 이런 말을 한다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지역사회에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나는 지금 참 행복해.”

만일 내 아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나는 빙그레 웃으며 등을 토닥여 줄 것이다. 또한 나이와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아이들. 이것만큼 확실한 자녀교육이 또 있을까?

뫼라도학교에는 자체적으로 선출한 교장을 비롯 기획/홍보/커뮤니티/국제교류/사업단지원팀이 존재하는데 매주 월요일이면 뫼라도학교가 입주해 있는 학습관 3층 인큐베이팅센터 공간은 교무회의의 소리로 늘 시끌벅적하다. 학습관의 품과 손길이 많이 소요되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근육이 제법 붙었다. 인생수

업 3기 교육의 경우 뭐라도학교 회원들이 사전 기획과 행사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들교실’의 경우 이젠 강좌의 양과 질 모두 확장되었다. 더불어 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컨설팅단을 고민하는 단계에까지 오게 되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위한 내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뭐라도학교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 보았다.

몇 년 전 외환은행 지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 한 김정일 교장선생님. 퇴직 후에도 여전히 경제적 문제가 고민이긴 하지만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낼 궁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촌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은 『조화로운 삶』을 쓴 스콧 니어링에 감명 받아 미국 농장에 들렀다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수입과 가족만을 생각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과 투자를 하고 싶다”는 김정일 교장선생님에게 뭐라도학교는 어떤 의미일까.

**정성원** 교장선생님에게 (뭐라도학교)는 어떤 의미입니까?



**김정일**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일찍 현업에서 은퇴하지 정년퇴직이라는 게 참 쉽지 않지요. 또 정년을 채웠다고 해서 경제적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재취업하거나 아니면 자영업 등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지 자신의 꿈이나 보람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제2의 인생의 중요한 좌표로 사회공헌, 보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니어 뜻과 의지를 존중하고 모아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관계망도 다 해체 됩니다. 같은 뜻을 모으는 것이 참 힘들지요. 그래서 저는 뭐라도학교가 참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화된 사람을 하나로 모으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보람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제2의 인생의 중요한 좌표로 사회공헌, 보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니어 뜻과 의지를 존중하고 모아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관계망도 다 해체 됩니다. 같은 뜻을 모으는 것이 참 힘들지요. 그래서 저는 뭐라도학교가 참 소중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별화된 사람을 하나로 모으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원** 이제 만 1년이 되었는데 회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정일** 처음 인생학교 1기는 막연히 ‘좋은 내용이니 한번 배워보자’는 정도의 생각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요. 그러다 뭐라도학교의 취지와 내용이 맘에 들어서 힘을 모아 조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1기분들도 다들 좋아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뭐라도학교”라고 얘기할 만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2, 3기는 예상치 못한 분위기에 만족하고 있고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20대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학교 다니는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쯤 되면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들은 뭐라도학교를 발판으로 새로운 것을 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3기 수료생은 전원이 가입 했고 뭐라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정성원** 그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나요?

**김정일** 초기 황무지에서 이만큼이라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없는 시간 쪼개서 협조하고 서로 용기 낼 수 있도록 부추겼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니어 미래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토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의 역량은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스스로 강의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우리들교실’의 경우, 처음에 자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섰던 분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강좌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현할 기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자기 성취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성원** 2016년에 강조하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정일** 중심축은 우리들교실과 사업단입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의 결합으로 우리들교실 강좌의 질과 양 모두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강사 워크숍 등을 통해 실력을 더 쌓아나간다면 매우 유의미한 활동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수업에서는 강좌 종료 시 팀별로 아이টেম을 발굴, 기획하여 일종의 미니 어워즈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기수별로 사업단이 만들어지는데 1기의 경우 추억디자

인연구소가 지금도 빼어난 활동을 하고 있고 2, 3기에서도 역시 사업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활동해 본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더디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사업단의 안착과 왕성한 활동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단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곧 사회공헌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에게도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워크숍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자유학기제와 발맞추어 '청소년 직업지도'와 우리에게는 늘 현재적 고민인 '웰 다이'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내부에서 많은 학습을 해야겠지요.

**정성원** 그간 1년여의 경험을 통해 느낀 소회가 있다면요.

**김정일** 인생수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90여 명의 동지를 새로 만났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고 단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울타리, 뭐라도학교가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꿀 수 있다면 우리 시니어가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놀이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니어의 경제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사회공헌이나 자신의 보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활동에 따라 약간의 금전적 보상이 연결될 수 있다면 문턱이 대폭 낮춰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제3섹터 일자리가 적은 편인데 저희는 가급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보람도 높이고 약간의 소득도 뒷받침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생 한 분이 <뭐라도학교> 사례를 연구해서 「제2 인생설계 과정에 참여한 은퇴자의 학습경험 연구」라는 석사논문을 발표했다. 그 논문에는 인터뷰이로 참여했던 뭐라도학교 한 회원의 구술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네, 저는 행복해요. 제가 여기 와서 활동함으로써 저에게 무슨 물질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하는 분들이 저와 비슷한 또래이고 제가 노력함으로써 그분들이 편하게 와서 쉬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놀아도 이렇게 노는 게 밖에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노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고 즐거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논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는 거라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즐겁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노는 걸 좋아하는데 노는 내용면에서도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제3자인 그 대학원생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논문을 마무리 짓고 있었다.

“<뭐라도학교>는 이제 막 태동하여 규모나 역할이 미미하지만 이곳을 통해 일어난 은퇴자들의 학습 경험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그들의 인생 후반부의 삶을 새롭게 준비하고 재설계하는데 값진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아직까지 '중년'이라는 단어에는 어깨 움츠린 자의 쓸쓸함만이 배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니어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의미성이 확산되어 나갈 때 그 평면적인 단어에 깊이와 입체감이 주조되면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시니어'라 쓰고 '희망'이라 읽을 것이다.

글 정성원

• 뭐라도학교 <http://cafe.daum.net/3rd-Age>

## 서울시 50+재단

시니어들의 일상 문화 제작을 지원한다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vs ‘노인이 좌우하는 나라는 있다’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미국 작가 코맥 매카시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 소설의 제목은 에이츠의 시 한 구절, “That is no country for old man”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삶 속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혜가 있지만 이제 몸은 쇠락하여 보안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버거운 노인. 그가 헤쳐 온 시대와는 다른 문법으로 작동하는 세상은 이제 영 불편하지만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인은 보안관이 아니라 경비원 자리마저 연줄을 대야 하고, 산업역군의 상찬 대상에서 어느새 민폐 끼치는 불편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OECD 평균(12.4%)에 비해 4배(49.6%)나 높은 압도적 노인 빈곤율은 성장의 그늘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기만 합니다. “The Last, The First” 간디가 남긴 이 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존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디의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이 참 부질없는 일로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우리시대 노인은 애잔함의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어버이연합으로 통칭되는 ‘아스팔트 우파’처럼 보수우익의 상징으로 호명되기도 합니다. 후자의 의미는 지난 대

선 당시 20~30대(68.8%)에 비해 50~60대(84.3%)의 투표율이 15.5%나 더 높은 점을 들어 ‘노인이 좌우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폄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압도적 보수언론의 영향이든 리더십 스킬의 부족이든 그들은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령자가 보수적 측면이 크다면 젊은층은 생래적으로 기존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여 결집시키지 못하는 야권의 ‘실력없음’이 핵심이지 고령자의 높은 투표율을 비아냥거릴 일이 절대 아닙니다.

### 노인 X세대의 등장

경제적으로는 벼랑 끝에 몰려있고 사회적으로는 존중받지도 못하는 그들은 실제 맨 손으로 한국경제를 일궜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변방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OEM 생산기지 역할을 해 온 한국. 그때의 가리봉동 구로동의 ‘공돌이’ ‘공순이’들이 지금 우리의 어머니, 이모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공구리’ 치던 ‘노가다’들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이고 삼촌입니다.

그러다 경제의 기쁨이 조금씩 잡혀 나가기 시작할 즈음 베이비부머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아 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근육질의 노동에서 점차 뇌를 활용하는 노동으로 포커스가 옮겨가기 시작했고 벡타이를 맨 화이트칼라에게는 근대적 근면성보다는 현대적 감각의 비즈니스 정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돌이’ ‘노가다’가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드넓은 세계와도 조우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충성’과 ‘헝그리 정신’ 대신 글로벌 스탠다드를 조금씩 익혀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제 노인세대로 진입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경험과 능력과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인 X세대라 불려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지 머리가 희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고령자라는 세트로 묶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독법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펼 때도 당연히 이런 관점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는 시니어가 중심이 된 ‘뫼라도학교’라는 플랫폼이 있기에 서울시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사업 계획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 재단 설립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여 한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사업의 책임 실무자인 남경아 씨는(서울시 50+재단 및 캠퍼스 추진단 단장) 희망제작소와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어 더욱 반기웠습니다.

**정성원** 서울에는 절대적 빈곤 노인층도 적지 않고 취업 등의 문제로 좌절해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박성 측면으로 보면 한정된 시 예산을 중장년층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듯한데요. 이 사업이 갖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남경아** 먼저 인구학적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례상 특정되어 있는 50~64세의 인구는 214만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 통계에 비해 조기퇴직이 빠른 편이어서 45세까지를 포괄한다면 약 29%인 297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14세 미만 아동(119만 명)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119만 명)를 합친 수보다 더 많은 셈이죠.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이 숫자는 당분간, 적어도 앞으로 한 세대 이상 정도까지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 봅니다. 즉, 단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대응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인류가 이미 100세 시대에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의무 교육기간이 한 번 더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했듯이 100세 시대는 우리 인류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기도 하고 이것은 거기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후 대응이 아니라 공공적 관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지금 당장 보면 베이비붐 세대이긴 하지만 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특정 시기,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사회를 경험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민간재단이나 대학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한국은 그런 것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정성원** 50플러스 재단의 사업이 교육과 일자리 등이 핵심인데 사실 서울시의 경우 지금까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나 퇴직을 앞둔 세대를 위한 교육 등의 정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중복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경아** 그래서 연계 · 조정 ·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0년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 문제가 우리사회 중요 이슈로 떠오르자 중앙정부에서도 '새로마지플랜'이라고 해서 각 부처별로 만든 정책만 130여 가지예요. 그리고 서울시도 중장년층 일자리 플러스 센터부터 창업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은 쏟아지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실효성, 효과성도 판단해 봐야 하고요. 이런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시에 정보를 알려주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연계 · 조정 · 협력을 통한 윈스톱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쏟아낸 정책의 대부분은 구인구직 방식의 전통적 방식이었어요. 1대1 매칭방식.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 표방하고 있는 포인트는 철저히 '당사자 중심'의 운동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1대1 구인구직 방식의 일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설사 그것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으니 저희 재단 정책 목표는 당사자 그룹들의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자리, 학습문화, 노년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기업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재단 하나 만들

비전	"서울을 바꾸는 활기찬 50+"			
추진 방향	미래대비 교육강화	일자리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건강 여가 확대
지원 체계	50+재단 설립 : 서울시 50+ 사업의 싱크탱크 50+캠퍼스 설립 : 50세대의 일, 배움, 복지의 복합공간, 권역별 허브 50+센터 설치 : 지역기반 플랫폼			
추진 과제	<b>교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설계콘서트 개최</li> <li>· 온라인 인생대학(TED)</li> <li>· 베이비부머 특화강좌 확대</li> <li>· 직장 내 인생설계교육 확대</li> </ul>	<b>일자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교육훈련 체계 마련</li> <li>· 창업, 취업 지원시스템 구축</li> <li>· 사회공헌일자리 확대</li> <li>· 일자리플러스엑스포 개최</li> <li>· 민간기업 취업연계 강화</li> <li>· 50+적합일자리 추가발굴</li> <li>·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년 연장</li> </ul>	<b>사회공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공헌허브 구축</li> <li>· 마을컨설턴트 양성</li> <li>· 베이비부머 명예기관장제 확대</li> </ul>	<b>건강 여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암검진 부담금 지원을 통한 검진율 향상</li> <li>· 베이비부머 정신건강 검진 실시</li> <li>· 베이비부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li> <li>· 생활체육지도 활동 강화</li> <li>· 특화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li> </ul>

서울시 50+ 정책 개요(출처: 서울시 50+ 정책 설명서)

어졌다고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는 없는 일이죠. 2009년 금융권 은퇴자 13명이 희망제작소에서 교육을 받은 후 300만 원씩 출자해서 '희망도레미'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조합원 40명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즉, 저희는 기존 일자리 매칭을 통해 몇 명을 취업시키겠다는 것보다, 이걸 이미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희망도레미'와 같은 모델을 천 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하겠다, 이런 전략이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취지나 의미가 궁금할 수도 있겠으나 역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 것입니다. 남경아 단장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 50플러스 사업의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인생재설계 지원

- 원스톱 종합상담센터 설치(권역별 1개소/총5개)
- 인생재설계 입문, 전문, 단과 과정 운영
-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구축
- 대상별, 욕구별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2) 50+일과 사회공헌

- 50+양코르 펠로우십 프로그램 모델링(교육과 인턴십 병행 모델)
- 공공일자리 신규 발굴 및 확산
- 직종별, 대상별 50+일자리 협동조합 설립 및 중소기업 연계 수익모델 창출
- 중장년층 창업 성공모델 육성
- 다양한 창작 아카데미 운영
- 사회공헌 허브 구축
- 개방형 공유 공간과 스타트업 입주 사무실 조성

#### 3) 50+문화 확산

- 인생 후반 조화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시
- 50+단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50+학습공동체 및 일상 동호회 활동 지원
- 꿈찾기 프로젝트
- 심과 힐링, 여가, 건강 프로그램 지원
- 50+신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캠페인

#### 4) 연구, 조사, 홍보 사업

- 실사구시 당사자 주도 연구, 조사 사업
- 50+콘텐츠 개발 및 보급
- 50+저널, 리포트, 매뉴얼, 가이드북 발간

**정성원** 재단 사업 설계를 위해 해외 사례도 많이 연구, 검토하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남경아** 제가 이 사업을 연구하면 할수록 결국 문화로 귀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년의 문화라는 것은 느티나무 아래서 장기 두는 것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고, 또 노년이 보여주는 문화는 웬지 쓸쓸하고 구차하고 우울하게 비쳐지는데 그렇다면 실제 당사자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봤을 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외국의 경우 베이스가 우리와는 다릅니다만 노년의 문화를, 특히 50세대의 문화를 굉장히 발달하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은퇴자협회'로 잘 알려진 미국 최대의 비영리기관 AARP도 고령자문제에 천착하다가 미국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니까 예를 들면 '1960년대 베이비붐 문화를 떠올렸을 때의 키워드' 이런 것으로 계속 스토리텔링하고 재미있는 출판물로 만들어서 젊은 세대와 교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적인 게 중요하고 그들 스스로 당사자들이 보여주는 일상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갔을 때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니트를 짜는 할머니들의 모임' 이런 거였어요. 거창한 비영리기관이 아니라. 영국의 '캠튼 타운 슈드'처럼 마을 목공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퇴직 남성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매개로서의 목공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장 넓고 좋은 공간을 차 마시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상의 문화를 통한 노년의 모습을 당사자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해외 사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년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 무엇보다 일상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다른 세대와의 소통, 교류 정도가 아니라 교감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행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저희가 50플러스 재단의 기능(기획, 서비스 제공, 지원 관리협력) 외에 '홍보와 프로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캠페인 그리고 무브먼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원** 시에서 운영하는 캠퍼스와 구 단위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 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연계와 협력 그리고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경아** 동네 단위에서 일자리 문제까지 푸는 것은 절대적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 관련한 것은 재단이 기업 연계, 학교 연계 등 상층 단위의 협약을 통해 굵직굵직한 루

트를 개척할 텐데 이것은 캠퍼스를 통해 구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전환기에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네에 머무는 시간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럼 동네 안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것을 일본에서는 ‘지역 테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센터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가 마을관련 사업을 하면서 마을 안에서 ‘베이비붐 세대 마을에서 먹고 살기’ 이런 콘서트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U3A 같은 시니어 학습공동체 모델도 권역보다는 동네 단위로 이뤄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원**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만 재단이나 캠퍼스 그리고 센터의 준비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남경아** 인생이모작지원단은 4월부터 10월말까지로 활동이 종료되었고 2015년 10월에 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내년에 캠퍼스를 1학기에 개관해야 하는 추진단 업무까지 동시에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재단의 임원진 인선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 스텝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추진단이 작성한 사업계획과 캠퍼스 개관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캠퍼스는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 중 하나인데 공간적으로 보면 은평구는 기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캠퍼스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마포구도 공덕동에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로의 경우는 신축이어서 2017년도 개관을 계획하고 있고, 강남의 경우 저희 사업의 대상층이 밀집된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금액 문제 등으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임대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캠퍼스의 기능과 역할은 동일하지만 한편으로 지역에 따라 ‘따로 또 같이’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은평의 경우 혁신파크라는 단지의 특성을 살려서 공공 일자리와 세대공감 모델을 특화하는 캠퍼스, 마포는 서울시창업지원센터랑 입주를 같이하기 때문에 50세대 창업·창직(창조적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 만들어진 직업-편집자 주)을 특화한 프로그램, 강남권의 경우 기업과 연계한 50플러스 소셜벤처 같은 소규모 모델로 갈 계획입니다. 공간이 작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 D.CAMP(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이 운영하는 복합 창업센터-편집자 주)처럼 50대의 디캠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로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족, 세대통합, 마을에서의 시니어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20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선 6기의 공약이고 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양적 확대를 지향하기보다는 캠퍼스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모델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내실을 갖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성원** 재단 교육사업을 보면 평생교육과의 접점도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나요.

**남경아**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협력해서 함께 시너지를 내자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상의 학습문화인 U3A의 경우 평생교육 분야나 저희나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요, 인생학교도 그와 유사한 아젠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50플러스 사업에서는 일자리 못지않게 그거저에 50세대의 공공성, 시민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에서 훨씬 더 중점적인 가치이고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특화해서 진행할 노후설



계·인생설계 이런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이 되는 부분을 실사구시 측면에서 잘 살펴보고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성원** 이런 내용의 사업을 고민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언을 해 주다면요.

**남경아** 50플러스 사업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노인복지와 뭐가 다른지 등등에 관한 이해 없이 시작하면 차별성 없는 비슷한 공간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려면 설블리 시작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 당연히 단체장의 의지와 마인드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익숙지 않은 개념이니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마을사업에서 희망을 봐요. 처음에는 아무도 마을사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현명한 단체장들이 금방 습득하고 새롭고 다양한 마을 사업의 모델을 보여주었듯이 50플러스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하자센터’나 ‘청년허브’가 보여준 모습은 사뭇 다른 것이잖아요. 당사자 중심 운동이기도 하고.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의 노인 세대와는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다른 것이 뭔지, 다르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과 다르게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수행 경험 있는 사람이 민간에 많지 않아요. 오히려 경험이 있다면 서울의 경우 시니어 비즈니스 그룹 쪽이에요. 실버산업, 기업 쪽이 더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공공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시민사회에서 이런 사업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조금은 위기요소이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운동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수원은 ‘뫼라도학교’를 통해 축적한 민간 영역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인드를 갖춘 시장과 행정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사업을 경험한 주체가 잘 결합되어 지역 조건과 상황에 맞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남경아** 제가 2006년 중장년층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30대 후반인데, 이제 저도 40대 후반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50플러스 이슈가 곧 저의 문제로 다가오고 제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성공적 노화나 신노년 같은 담론이 너무 생산성, 경제적 활동 중심으로 치우친 것 같아 아쉬움이 듭니다. 얼마 전 읽은 글이 떠오르는데요. “오늘날 노인이 구차스러운 지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궁핍 때문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아를 지탱해 주는 문화의 상실에 있다. 문화는 긴 세월 속에서 서서히 변화되고 축적된다. 문화적인 창의력과 수용 능력은 꾸준한 학습과 연마를 필요로 한다. 자아상의 빈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노년을 궁색하게 만든다.”(김찬호) 어찌 보면 제가 50플러스 사업에서 ‘문화’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고, 그게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50세대 스스로 ‘일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노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한테 귀 따갑게 들었던 ‘나처럼은 살지 마라’가 아니라, ‘나 같이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다양한 노년의 모습도 있는 거야’, ‘나이 50이 되니 이런 게 즐겁네. 60살이 되니 이런 즐거움이 있네’ 라는 걸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한국사회 미래 비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수원시평생학습관. 최근 제가 살아온 경력인데 세 기관 공히 창립 멤버로 들어가 초기 단계부터 세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사 첫 삼을 잡은 자의 사명이 있고 숙명적인 노고가 있게 마련입니다. 처음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는 예산이 나오질 않아 한 달 동안 딱풀 하나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첫걸음을 떼는 50+ 재단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남다를뿐더러 정치적으로 예민한 지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50플러스 사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예의주시하는 눈길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를 빨리 만들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경아 단장이 보여준 열정과 능력치라면 시기에 관계없이 능히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류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고령사회. 그리고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시니어 세대. 이제 그들의 자발성을 신뢰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50+ 재단의 힘찬 도전에 따듯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 제3의 인생 재단 The Third Ag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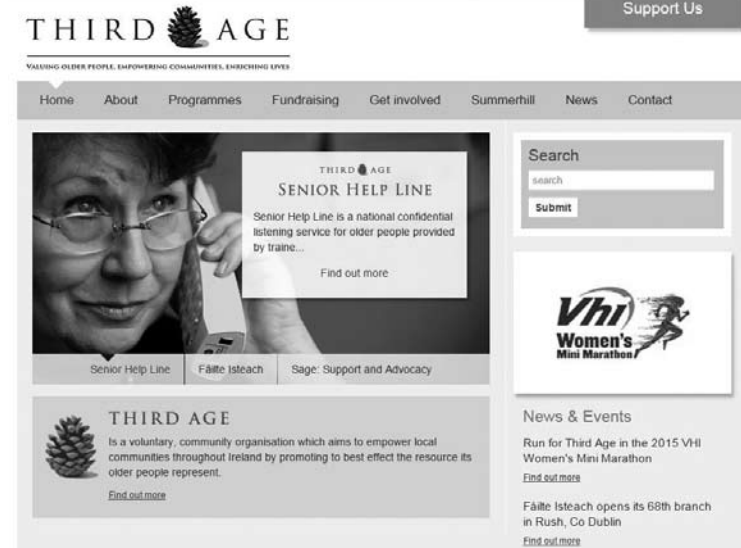
### 지역사회와 시니어들의 연결고리 만들기

며칠 전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어림잡아 약 2백만 명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성인 남자 몸무게를 훌쩍 뛰어넘는 100kg의 폐지를 모아야 겨우 6천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인생의 황혼기에 빈곤을 마주한 노인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재정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노인들을 위해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준비와 대책이 필요할까?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은 일찍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에서 먼저 대두돼, 이를 해결하려는 고민과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노인층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 능력이 떨어진 세대가 아니라 자식을 양육하는 제2의 인생이 끝난 이후의 삶을 마주한 '제3의 인생(The Third Age)'으로 정의했다. 국가는 복지정책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들도 노인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니어 지원 사례의 하나로 아일랜드 <제3의 인생 재단(The Third Age Foundation)>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시니어는 일방적 수혜 대상이 아니다

아일랜드 제3의 인생 재단은 1988년에 설립된 자발적인 시니어 단체로 현 아일랜드 대



제3의 인생 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통령 마이클 히긴스가 후원자이기도 할 정도로 명성이 있다. 아일랜드에서도 노인 문제는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인데, 이 재단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은 재정적, 물리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제3의 인생 재단에 따르면 재단을 통해 매주 몇 천 명의 시니어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갖고 자원봉사 활동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1,2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제3의 인생 재단에 참여했다고 한다.

재단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시니어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일방적으로 시니어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시니어들이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니어들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재조명하고, 시니어들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니어를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여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다른 재단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 시니어 + 이민자 = 혁신적 언어 교육 프로그램

전국적인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Fáilte Isteach' (아일랜드어로 환영한다는 뜻)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들이 아일랜드에 정착한 이민자들에

게 영어(아일랜드 공식언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민자들은 연령을 불문하고 무료로 배울 수 있는데 영어를 배움으로서 아일랜드 사회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고, 시니어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기부할 수 있으니 윈-윈 프로그램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60번째 지점을 열었고 59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1,800명의 이민자 학생들이 매주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유럽 의회로부터 언어교육 분야에 있어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수여하는 상을 받았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21개 카운티, 60개 이상의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아쇼카 재단(Ashoka Foundation)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했다.



시니어들은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이민자들은 무료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Fáilte Isteach 프로그램 (출처: 제3의 인생 재단 홈페이지)

### 시니어 + 시니어 = 촘촘한 시니어 자원봉사 지원 체계

제3의 인생 재단에서는 '시니어 헬프 라인(Senior Help Line)'을 통해 전화로 시니어들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3년 1년 동안에만 총 3만 통의 전화를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이 응대했다. 전화를 거는 시니어들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진 고독감과 외로움, 재정적 어려움과 걱정, 건강 염려, 정보 문의, 배우자 사별, 노인 학대, 자살 충동 등 다양한 개인적 고충에 대해 털어놓는다.

이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데, 50대 이상 시니어들을 자원봉사자로 뽑아 5일 동안 전화상담 교육 및 훈련을 시킨다.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훈련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인상적인데, 각 지역 센터를 방문해 센터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는 활동도 별도로 교육받고 훈련된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한다. 즉, 자원봉사자 관리 역시 자원봉사자를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제3의 인생 재단의 권익 옹호(Advocacy) 프로그램인 '세이지(Sage)'도 전국 단위 프로그램 중 하나다. 양로원에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시니어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3년을 기준으로 12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히 참여 중이다. 또 지역사회 속으로 더 밀접하게 들어가기 위해 양로원 이외에 병원 등에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니어 헬프 라인 소개 동영상 갈무리

### 시니어 + 다른 세대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 통합

제3의 인생 재단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성'이다. 이 재단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멀지 않은 썬머힐(Summer hill)에 위치해 있는데 전국적 프로그램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매주 컴퓨터 강좌, 아로마 테라피, 영양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대간 교류(Intergenerational) 프로그램을 주목해볼 만하다. 지역의 초등학교와 연계해 시니어들과 학생들과의 만남을 진행한다. 가령 백 투 스쿨(Back to School) 프로그램의 경우 시니어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시니어들의 학창 시절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 한다. '돌아보기(Reflections)'로 불리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뜨개질 클럽(Knitting Club)'도 흥미롭다. 이 클럽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더 이상 뜨개질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데 주목, 시니어들이 학생들에게 뜨개질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단순히 뜨개질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이 뜨개질을 배워 만드는 인형은 밝은 색깔의 테디 베어인데, 이 인형들은 '트라우마 테디(Trauma Teddies)'로 불리며 트라우마 치료에 쓰인다. 아일랜드 전역에서 아이들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될 때 이 테디 베어가 전달되며, 지금까지 약 1,200여 개가 만들어져 배포됐다. 이 클럽에는 매주 5명의 시니어와 4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뜨개질 클럽(출처 : 제3의 인생 재단 홈페이지)

제3의 인생 재단 참여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누구나 멤버가 될 수 있으며, 멤버십 비용은 일 년에 25유로(약 3만 원)에 불과하다. 자원봉사가 주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멤버십 비용을 두어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멤버십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시니어를 활동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한국에도 제3의 인생 재단처럼 시니어를 지역사회의 주체이자 기여자로 바라보는 기관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또 시니어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시니어들에게 사회참여 활동을 마련해주고 시니어들

간의, 시니어와 다른 세대간의 교류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힘겨운 수레 밀기도 끝나지 않을까.

글 황명화

〈참고 자료〉

- <http://www.thirdageireland.ie>
- <https://www.youtube.com/watch?v=RdUL1H5i9M>

---

# 시민교육의 스펙트럼

공교육 안에서의 시민교육

시민교육은 100m 달리기보다 아닌 마라톤

공생이 상생이다

시티즌십 파운데이션

NECE

## 공교육 안에서의 시민교육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는 사회와 교육 전반에 팽배하다. 최근 일고 있는 갑을 논쟁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 오너 딸의 행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 착취를 비하는 일명 ‘열정페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청년들이 받고 있다. 이런 사회 문제들이 시민교육의 부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 일원으로 현재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여러 시스템 안에서 시민교육의 안정적 정착은 시대적으로도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던진다. 이것에 대한 답은 먼저 ‘누구를 위한(For whom) 시민교육인가’로부터 출발한다. 시민교육의 타깃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교실 안 교육’이 필요한 초중고 학생들, 두 번째는 청년과 장년층을 아우르는 그룹, 마지막으로 시니어 그룹을 위한 평생교육(혹은 계속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그룹을 위한 시민교육은 하나의 선상에 있을 지라도 방법과 수준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시민교육이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교실 안’에서 ‘경험’하는 시민교육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공교육 내 시민교육의 안착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시작 연령과 방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시민교육의 메카라 불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의 경우 시민교육의 출발을 ‘학교 안 교육’에서부터 보고 있다. 미국은 1998년, 영국은 2002년 시민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고, 1985년 초·중학교에 시민교육을 의무화한 프랑스는 1999년부터 고등학교에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스웨덴과 스페인 등은 시민교육 과목이 따로 개설되지 않았지만 사회나 도덕 과목 안에 시민교육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민교육의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따로 마련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가까운 싱가포르 역시 지난 2012년 가치지향 교육을 교육의 모토로 공표하고 모든 학교 시스템 안에 이 같은 목표를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핵심이 인성교육과 시민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화여대의 양승태 교수가 2015년 한 심포지엄(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에서 “사회적 리더들의 정신적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교양시민문화의 형성을 근원적이고 장기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초중등 교육에서 이뤄지는 시민교육이어야 한다”고 한 주장이 설득력 있다.

공교육 내에 시민교육의 편입은 앞서 이야기한 국가에서도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필요성은 동일하게 느끼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이라는 화두로 계속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교육 내의 시민교육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럼 ‘교실 안 시민교육’의 도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시민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자라나는 세대에게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확충은 그 어떤 사안보다도 절실하다. 사실 현재 그들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는 제대로 된 시민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다. 특히 유럽과 주요국들이 교육 과정 내 사용하는 시민교육의 방법들은 토론, 프로젝트, 모의 법정, 설문 조사, 역할극 등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들이 아니다. 말 그대로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interaction)이 요구되고 수많은 케이스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고민을 끌어내고 결론을 합리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과정상의 경험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직의 교사들에게 본인의 교수 업무 이외에 ‘시민교

육'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던져주고 연구해 진행하라는 것은 무리일뿐 아니라 진행한다고 해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시민교육은 흔히 말하는 정보나 지식 교육이 아니다. 일종의 가치 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가치 교육의 핵심은 '전달자'이다. 이 가치는 한 개인의 변화를 수용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동기까지 갖게 해주어야 한다. 시민교육의 거장 스티븐 교수(Steven E. Finkel)는 시민교육의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바로 존경할 만한 선생님에 의한 가르침을 꼽았다. 내면 동기가 동반되어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치 교육은 실질적 전달자에 따라 그 과정이 거부감으로 다가오느냐를 가늠 짓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가올 '학교 안 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정부의 준비는 꼭 필요해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성 교육'을 가르칠 교사들이 가치의 전수자라는 점을 감안해 예비 교사들이 학부 과정 내에서 환경, 인권 등과 관련된 가치 중심의 교육 주제를 다루는 커뮤니티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너의 일

전달자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이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주제가 되면 좋다. 시민교육의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주제들을 현재의 학교 이슈나 사회적 이슈와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 학교에서는 이러한 인성과 시민성 교육을 주입식으로 계발시킬 수 없다는 자각에 기반을 두고 실생활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방식으로 교육할 것을 권장한다. 그 결과 이러한 일련의 교육은 다른 교과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 등 일반 교과 수업이나 방과후 활동과 통합돼 실시된다.(한국교육신문(2012.08.09))

이러한 통합 수업이 아니더라도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학교 생활에서 실제 시민성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태 이후 진행되는 여러 법적 절차와 경찰서나 보호 감찰소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한 안내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딱딱한 주제보다도 실제로 내가 정치적인 의무를 행사할 때 부딪칠 여러 상황들과 왜 나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실질적인 질문과 함께 다룰 수 있다.

Name: \_\_\_\_\_ Date: \_\_\_\_\_

**Short Answer Questions**

1. The next election is November 8, your 18<sup>th</sup> birthday. Your state's deadline for voter registration is October 1. Can you register to vote in the election? Explain your answer.
2. A 21 year-old student from China is attending a U.S. university and plans to return home after graduation. Is this student eligible to vo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xplain your answer.
3. Explain why voters must register.
4. Look up the deadline and voter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the state you live in.
5. Find out where the polling places are in your community, especially the polling place nearest to where you live.
6. How has computerized voting affected polling places?
7. Will you register to vote when you are old enough? Explain why or why not.

**Why It Is Important to Vote**

Bad officers are elected by good citizens who do not vote.  
—George Jean Hanan (1882-1968)

It is easy to see that well over 100 years ago American citizens were promoting the importance of voting. The American way of life depends upon democracy and a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is that every citizen is allowed to participate in how the country and the government are run. The primary way the citizens participate is by voting for elected officials. We probably forget that Americans fought long and hard to achieve independence from Great Britain over 200 years ago during the Revolutionary War. Meanwhile, today American soldiers are being wounded and dying to help people in other countries, like Iraq, achieve democracy and have a say in their government.

Many countries are ruled by a dictator like Saddam Hussein who is the only ruler and controls everything about the country. With a dictator people have no say in the laws and taxes in their country. People don't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in a Communist country either. In a Communist country the rulers control everything including housing, jobs and education.

Voting is the key to maintaining American freedoms and American society yet American people are ignoring their right and duty to vote. About 60% of the total registered voters voted in the 1960 Presidential Election, less than 40% in the 1996 election and about 63% in the historic 2008 election. In 1998 only about 20% of eligible voters who were 18 to 24 years-old voted while only about 50% of young people ages 18 to 29 voted in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Not enough eligible voters are participating in our democracy and even fewer young people are taking the time to vote.

Elected officials make important life and death decisions about what happens in the United States. Leaders decide about death when they enact legislation about ethical medical treatments and sending soldiers to war. Leaders decide about life when they consider abortion. They legislate the quality of your life, for example, when they set the tax rate or how Social Security operates in old age. It's up to everyone to select the best possible leaders by learning about candidates and going out to vote. It's important.

**1 U.S. Constitution**

- ◆ Founders
- ◆ Bill of Rights
- ◆ Balance of Powers
- ◆ View Large Sample

**2 Influential Leaders**

- ◆ History makers
- ◆ Reading Activities
- ◆ Critical Thinking
- ◆ View Large Sample

**3 Countries / Continents**

- ◆ Critical Issues
- ◆ Contributions
- ◆ Reading Focused
- ◆ View Large Sample

**4 Presidential Series**

- ◆ Who are they?
- ◆ Biographies
- ◆ Legacies
- ◆ View Large Sample

**5 Elections & Voting**

- ◆ Complete answer keys
- ◆ Engage students
- ◆ Vocabulary focused
- ◆ View Large Sample

**6 State Maps**

- ◆ 50 States
- ◆ Full page
- ◆ Large visuals
- ◆ View Large Sample

(출처 : <http://www.teach-nology.com>)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런 정치적 이슈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접근한다. <http://www.teach-nology.com>에서는 교실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민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 중 하나를 살펴보면 '선거 등록일자가 10월 1일인데 다음 선거일은 11월 18일이고 그때가 바로 너의 생일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선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질문이다. 또 이 답변에 대한 이유를 적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 의거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나이와 시기가 언제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동시에 정답이 아닌 대담

에 손을 든 학생이 제시한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그것을 실제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의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 배움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시민교육

많은 국가들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실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제가 정해지면 어떤 한 주제에 대한 신문기사나 사례 연구(case study)를 통해 그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먼저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몇 가지의 과제와 질문, 활동을 통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화의 시간을 갖게 한다. 이후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하도록 한다.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감을 얻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대중적인 반응을 살펴보는 작업까지 완수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독일의 경우도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은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를 스스로 정하고 그룹을 결성하여 토론을 진행한다고 한다. 또한 교과서가 단순한 토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제와 관련된 역할극, 브레인스토밍, 벽신문 같은 구체적 실행 방법들은 물론, 현장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친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이인선, 「2008년 국회 간담회 세계의 시민교육」)

호주 남부의 아델레이드(Adelaide) 지역에 위치한 로클리스 노스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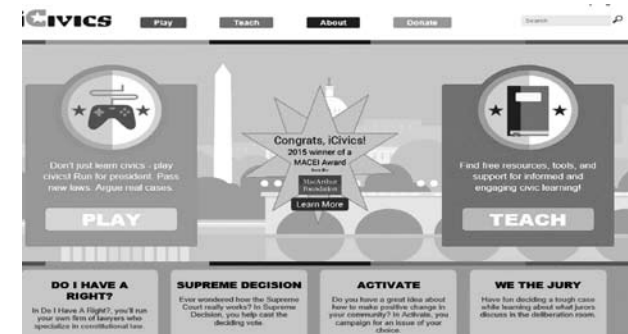


(출처: 구글 이미지)

(Lockleys North Primary School)는 우리 나이로 만 5세 아이들부터 매주 학급 미팅(Class Meeting)을 진행한다. 학급 미팅의 주된 안건은 바로 학교 안에서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학생들은 매주 이 미팅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용납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해 토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안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스스로 정한다. 이렇게 학생들로부터 상정된 안건은 모두의 동의가 있는 뒤 매일 학급의 생활에서 지켜져야 할 학급의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으로 상정된다. 아이들은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 가는 과정을 배우며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킬 때 거기서 파생되는 긍정적인 결과까지 추적해 최종으로 그 결과를 놓고 또 한 번 토론을 한다. 행동 강령을 잘 준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급 내 상벌 체계도 확실하다. 책임감 있는 학생에게는 학급 내에서도 전교생 부모들에게 나가는 뉴스레터 등에 공지되고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는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단계별로 벌을 주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굳이 수업시간에 배우지 않아도 대인 관계 기술이나 나와 다른 의견을 조정하는 법, 갈등을 조율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이들은 학생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외부인과 학생들의 관계 및 행동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실제로 이 학교는 이 지역에서도 가고 싶은 학교 1 순위로 손꼽히는 학교로 평평이 나있다. 이 학교의 중요한 시민교육의 포인트는 학생들이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만 5세부터 스스로 행동이 가져오는 인과관계와 책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교실 안 수업이 아닌 바로 그들 스스로 '과정 참여'에 있는 것이다.

많은 시민교육가들이 지적하는 점도 이와 동일하다. 학교 안 시민교육은 단순히 일방적인 전달로 이뤄지지 않는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민교육을 학습하는 그 현장과 과정 자체가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icivics 웹사이트 갈무리

미국의 한 웹사이트 <https://www.icivics.org>에서는 학습자와 교사에게 다양한 방법의 시민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학생들에게는 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민교육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이 사이트의 최고 강점은 바로 게임 시뮬레이션이다.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주제들을 친근한 게임 시뮬레이션으로 접근함으로써 상호작용(Interactive) 측면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출처 : <https://www.icivics.org>)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체득하는 시민교육이 절실한 지금이다. 시민교육을 공교육으로 편입시킨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민교육 재편을 위해 관련 교육기관만 움직인 것이 아니다. 시민교육은 말 그대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위해, 인생 전반에 걸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에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글 김수향

<참고 자료>

- 한국교육신문(2012. 08. 09) 싱가포르의 인성·시민성 교육
- 이만선, 「2008년 국회간담회 세계의 시민교육」 중 독일의 시민교육
- <http://www.teach-nology.com>
- <https://www.icivics.org>

## 시민교육은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

최근 미국 유타 주에서 시민교육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이 불가능한 법안을 상정해 화제다. 이미 상원에서는 통과되었고 하원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민교육을 필수 교과로 지정한 데 이어 고등학교 졸업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은 미국 내에서도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합격은 50개 문제 중에 75% 이상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이민자들을 위한 시민교육 테스트의 합격점인 60점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기준을 이렇게 높인 것은 좋은 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책임이 공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동의에서 비롯되었다.



(출처 : <http://civicseducationinitiative.com/blog>)

미국 인구조사기관(the US Census)이 지난 1864년부터 2012년까지 연령대별 투표율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가 가능한 미국 나이 18세에서 24세까지의 투표율이 51%에서 38%까지 떨어졌고, 젊은층의 투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으며

그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젊은층(만 18~24세)의 정치적 무관심은 심각한 문제다. 2009년 자료(Hansard Audit of Political Engagement)에 의하면 전체 연령의 평균 투표 참여율이 53%인데 반해 해당 타깃의 투표율은 24%로 현저히 낮다.

## 국가의 '허리 세대'를 위한 시민교육

이는 비단 미국과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도 젊은 세대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시민교육이 학교교육으로 그친다면 이런 결과는 더 심화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시민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정치적 문해력'은 '참여'라는 파트너를 만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 교육'이 시민교육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교육 안에서의 시민교육은 실천의 기회가 부족한 10대에게 전반적인 개념 학습과 적용점을 찾는 것 위주가 될 것이다. 벨라 로버트(Bellah Robert)는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은 말 그대로 습관으로 내재시키는 것(habits of the heart)이라고 하였다. 나를 존중하듯 남도 존중하는 것, 공익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와 다른 타인을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 등 기본적인 소양을 장착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인 그룹에서도 적용되려면 시민교육은 이후에도 계속 되어야 한다. 보다 실질적이고 실무적이며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청년 시대를 넘어 결혼 육아를 경험하고 시니어 그룹에 편입하기 전의 '어른 세대'는 시민교육의 영향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세대이다. 즉 현실에서 '시민성'을 실질적으로 발현하는 시기의 세대라 하겠다. 남녀 경제 활동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여론으로 확대 생산할 수 있는 세대이다. 한 국가의 생산성을 감당하고 국가적 건설을 담당하는 세대이다. 그래서 이 세대를 위한 시민교육은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어른을 위한 시민교육은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어른을 위한 시민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개인들이 피해를 주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사회가 시민 사회(Civil Society)를 구현하는 것일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민 사회의 그림은 무엇인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

한 줄로 서서 기다리는 것, 노인과 약자 등에게 자신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양보하는 것, 상냥한 낯으로 타인을 대하고 불쾌함을 유발하는 행동을 삼가는 것... 이런 것들은 물론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의'가 시민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시민 사회는 정치, 경제 전반의 '공적인 영역'에 기반을 두고, 시민교육도 공적인 영역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즉,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공공의 선(the common good)을 위해 개인이나 공동체 모두 함께 그런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시민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하겠다. 동시에 시민교육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교육이 시민의 자질만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교육 안에서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른을 위한 시민교육은 많은 쟁점과 영역을 다룬다. 이 글에서는 앞서 설명한 맥락에서 '참여'와 '실행', 그리고 '배움'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보도록 하겠다.

## Project Citizen



(출처: <https://www.icivics.org>)

미국의 시민교육센터(the Center for Civic Education)에서 개발한 시민 프로젝트(Project Citizen)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아프리카지역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가 흥미롭다. 교육 후 설문에서 그들은 자신이 정부의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정치적인 것이나 참여에 더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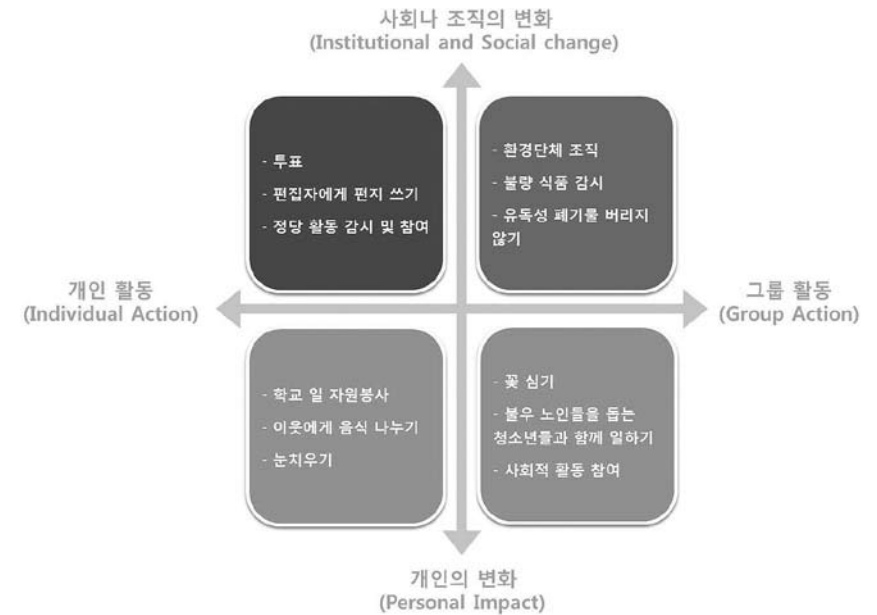
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단순히 교실에 앉아 강의를 듣고 배우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을 가지고 자신이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 실현가능성을 따지는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정된 안건들 중 참여자들이 만장일치로 정한 현안 해결 방법을 직접 지역의 입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메일을 보내는 등 현안 인지를 촉구하는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관련 기관의 답을 받아보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과정들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일부의 입법 결정자나 정치인이 아닌 시민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런 작은 깨달음이 '참여(Attendance)'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시민교육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 참여에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이 갖는 정치적 힘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점에 있다고 말한다. 민주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의 주체는 한 권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사회 각각의 계층과 그룹들의 다양한 소리가 된다. 이런 면에서 정치적 참여는 한 시민이 갖는 의무이자 권리가 되며,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이끌어 내는 사회적 변화의 힘은 막강하다.

### 시민교육의 꽃, 실행

어른들을 위한 시민교육의 또 다른 주안점은 실행(Action)이다. 시민교육 전문가 줄리엣 박사(Juliet Merrifield)는 그녀의 리서치 자료(Finding our lodestone again: democracy, the civil society and adult education, 27th Annual SCUTREA conference proceedings 1997)에서 올바른 시민성의 핵심에는 '실행'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 1년 동안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연구했다. 그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시민'이란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답을 얻었다. 실행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당신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좋은 시민이 아니'라고 말했고, 또 다른 참여자는 좋은 시민이 되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련의 노력들과 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교육 참여자들은 독거노인이나 아픈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 주변을 청소하거나 살피는 것, 자녀의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자신을 진정한 시민으로 느꼈다고 한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이든 그룹이든 사회적 참여가 이뤄졌을 때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른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에서 다뤄져야 하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앞서 줄리엣이 언급한 사회 참여와 실행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시민들은 먼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To be informed),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고 (To have a voice), 공동체와 함께 일해야 한다 (To work together).

먼저 정보력에 대한 교육은 소스의 정보들의 진위를 잘 판단하고 정보의 '행간'을 읽는 능력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정보들이 이후 여러 참여적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의 취사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 이를 감정적이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는다는 것이 단순히 소신을 갖는다는 말은 아니다.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자신에게 어울리는 방법이나 매체들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공식적인 조직이든 그렇지 않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과 많은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배려하는 것을 배움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분쟁을 조정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http://www.folkbildningsradet.se>)

## 공부하는 시민, 스웨덴

국민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기로 유명한 스웨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교육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 1900년대 초반부터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한 사람들이 스스로 모였고, 2006년도에는 정부의 지원까지 받게 되었으며 현재는 정부가 위임한 10개의 비영리 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스웨덴에는 28만 개의 학습 서클이 있으며 인구의 10% 정도가 이 서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레베카 스벤슨(스웨덴시민교육협회 국장)은 비판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스웨덴 교육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 학습 서클은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민주주의를 익힌다고 말한다.(아이쿱 생협 블로그(2014.10.18)) 이 서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얻는 동시에 사회 발전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능력 고양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사회적 의식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스웨덴이라는 사회 전체가 문화적으로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의 취미 교육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이 시민교육의 대상이 되고 어떠한 시점이든 배움을 멈춘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간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동시에 배움과 노동이 연계되어 경제 활동 인구를 만들어 내는 즉, 공적 자원의 생산이라는 측면에도 의미가 깊다. 이러한 학습 서클에 기반한 시민교육은 후에 실업자들을 위한 재취업이나 시니어들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가는 중요한 주춧돌이 되어주고 있다. 문자 그대로인 '평생' 교육이 이루어지는 근간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 보다 성숙한 시민교육을 위하여

한 명의 훌륭한 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책임은 한 개인이나 그룹에게 부과되기에는 너무 큰 과제이다. 계속 강조하듯이 '시민교육'은 한 시민 단체나 지역 기관이 아닌 국가 전체의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은 정치제도의 정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지탱하는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치 의식이 필요하다. 로컬 단위의 공동체 활동은 사회적으로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의 변화와 새로운 실험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참여와 실행, 배움의 다양성이 억압받지 않으면서 보편적이고 성숙한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시민교육이 국내에도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김수향

### 〈참고 자료〉

- 아이쿱생협 블로그(2014. 10. 18) 스웨덴의 힘은 공부하는 시민
- <http://civicseducationinitiative.com/blog>
- <http://www.teachercc.org>
- <http://www.civiced.org>
- <http://www.folkbildningsradet.se>

## 공생이 상생이다

시민교육의 핵심은 바로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데 있다. 모든 스포츠에도 연습이 필요하고 실전을 위한 장이 필요하듯이 시민교육에도 시행착오와 실전을 위한 '장(場)'이 필요하다. 이 장에는 나 혼자만 아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통의 목표(더불어 사는 좀 더 나은 세상)를 가지고 함께 고민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의 경우 이 장이 로컬(Local)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로컬(Local) 개념은 특수한 정치 상황으로 '지역 감정'이나 '시골/지방'이라는 조금 변색된 의미였다. 최근에는 해외의 로컬 개념과 비슷한 컨셉의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마을공동체는 말 그대로 주민이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일컫는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도시 재생'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려 최근 가장 핫한 트렌드라 할 수 있다.

지식공유 콘퍼런스로 알려진 TEDx가 2012년 올해의 연사로 꼽은 것은 인물이 아닌 '시티 2.0'이라는 아이디어였다. 이는 도시를 재구성하는 아이디어이다. 한국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출범했고, 서울시는 도시재생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한겨레(2014.10.01)) 도시 재생이 아니더라도 최근 귀농한 젊은이

들의 아이디어로 죽어가던 지역 마을이 새롭게 활력을 얻기도 한다.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단순한 유통으로 납품했던 것에서 그 특산품을 이용한 체험마을을 만들기도 하며(임실 치즈마을, 이천 부래미마을 등), 유기농 영법이나 고부가가치 특산품의 개발은 로컬 푸드 활성화를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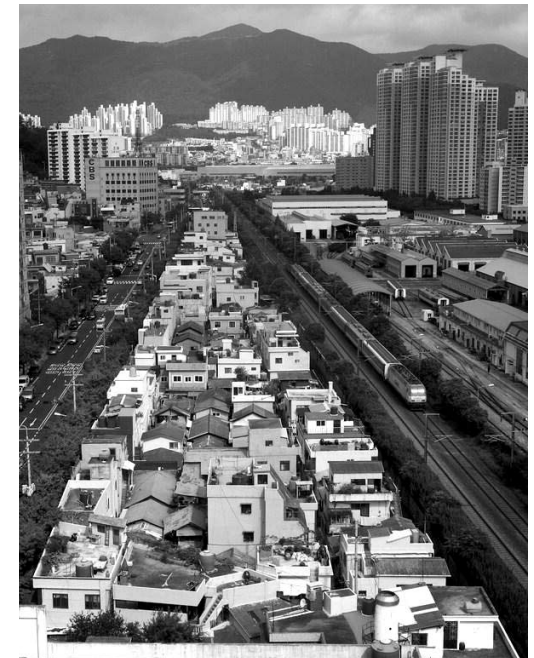
이런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는 시민 의식 함양에 아주 좋은 출발이다. 민주적 의사 결정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민교육의 현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로컬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자립도는 굉장히 높다. 이는 일부 뛰어난 리더들의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속 가능했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즉, 개입과 감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을공동체는 온전한 시민 정신의 '장'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이라 하기에 아직 역부족이다. 많은 경우 지역 자치 공동체들은 소수의, 일명 '개인 사람'들의 주도로 이끌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기업이나 도시 재생의 개념을 배운 신지식인들, 귀농한 젊은이들, 혹은 정부나 행정기관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 한 명의 로빈후드가 아닌 다수의 토박이들이 필요

부산의 철도변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기차길마을'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과 대학, 기업 그리고 시민 단체와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 마을을 바꾼 사례로 유명하다.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노인들만 남은 이 마을은 점차 낙후되었다. 그러나 마을 미화를 위해 꽃 한 송이라도 사정이 허락한다면 심는다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주변에 알려질 즈음, 주민들은 틈만 나면 모임



부산의 기차길마을(출처: 부산일보)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만들어 모이기 시작했고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이러한 노력에 마음이 움직인 부산시와 여러 대학교, 기업들이 2014년 가을 한 날 한 시 마을 재단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선끌기 행사와 전시 행정이 될 수 있는 이벤트의 함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였다. 주민들이 선정한 낡은 전기 설비 수리, 집수리, 단열 작업, 마을 단장 등에 모든 주민들과 이웃들이 매달려 마을 바꾸기에 매달렸다. 행정 주도형 마을 사업과 달리 주민들이 주도한 이 이벤트는 성공적이었다.

얼마 전 평택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문을 연 매점은 동문과 학부모가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염려가 많은 부모들이 직접 매점의 먹거리를 선정했다. 학교 매점에서 나온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융합된 두 그룹인 교육기관과 마을 공동체는 이용자가 곧 수혜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 역시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활동이다.

일본의 한 작은 도시인 네리마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70여 명의 주민들이 간담회에 참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총 25번의 회의가 열렸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주민 수는 700여 명.(오마이뉴스 (2013.12.26))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던 네리마 구는 지금까지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이 하천을 조사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업이나 도로의 폭을 넓히는 사업에 주민제안을 받기 위해 디자인 워크숍을 열기도 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위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도시 변화의 주체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외부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둔 지역민이라는 점이며 그들의 자발성이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조직은 그 힘이 남다르다. 그 자발성의 이면에는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시민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 물론 선구자는 필요하다. 리더도 필요하다. 그들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이끌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정착, 유지되며 지속될 수 있는 힘은

몇몇 소수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내가 속한 작은 사회들의 필요를 보는 여러 개인들을 통해서이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게 되고 스스로 움직일 때 사회는 미미하지만 시나브로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진일보할 것이다.

## 다양한 시민교육 콘텐츠 및 방법 개발 필요

시민교육을 위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시민교육 주체의 다양성이다. 아직 국내의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지식 전달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민주시민교육 등과 같은 다소 무겁고 진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해외의 경우 시민교육은 십대들의 임신, 폭력, 중독, 환경오염, 에너지 등 우리들의 삶과 다소 근접한 문제들을 다룬다. 이를 두고 미국 캔사스 대학의 커뮤니티 연구 기관(The Community tool box, the University of Kansas)은 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목표를 선정할 때 전체를 위한 것(universal approaches)과 특정 타깃을 위한 것(targeted approaches)이 필요하다고 말한다.(www.ctb.ku.edu) 그렇게 될 때 시민들은 단순한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로 적용 가능한 논의들을 이끌어낼 수 있고 변화를 위한 실천 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 이때 시민교육 주제 선정을 직접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출처 : <http://holbrook.wickedlocal.com>)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남부지역 학교 시민교육 클럽(the South Civic Club)에서 학생들은 매해 학교생활에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선정해 시민교육을 받는다. 이 클럽에 속한 6학년 학생들은 그 지역에 있는 약물남용치료연합(The Holbrook Cares Substance Abuse Coalition)을 초대해 오남용의 폐해와 금지 약물에 대한 정보를 교육받았다. 오남용되고 있는 약물 중에는 무분별하게 학생들이 먹는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실제 해외에서는 카페인 음료 중독이 질병이나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관련 정보를 학교나 가정으로 들고 가 공유하게 되고,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라고 인식한 관심 주제들을 찾고, 직접 관련 기관을 찾아 교육을 받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는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를 향한 내적 동기를 부여한다. 다양한 주제로의 접근과 나와 연관성이 있는 주제는 그래서 시민교육의 성패를 가늠 지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 세대 간 연합, 시민교육 성공의 마지막 열쇠

미국 위스콘신 주의 플리머스(Plymouth) 지방에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센터가 있다. 비영리단체인 PIC(Plymouth Intergenerational Coalition)가 운영하는 제너레이션스(Generations)라는 센터인데 올해 '가장 훌륭한 세대간 커뮤니티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센터의 취지는 아주 간단하다. 나이 든 세대들은 그들의 지혜와 삶의 노하우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세대들에게 전수하고, 젊은 세대, 청소년, 아이들은 다른 세대에게서 삶에 필요한 기술들과 지혜를 얻고 건강한 어른의 롤 모델을 찾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세대들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도 알게 된다. 다른 세대의 이슈는 무엇이고 현재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며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테니스와 탁구 그리고 배드민턴을 믹스해놓은 듯한 피클 볼(Pickle ball)은 1분이면 규칙을 외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경기인데 이 새롭고 신선한 게임은 남녀노소 함께 즐기기에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새롭게 개발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즐기며 참가자들은 함께 운동하고 시간을 공유한다. 수채화에 재능을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재능이 필요한 손주 세대들에게 무료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노인 세대들은 자원봉사자 청년들에게 배우기도 한다. 또한 센터에는 가족 간의 보다 끈끈한 관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이 역시 가족 안에서 도 다양한 세대가 현존하며 겪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찾아 보완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제너레이션스 활동 모습(출처: <http://generationsic.iqprintmedia.com>)

한국의 시민교육이 정착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숙제는 바로 세대 간의 연합과 소통이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0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15년 한국을 찾은 애널리스 라일스 교수(Annelise Riles)는 전세계의 고령화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많아질수록 정치, 경제, 사회 각 영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강해질 것이고 정치인도 이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반면 청년 세대의 영향력은 작아진다. 노인층이 주요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하다 보면 청년 세대는 무력감을 경험하고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청년들의 투표율 감소는 민주주의 훼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라일스 교수는 해법으로 시민교육 강화와 세대 간 소통 확대를 제시했다. 그녀는 “민주주의 시민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주인의식과 민주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은퇴자들이 그동안 축적한 정신적 자산을 청년과 공유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신문 (2015.04.01))

앞서 소개한 제너레이션스의 노인 멤버들은 센터 활동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고 누군가를 도움으로서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가족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외되었던 한 청소년은 센터 안에서 만

난 이들 때문에 나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한다.

라일스 교수의 말대로라면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숙제이다. 국내에서도 세대간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과정과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시민교육의 완성도 있는 정착을 꾀해야 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다. 완성된 한 명의 성인으로서, 그리고 그 성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자라기까지 그것은 한 개인의 노력이나 자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나라는 건강한 시민이 만든다. 건강한 시민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나라의 앞선 노력이다. 결국 한 명의 건강한 시민은 온 마을과 온 세대 그리고 온 나라가 함께 가야 하는 긴 여정이 아닐 수 없다.

글 김수향

〈참고 자료〉

- 한겨레21(2014. 10. 01) 물랐지? 랜드마크보다 지역재생!
- 오마이뉴스(2013. 12. 26)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하는데 주민 700명 직접 참여
- 서울신문(2015. 04. 01) 고령화사회 청년들 정치 무관심... 민주주의 훼손 우려
- <http://www.ctb.ku.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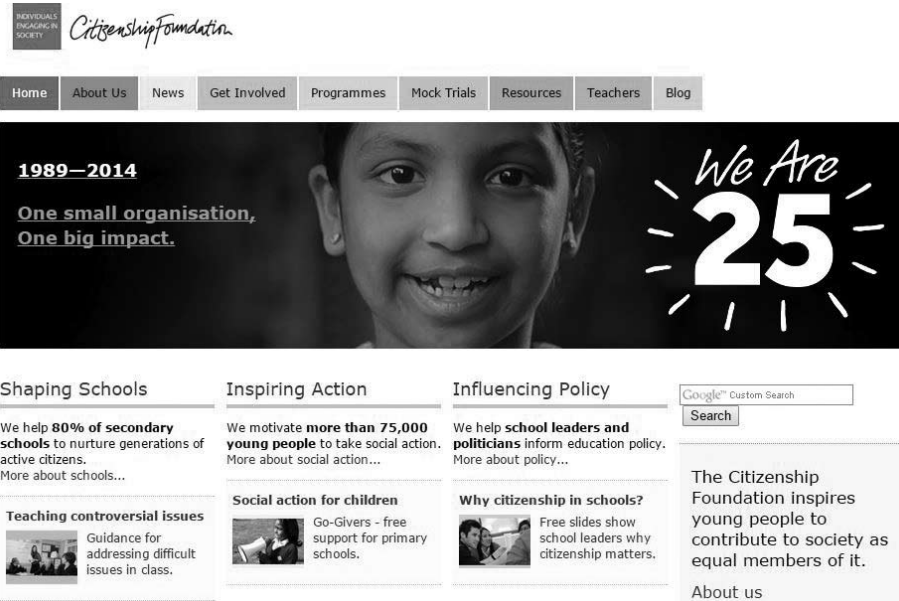
## 시티즌십 파운데이션 Citizenship Foundation

### 시민교육을 위한 연결고리

‘대체 학교에서 뭘 배웠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면 대개가 한 번쯤은 느꼈을 이 감정. 법률, 정치, 사회생활, 행정 시스템, 하다못해 돈 관리까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배우긴 배운 것인지, 결국에는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에 질문과 답변을 검색해 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사회생활이 결코 학교에서의 국어, 영어, 수학에 관한 지식으로 완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느끼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교육이란 무엇일까?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 ‘그런 교육’의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라마다 시민교육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시민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데는 일치한다. 시민의 공민권, 참정권 등의 개념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이 발전했다. 영국에서는 일찍이 한 명 한 명의 성숙한 시민(Good Citizen)을 만들어내는 것에 신경 써, 2002년부터 중고등교육 정식 커리큘럼에 시민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국 공립학교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전문가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비영리 재단 시티즌십 파운데이션(Citizenship Foundation)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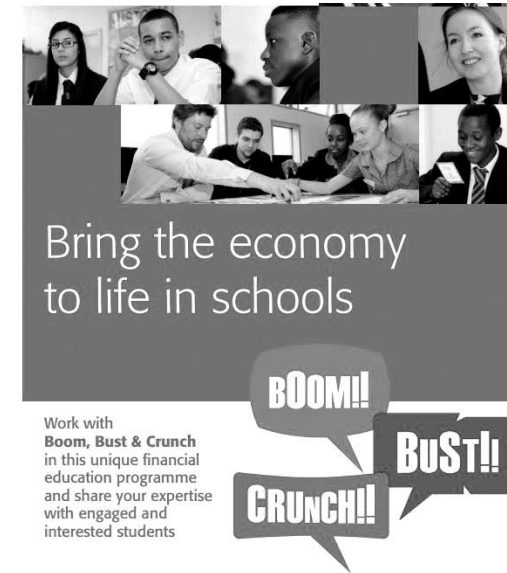
시티즌십 파운데이션 홈페이지 갈무리

### 학교-선생님-청소년-지역사회 리더, 주제별 다층적인 접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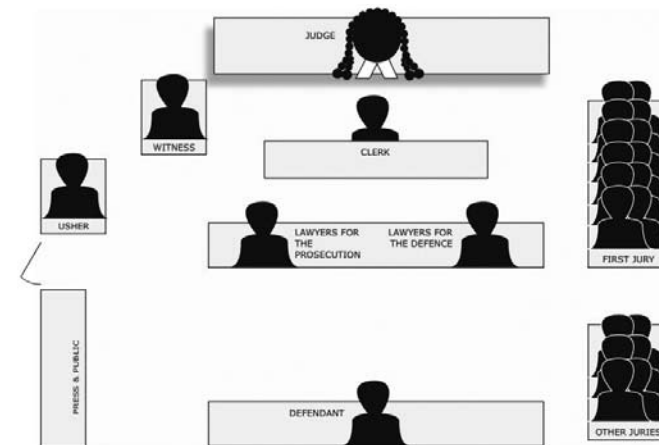
시티즌십 파운데이션은 자신들의 미션이 '사람들이 자기 삶에 결정권을 갖고 또한 삶과 지역사회에 책임을 지는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시민교육을 하는데, 첫째 학교와 선생님을 통해, 둘째 청소년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 리더들이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학교 교사들이 시민교육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교육시키고, 수업에 바로 쓸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가들이 수업에 가서 교육을 직접 진행하거나 도와주기도 하고, 시민교육이 더욱 널리 퍼지도록 학교, 지역 리더들에게 끊임없는 홍보를 하기도 한다.

이들이 하는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민교육'이라는 다소 정의하기 어려운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내용은 경제교육, 정치교육, 법 시스템 교육, 사회참여, 캠페인 등의 갈래로 나뉘어져 이뤄진다. 경제교육의 사례로 「Boom, Bust & Crunch」라는 프로그램을 보자. 이 프로그램은 2008년 전후로 나타난 세계 불황에 대해 청소년들은 미디어나 부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 됐다. 불황이 결국 경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해결되는지 세 개의 세션 - Boom: 호황(2000-2008), Bust: 파산(2008-2012), Crunch: 위기(2012-present) - 을 글로벌 컨설팅 그룹 FTI의 컨설턴트들의 도움과 잘 짜인 커리큘럼을 통해 배운다. 자원봉사로 프로그램에 참석한 컨설턴트들도 이 프로그램에 만족하는데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은 시티즌십 파운데이션의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Boom, Bust & Crunch 프로그램 리플릿 갈무리



모의법정 프로그램 자료 중 일부

##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과의 결합

법 시스템 교육도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과 참여로 진행된다. 시티즌십 파운데이션은 1984년부터 법 교육을 시민교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켰고, 1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모의법정 프로그램은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1991년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에서 300명 이상의 변호사들과 90명 이상의 재판관들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2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재단이 보급하고 있는 수업 자료를 보면, 법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본 내용부터 시작해 형법에서는 어떤 것이 증거로 인정받는지, 각각의 법에 따라 어떻게 재판이 구성되는지, 판사는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이 수업자료는 학생들이 케이스 하나를 선택해서 재판을 이끌 수 있도록 역할놀이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법률 시스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감, 팀워크, 대중 앞에서 말하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기술 등을 훈련 받을 수 있다.

사회참여에 대해 교육하는 Go Givers(<http://www.gogivers.org/register.cfm>)부터 영국 최대 보험회사 아비바(Aviva)와 함께하는 'Paying for it'이라는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눈 여겨 볼 만하다. 특히 Paying for it 프로그램에서는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힌 후 영국의 총리가 되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Chance to be Chancellor: 수상이 되는 기회'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시티즌십 파운데이션에서 인상적인 점은 시민교육이 결코 정부에서 주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비영리섹터가 끊임없이 시민교육 커리큘럼을 발전시켜 보급하고, 이를 공교육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기에 가능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전문가들의 참여,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노력, 시민들의 기부 및 기업 파트너십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학생 대상의 시민교육이지만 이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및 프로보노로 참여하는 성인에게도 시민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 황명화

<참고 자료>

- <http://www.citizenshipfoundation.org.uk>
- <http://www.gogivers.org>

## NECE Networking European Citizenship Education

### 유럽 시민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흔히 말하는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도움, 참고자료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다른 단체,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다. 활동가마다 다르겠지만, 내 경우에는 이런 리서치 활동이 큰 영감과 팁을 준다. 그 어디선가 누군가가 비슷하게 경험한 '선배'들과 '후배'들 덕분이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는 어른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 같은 영역에서 일하는 선배와 후배,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경험담을 나누다 보면 마음이 놓이고 위로가 된다. 공통 관심사가 결국 네트워크가 되고 협의체가 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시민교육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을 텐데,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유럽 시민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NECE(Networking European Citizenship Education)이다. 국경의 개념이 거의 없이 하나의 화폐를 쓰는 공동체 유럽이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유럽 내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각 나라의 태생으로 비롯된, 시민 의식을 교육하는 시민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라니 매우 흥미롭다. NECE는 독일의 시민교육을 위한 연방기관 BPB(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 만든 것으로 물리적인 형태의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포럼 등 여러 행사를 통해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느슨한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NECE is an initiative for networking citizenship education in Europe. A variety of activities have been developed within its framework to encourage the organisation of contacts, co-operation and synergies in the field of citizenship education. NECE is not an institutionalised network, but a forum that allows the spectrum of stakeholders involved in citizenship education to interact with one another. The initiative's chief goal is to promote the Europeanisa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an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European general public. Through a number of activities, NECE aims to provide transparency about stakeholders and approaches in citizenship education, and to inspire transnational discussions on the topics and challenges facing the field. It brings together academics, practitioners, and policymakers at the European level, and stimulates knowledge transfer and information exchange on good practices – thereby raising awareness of the impact of citizenship education and fostering co-operation and projects. NECE is primarily directed at practitioners in citizenship and cultural education, along with scholars/experts and trainers. In pursuing its aims, the initiative also reaches out to stakeholders and multipliers from the media, politics and NGOs.

NECE Flyer (PDF-Version: 661 KB)  
Follow us at: [LinkedIn Profile](#) @NECE\_Network

- NECE**  
Inhalt:
- ▶ Events & Documentation
  - ▶ Database
  - ▶ Focus Groups
  - ▶ Topics
  - ▶ Citizenship Education in Europe
  - ▶ Glossary of Terms
  - ▶ Co-operation Projects
  - ▶ Newsletter
  - ▶ Publications
  - ▶ Contacts
  - ▶ Editorial Team

[NECE 홈페이지 갈무리](#)

NECE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유럽의 시민교육을 장려하고 '유럽인'이라는 개념을 널리 만들어내는 것에 기여하는 데 있다. 주로 시민교육 관련자들에게 시민교육에 대한 여러 접근법에 대해 여과 없이 알리고 오늘날 시민교육이 겪는 주제와 어려움에 대해 국경을 넘어선 토의를 장려한다. 또한 학계와 현장에 있는 활동가, 정치인들을 한데 모으고 좋은 사례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활동 중 눈에 띄는 것은 매년 열리는 컨퍼런스다. 2014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는데 주제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배우는 시민교육과 갈등조정'이었다. 2014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100년 된 해였다. 컨퍼런스를 통해 시민교육 관련자들은 오늘날 유럽이 겪고 있는 유럽 내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등 유럽 인근 나라들이 겪는 갈등까지도 함께 고민한다. 컨퍼런스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질문들은 ①유럽 내 포퓰리즘에 대한 새로운 논란과 해결방법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②어떠한 시민교육 방법, 도구가 갈등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③권력구조를 분석하고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교육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④제도화된 불확실성이라 할 수 있는 갈등,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룰까? 등이다.

2015년에는 그리스에서 열리며 주제는 '그들과 우리: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이다. 2014년에 이어 유럽 내, 유럽을 둘러싼 여러 갈등관계에 대해 한 단계 심화

A conference organised by



In co-operation with



and the fellowship programme "Shaping Europe – Civic Education in Action" for young Europeans – a co-operation between the bpbb and the Robert Bosch Stiftung.

Supported by:



ERSTE Stiftung

The NECE Conference 2014 and the meeting of the Focus Group "Exchange between Europe and North Africa" are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Institute for Foreign Cultural Relations (ifa) with funds of the German Federal Foreign Office.



Media partner  
**eurozine**

2014년 NECE 컨퍼런스 주최 및 참여단체들. 정부기관, 학계, 단체 등이 어우러져 있다.

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한다. 자칫 외교, 정치문제로 국한되어 보이는 이러한 주제들이 결국은 공동체라는 개념을 넓게 가져가니 하나의 시민교육 주제로 접근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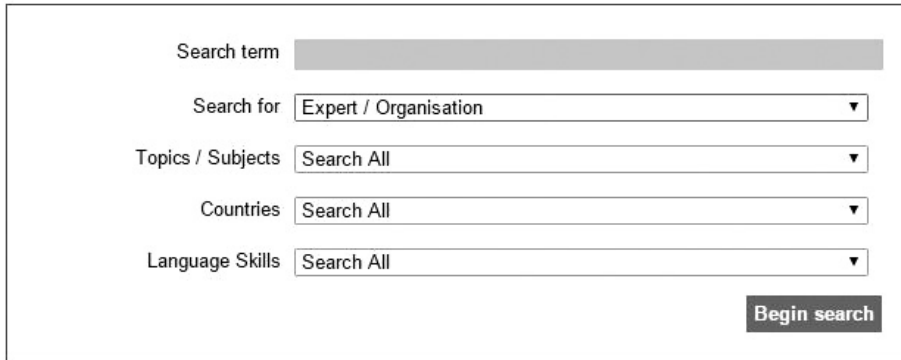
NECE는 컨퍼런스가 열리는 시기에 포커스 그룹이라 불리는 멤버들의 워크숍을 연다. 한 해동안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주제 논의를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유럽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 유럽 내 이민자 문제 등을 다룬다. 워크숍에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학계, 정치인들도 참여한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결국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NECE는 1년에 3번 정도의 뉴스레터를 발행한다. 뉴스레터에는 유럽 내 시민교육에 관한 활동가, 관련자, 조직들,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며,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는 주요한 사건에 대한 논란, 보고서, 발행물 등에 관한 소식을 제공한다.

다양한 소식 공유 이외에도 NECE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다. 예를 들어 시민교육 분야의 전문가나 조직을 찾고 있다면 NECE 홈페이지 리스트 중에 쉽게 찾을 수 있다. 주제, 나라, 조직의 종류 혹은 전문가, 언어능력 등으로 데이터가 정리돼 있다. 인덱스에 따라 나온 리스트는 이메일, 개인 홈페이지, 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연락처까지 담고 있다.

## Database

The NECE database is designed to support the networking of organizations and experts in European citizenship education.

Since the last NECE conference 2012 in Córdoba the database is also open for organisations and experts from North Africa. Subjects covered in the NECE Database include education, politics, culture, media and society. We intend to support searching for cooperation partners and exchange and to provide transparency about stakeholders of citizenship education.



시민교육 전문가, 조직들을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출처 : <http://www.bpb.de/veranstaltungen/netzwerke/nece/66798/database>)

NECE가 다루는 주제, 활동들을 보니 시민교육이 다루는 범위는 결국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크기라는 생각이 든다. 국경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유럽을 보고 공동체를 둘러싼 여러 이슈를 시민교육으로 풀어내려는 이들의 접근이 부럽다. 여러 나라 사이에 둘러 쌓여있는 듯 하나 실제로는 섬과 같이 고립된 우리나라가 국경을 넘어서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해야 할 일이 많아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곧 아시아 시민교육 네트워크 등을 리드할 단체가 나오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글 황명화

<참고 자료>

• <http://www.bpb.de/veranstaltungen/netzwerke/nece>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다

마을, 사람과 만나다

손으로 짓는 마을

살래청년식당 '마지'

매탄고등학교 동아리 '골목대장'

## 마을, 사람과 만나다

사람이 태어나 경험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비자발적 공동체, 마을. 로컬, 동네, 지역 등 여러 표현으로 불리는 이 마을 안에는 삶의 다양한 단상이 존재한다. 이곳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시대마다 다르고 변하지만 시대를 초월해 공존하는 것은 '사람 사는 이야기와 그것의 관계성'이다.

과거 마을의 형태는 주거 공간이 가깝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마을은 '이웃'이라는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공간이었다. 단순히 엘리베이터에서 아침저녁 나누는 인사로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삶을 공유하는 공통된 경험이 있을 때 생성된 관계망이었다. 예컨대 과거의 마을은 아이가 태어나는 생(生)과 노인이 죽는 사(死)의 순간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이가 성장하며 자라는 모습을 마을 전체가 알고, 대학이라도 합격하면 마을 어귀 어김없이 축하 현수막이 붙고, 결혼은 동네 잔치가 되었다. 공유하는 것은 삶뿐이 아니다. 옆집의 노동력은 훌륭한 자산이다. 고단하고 지난한 농경 생활에 좋은 벗이 되어주는 이웃은 훌륭한 조력자이기도 했다. 청년실업은 없었다. 남녀노소 모두 자기 일을 가졌고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

이런 마을의 형태가 퇴색되고 있는 요즘, 다시금 마을공동체가 미래의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구시대적인 것만 같던 '마을'이라는 단어가 미래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유기적으

로 얽혀있는 마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 21세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

마을에 대한 관심과 출발은 도시화로 인한 여러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다. 마을 중심이었던 소규모 공동체들은 '도시'라는 이름으로 확산, 변모되었다. 도시 속의 '개인'은 도시가 주는 익명성과 혜택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한 명의 대중으로 지냈다. 그러나 도시는 점차 쇠퇴하고 도시 안에서 혼자 힘으로 버둥거리던 많은 개인들은 '함께하며 기대고 사는 삶'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많은 곳에서 이미 새롭고 이상적인 지역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1960년대 도시 쇠퇴 현상을 겪으면서 쇠락하는 산업도시에 대한 우려로 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영국은 지난 수십 년(1961~1994년) 동안 도시 인구의 감소(런던 25%, 맨체스터 34%, 리버풀 36% 감소)를 경험했고 이에 따른 도시 쇠퇴현상으로 고실업, 범죄, 소외와 같은 도시문제를 발생시켰다. 도시에 대한 연구는 점차 지역에 대한 연구로 발전되었다.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형성해 나가며 지역만이 가진 특수성을 찾아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 활성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강화되면 지역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주민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도시의 문화적 재생을 목적으로 도시 정체성 연구가 시작되었고, 아시아의 일부 관광명소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통적 의례를 중심으로 정체성 연구에 집중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행정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지역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 정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정정숙,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도시와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동의한 수많은 자치구들이 지역 살리기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 지역과 도시를 대표하는 최소 단위의 '마을'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마을은 내 집에서 15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의 단위라고 누군가 말한 것처럼, 마을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마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힘이 지역 기반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개인의 삶의 질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는 '마을공동체' 확산을 이끌었다.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이 2013년 출판한 『마을의 귀환』에서는 마을공동체를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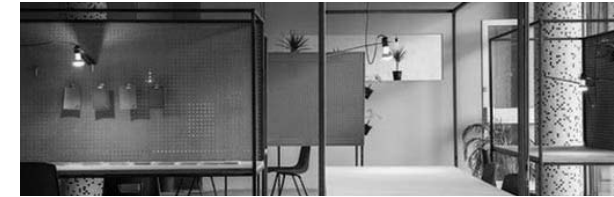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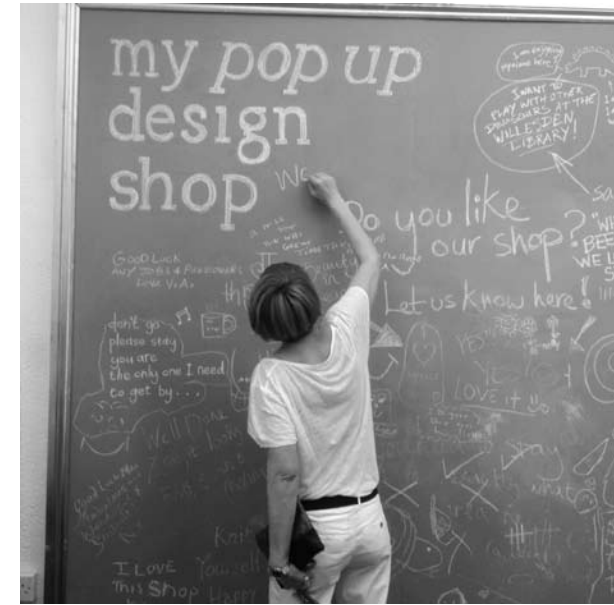
주거 중심의 공동체, 상업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공동체 그리고 다양한 문화 예술 사업을 하는 공동체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목표로 하는 마을, 도시농업을 통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마을도 소개하고 있다. 이런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서울뿐 아니라 국내의 많은 지역에서 지역과 마을의 특성을 살려 '재생' 혹은 '개발'하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마을공동체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형식에 의존해 시작했다가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호지부지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관·공 거버넌스의 지원이나 중계가 진행되다가 지원이 끊기면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수다. 혹은 커뮤니티 베이스의 관계 중심으로 시작해 의리와 관계 때문에 어그러진 공동체들도 많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안착하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마을공동체들의 미래는 어떻게 찾아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조금의 답을 우리는 다음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민와일 프로젝트

영국 북부의 사우스 킬번과 웹블리 지역은 악명 높은 범죄 지역이었다. 이주민이나 단기 체류자들이 잠시 머물던 지역으로 인구 이동율도 높은 지역 중에 하나였다. 이런 지역이 짧은 시간 안에 지역 재생의 대표 주자로 설 수 있었던 것에는 민와일 프로젝트(Meanwhile Project)의 도움이 크다. 이 프로젝트는 문자 그대로 '잠시 동안(Meanwhile)'의 프로젝트이다. 주요 활동은 비어있는 '공간의 활용(Meanwhile Use)'. 비어있는 상점이나 관공기관의 공간들을 지역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잠시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영국은 비어 있는 공간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건물이 빈 공간으로 있을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빈 공간을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마을기업인 <민와일 스페이스(Meanwhile Space)>가 건물주가 기부한 건물의 공간을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젊은이들에게 내어 주었던 것이다.

프로젝트의 주요 테마는 '공간'이었고 실제 그 의미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공간을 시민학교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했고, 그 안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인적인 성장도 도울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공간의 활용'을 통해 제공된 공간은 예술 활동, 전시, 리사이클링, 취약계층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소셜 키친 등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실행되는 곳이 되었다. 공간



민와일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 중인 공간  
(출처 : <http://locality.org.uk/projects/project/>)

이 주는 의미는 생각보다 컸고 효과 역시 기대 이상이었다. 아이디어 실행을 통해 참여자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머물러 가는 도시에 불과했던 이곳은 생기를 찾았고 젊은이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젊은이들의 자립을 돕는 것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공간을 통해 관할 구청(Brent Council)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의견이 반영되어 지역을 새롭게 세웠다. 구청과 시민, 사회적 기업과 프로젝트를 위해 세워진 자선단체 등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공간'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민와일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마을공동체에 젊은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국내의 많은 마을공동체 활동들은 마을을 이탈할 기회가 적고 공동체를 통한 육아의 도움이 확실한 주부나 어른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향후 마을공동체를

실현시키고 정착된 터전 위에서 더욱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젊은층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가 주도해 만든 마을공동체는 그 주체만큼이나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 로컬푸드

마을공동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키는 '로컬푸드'이다. 먹거리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주거 공간으로 이웃이 된 마을공동체를 또 다른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식(食)'이다. 최근 미국 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로커보어(locavore, 자신이 사는 주변 지역에서 난 먹거리를 섭취하고자 애쓰는 신조어로 Local와 vore의 합성어)의 등장이 흥미롭다. 이들을 잡기 위해 미국의 유통업체인 홀푸드(Whole Foods Market)는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유통업체인 테스코 역시 지역 내 소규모 채소 재배 농가와 연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에 맞춰 수백 가지 새로운 식품을 매장에서 판매한다. 대형 유통 브랜드들이 이렇게 앞 다투어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아도 로컬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2009년 뉴질랜드에서 소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시작한 <Ooooby(Out of our own



농산물 직거래를 표현한 이미지(위)와 실제 직거래 현장 모습(아래)  
(출처 : <http://www.ooooby.org>)

Garden)) 역시 그 관심을 반증한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미국, 영국, 호주 등으로 확산된 이 사이트는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고 동시에 양쪽을 재교육시킨다. 처음 Ooooby를 창설한 러셀은 한 개의 브로컬리를 식탁에 올리기 위해 우리는 수백 킬로를 이동하기 위한 기름값과 유통 과정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소비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지불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은 지역 생산자와 닿아있는 마켓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Ooooby는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유기농 야채를 일주일 단위로 배달해준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양심적인 생산자를 찾아 판매를 통한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흡족할 만한 수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재교육 시킨다. 집에서 채소 재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생산자를 연결해주어 노하우를 전수해주시기도 한다.

물론 국내에서도 다수의 생활협동조합들이 양질의 생산지를 선별해 상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구의 생활협동조합은 엄밀한 의미에서 로컬푸드는 아니다. Ooooby는 그런 맥락에서 근거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시너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형 과제의 하나로 로컬푸드를 주장 하는 이유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관계성 때문이다. 내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 이웃이기에 제공할 수 있는 관계성. 경제적 이익이 궁극의 목적이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웃이기에 가능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 용인마을협동조합

국내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조합을 찾을 수 있다. <용인마을협동조합>은 기존의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에서 조금은 진보한 형태이다. 용인 내 로컬푸드 확산을 추구하고 있는 이 조합은 용인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다. 용인은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농토와 산지가 있으며 수도권의 위성 도시 역할을 하는 도시가 공존하고 있다. 즉, 생산과 소비가 많은 단계의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 생활권에서 존재한다. 이런 지역의 특수성을 발판으로 용인은 이런 한국형 Ooooby를 실현하고 있다. 용인마을협동조합은 학교 급식 재료가 용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급된 후 발생한 손실과 피해에 기인해 출범했다. 현재는 용인 지역에서 생산된 양질의 농산품과 각종 식자재를 가정집에 배달하고 있으며 추후 공공급식(관청, 군부대), 시설급식(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 학교급식, 기업급식, 그리고 지역의 노숙인과 결식아동 등을 위한 무상급식까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로컬푸드 운동은 단순히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고 유통 경로를 단

순화 시키자는 운동이 아니라고 말한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너지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역간의 사회적 거리를 없애고 지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지역 순환 경제를 통해 마을에서 시장 경제가 파괴한 다양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의 현안과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이들은 청소년 농부학교를 열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흙과 땀을 공부하게 한다. 최근에는 로컬푸드 식당 '마을밥상 동백'을 오픈했다. 120명의 조합원이 출자금을 내고 취지에 마음을 보탠 생산자와 조합원이 차입금을 냈다. 마음 편히 집밥처럼 식당밥을 먹게 하자는 취지의 이 식당은 모든 식자재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며 판매 역시 지역 조합원이 한다.

### 자발적 협력을 꿈꾸며

“미래 세계의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뤄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에 나오는 구절이다. 마을에서 평화와 협력의 궁극점을 찾았던 간디. 그 독립된 작은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유익을 이미 꿰뚫었던 그에게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발견한다. 바로 ‘자발적 협력’이다.

‘자발적 협력’ 관계는 결국 우리가 아이에게 물려줄 이 마을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나의 자발적 협력으로 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은 마을을 바꿀 충분한 힘이 된다. 우리 모두가 마을에서 소통하고 웃고 나누고 관계하며 보다 행복한 일상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글 김수향

#### <참고 자료>

- <http://locality.org.uk/projects/project>
- <http://www.ooooby.org>

## 손으로 짓는 마을

영국의 방송국 채널 4에 <Kirstie's handmade Britain>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유명한 커스티(Kirstie Allsopp)가 영국 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핸드메이드 대회에 출전해 참여자들과 경쟁하는 여정을 그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국 방방곳곳에 흩어진 핸드메이드 대가들에게 노하우와 팁을 전수받는 것이다. 분야는 종이공예, 베이킹, 꽃꽂이, 바느질, 자수 등 다양하다. 이 프로그램에서 인상적인 것은 인정받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장인들에게 혼도 나며 어설피지만 진지하게 배워가는 과정이다. 동시에 프로그램 안에서 주는 정보와 재미들이 인포테인먼트(정보inform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정보와 전달에 오락성을 가한 미디어를 가리키는 용어) 역할을 톡톡히 해 흥미롭다.



마을의 숨은 고수에게 배우는 모습(좌)과 실제 대회에서 수상한 커스티(우)  
(출처: <http://www.channel4.com/programmes/kirsties-handmade-britain/episode-guide>)

그러나 필자가 이 프로그램에서 주목한 이유는 좀 다르다. 바로 그녀가 찾아가는 고수들. 그들의 상당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나 중년 여성이다. 그들은 핸드메이드 작품을 만드는 비전문가들이다. 상업적인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취미가 어찌다 보니 삶의 여러 녹록치 못한 환경들을 이겨낸 힘이 되었다. 이들은 혼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삼삼오오 모여 무언가를 하고 있다. 마을 내 부녀들이 모여 취미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개인적인 취미로 함께 시간을 나누다가 이들은 장인이 되었다.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 어떤 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정도이다.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대회 참여에 목적을 두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지역 여성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함께 모여 수다로 보내는 시간들을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영국에서 사랑받고 그 수준도 장인급으로 끌어올려지기까지는 <the Woman's Institute(이하 WI)>의 공이 크다. 실제로 커스티가 참여했던 경연대회 중에 하나는 영국에서도 수상이 어렵기로 소문난 WI가 주최하는 'the New Forest and Hampshire County Show'였다. WI는 지역 단위의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전수받기도 한다. 워낙에 오래된 것을 잘 버리지 않고 좋아하는 영국 사람들은 특히 손으로 만든 작품에 대한 애정이 깊다. 영국 여인들의 수공업의 명맥을 잇게 해준 WI는 요즘 젊은 분위기의 시도들을 더하면서 계속해서 영국 내 여성 커뮤니티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1987년 캐나다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WI는 여성 커뮤니티가 기초가 된 조직



(출처: 구글 이미지)

이다. 초창기에는 캐나다 전쟁 시절 여성들이 대량의 음식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베이킹이나 요리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육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여성'과 '로컬 커뮤니티'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영국을 위시해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영국에서는 주로 지역 단위의 커뮤니티 베이스로, 초창기에는 낙후된 시골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가 점차 여성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전해갔다. 더 나아가 여성과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와 관련된 이슈들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젊은 층의 진입으로 와인 테이스팅, 패션 스타일링, 건강한 음식 조리법 등을 공유하는 등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 Hands, heart and mind

미국 로체스터 남쪽엔 <East Hill Farm>이란 곳이 있다. 말 그대로 농장이다. 이 공동체에서는 사십 년 넘게 유기농업을 하고 있으며 포도 농장과 양고기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이 공동체의 특징은 유기농이나 농업이 아니다. 설립자인 루이스 마치(Mrs. Louice March)는 작업은 한 개인이 평범한 삶으로부터 느끼는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더불어 내적 발전을 하게 해준다고 믿었다. 작업이 협동으로 이루어질 때 더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준다고 생각한 이들은 민속공예조합(Folk art Guild)를 만들고 함께 도자기, 보트, 의상 디자인, 목재 가구, 건축 등을 만드는 '공예작업'을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로 자급자족하기 시작했다. 구성원들은 한 번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 그러나 그들의 실력은 매 해 봄 로체스터 민



East Hill  
Gallery  
IN THE  
FINGER LAKES

May 22nd - October 12  
Friday, Sunday, Monday 1 - 5  
Saturday 11 - 5 and  
by appointment

(출처: <http://www.folkartguild.org>)

속공예 길드(Rochester Folk Art Guild)주최의 봄 민속공예 축제(Spring Festival of Crafts)를 열 정도로 출중하다.

이들은 수공예 작품을 만들고 배우는 과정을 작업이 아닌 '기회'로서 의미를 부여한다. 수련생에게 있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계발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공예 작품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익명으로 판매한다. 마을에 사는 어떤 이는 "자기가 만든 도자기라고 해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을 수 있겠는가? 다행스럽게 조합이 형성된 조건들 가운데서 일하다 보니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된 것뿐"이라며 작품을 물질주의와 분리시키려 노력한다.

설립자인 루이스 마치가 서거한 1987년 이후에도 이 조합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고 많은 곳에서 이곳을 공부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단순히 와서 관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예와 농업 그리고 공동체 삶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인상 깊어 하는 또 다른 점은 수공예 작품과 레슨 이외에도 그들이 작품을 만들 때의 자세와 정신이다. 도자기 스튜디오의 한 아티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도 작품들을 만들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준 패턴들과 박자들을 도자기에 새기며 매번 감탄한다. 이것을 가져가 음식을 담아 먹고, 하루 한 잔 차를 마시거나 꽃을 꺾으면서 내가 느꼈던 그 자연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경이감을 일상에서 똑같이 느끼면 좋겠다."

이들에게 작품을 만드는 것, 옷감을 짓고 옷을 만드는 일, 나무를 깎는 일들은 그들의 삶을 영위해줄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비록 손으로 짓고 땀을 닦아내야 할 수고가 필요한 노동이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누렸던 안식과 인생의 목표들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기계가 만들어낼 수 있고 빠르게 찍어낼 수 있는 공산품을 대처하는 '손'으로 수고하는 삶을 택한 그들. 어떻게 보면 다시 예전으로 역행하는 듯 보이는 이들의 삶에서 그들이 찾는 행복은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를 무엇일까? 혼자일 때보다 함께하는 노동의 시간을 기꺼이 감내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조합원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사물을 보는 눈을 기르고, 우리의 에고와의 싸움을 벌여 나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공예를 사용한다."

손으로 만드는 시간을 자신과의 싸움으로 승화시키면서 함께 모여 사는 이들. 그 정신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작품은 그들의 생계를 이어주기도 했다. 마을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 젊은 예술가의 도시 라이프치히

최근 독일 작센 주의 중소 도시 라이프치히(Leipzig)는 뉴베를린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새로운 문화 거주지임과 동시에 유럽의 관광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그곳에는 플락비츠(Plagwitz)라는 작은 구역이 있다. 독일 통일 이후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급격히 쇠퇴하며 방치된 산업단지이다. 애물단지였던 이곳이 라이프치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저렴한 월세와 공간임대료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도시로 거듭났기 때문. 버려진 공장들을 갤러리로 활용하고 젊은 학생과 예술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이사를 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바흐와 와그너가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던 작은 마을, 그러나 산업화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어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죽은 것만 같았던 도시. 새로운 인구와 재능이 들어오면서 버려진 곳이나 진배없었던 이 지역은 젊은 예술가들과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만들어 낸 도시 분위기와 문화를 즐기러 온 젊은이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뉴욕타임즈 (2014.09))

싼 임대료로 젊은 예술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대학생들도 진학을 위해 몰려들었다. 그들이 만드는 예술작품, 문화, 도시의 분위기는 이 도시의 상징처럼 되었고 유럽 내에서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가 되었다. 특히 125년 전에는 거대한 방직 공장이었다가 지금은 멋진 종합 예술 공장이 된 슈피라이너는 도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젊은 아티스트들은 이곳에서 저렴하게 기거하기도 하고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한다. 전시하는 공간 옆에는 작업 스튜디오가 있어서 작품을 보러 온 사람은



독일 라이프치히의 저녁 풍경(출처: 뉴욕타임즈)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원하는 작품을 바로 살 수도 있다. 영화관, 도서관, 공연장, 카페까지 적당한 상업공간도 함께 어우러져 있다. 작품 생산과 유통 주거 공간 그리고 예술가의 삶까지 상품으로 유통되는 하나의 멋진 공간인 것이다.

## 마을이 만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새로운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사례들은 여러 형태의 로컬, 마을, 지역 단위의 공간 구성과 새로운 형태의 생산과 소비를 보여준다.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공장화로 인해 산업화 시대가 도래된 뒤 잃게 된 손으로 만드는 정신들을 찾기 시작한 마을들. 이들은 다시 가내수공업이나 핸드메이드 예술, 공예 등의 시도로 돌아갔다. 그러나 단순히 손으로 만드는 마을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와 생산이 일치되는 신경제의 양상은 경제적 자발성을 키움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영국은 여성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생산적인 삶의 질을 올리는 예를 보여줬고, 미국과 독일의 사례는 지역과 마을의 생성에 '돈(경제성)'이 아닌 새로운 가치들이 가능하다는 점도 잘 보여준다. 손으로 만든 handmade, 손으로 짓는 handcraft. 마을은 사람을 모이게도 하고 그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마을로 발전하거나 혹은 관광 재생도시가 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생산과 소비가 계속 분리되는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창작자들, 활동가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마을에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새로운 분위기의 마을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마을은 재생력을 갖기 시작한다. 일반 시민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공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생활 목공이나 핸드메이드 인테리어를 가르친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도들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화적 그늘에 가리우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런 시도들이 반가운 것은 생산과 소비



백현 플라마켓(출처 :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Post/430>)

의 일치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대안적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시장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삶을 '향유'하고 '누리는 삶'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

## 판교 백현마을 플라마켓

플로잉 마켓(Flowing Market)은 작년부터 시작된 플라마켓으로 수익금의 20%를 미혼모들을 위해 후원하고 있고 싱글맘들과 함께 하는 수공예 교육 프로그램인 'S-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플로잉 마켓을 주관하는 <렛 잇 플로우(Let it flow)>는 미혼모를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던 중 그들이 육아를 병행하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공예는 분야도 다양하며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미혼모들에게는 집이 작업장이 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 미혼모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마련에 고심하던 중 이 플라마켓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작년부터 판교 백현마을에서 시작한 플라마켓은 다양한 수공예 작품들이 나와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더불어 플라마켓에 참여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싱글맘들을 돕는 일에 후원을 하고 있는 셈.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어도 기회나 방법을 알지 못했던 지역민들의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시사상식사전』(박문각)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용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도심 지역의 노후한 주택 등으로 이사 가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신사 계급을 뜻하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말로 본래는 낙후 지역에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현상을 뜻했지만, 최근에는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선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에 독특한 분위기의 갤러리나 공방, 소규모 카페 등의 공간이 생기면서 시작된다. 이후 이들 상점이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대규모 프랜차이즈점들도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치솟게 된다. 그 결과 소규모 가게와 주민들이 치솟는 집값이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동네를 떠나게 되고, 동네는 대규모 상업지구로 변화된다. 예컨대 2000년대 이후 서울의 경우 종로구 서촌을 비롯해 홍익대 인근, 망원동, 상수동, 경리단길,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을은 시대를 따라 그 모습과 얼굴을 바꾸어 간다.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들고 나는 중에 한결 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존재, 마을. 마을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이 있고 없음은 마을이 노후 혹은 낙후되지 않고 계속해서 시대와 흐름에 맞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을 사례의 공통점은 시대에 맞는 옷을 입되 정체성은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새록새록 생겨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을을 더욱 풍성하고 밀도 있게 채운다. 우리가 단순히 주소지를 두고 사는 공간으로서가 아닌 마을은 구성원들이 마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마을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타자가 아닌 결국 '나 자신'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글 김수향

〈참고 자료〉

- 『시사상식사전』(박문각)
- 뉴욕타임즈(2014. 09.) 'New Berlin' or not, Leipzig Has New Life, by Katie Engelhart
- <https://www.youtube.com/watch?v=4GTPMQ6pu0>

## 살래청춘식당 '마지'

깊은 곳을 향해 가는 청춘

### 실상사 그리고 귀농귀촌 2세대의 궁극한 행로

밝고 희망찬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찾아간 곳은 지리산 뱀사골과 반야봉 그리고 실상사를 품고 있는 전북 남원의 산내면. 2000년 1,900명 정도에서 지금은 2,200여 명으로 인구가 증가한 산내면. 인구 감소가 뚜렷한 시대에 도회지도 아닌 시골, 그것도 산지라서 농사짓기도 쉽지 않은 산골 자락 마을에 인구 유입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면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엔 실상사가 있습니다. IMF 직후인 1998년, 당시 주지였던 도법스님은 사찰 소유의 땅 3만 평 가량을 경작지로 제공하면서 귀농학교를 만들었고 봄가을에 3개월의 공동생활을 통해 배우고 익힌 졸업생 1천여 명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상사는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2001년에 대안학교인 '작은학교'를 열었는데 자녀의 학업을 위해 부모가 내려오는 일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저런 경로로 산내면은 귀농귀촌 인구가 4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제 산내면 귀농귀촌 2세대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는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극적으로 삶의 조건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삶과 가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2세대가 스스

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과연 산내면 청년들의 삶의 행로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 댐과 수몰 그리고 사라지는 마을들

우리 사회는 지난 98년부터 수년 동안 동강댐 건설을 둘러싸고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지역에 따라 마을이 수몰되기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마을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댐이나 인공적 방식이 아닌, 자연스럽게 마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충남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 도내 자연마을 351개 정도가 2040년까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다를리가요. 쓸쓸한 노년만 남은 마을이 유지될 터이 없으니까요. 결국 대도시를 제외한 한국의 국토는 어찌면 마을들의 공동묘지로 변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귀동냥으로 얼핏 듣기로는 이미 일본에서는 ‘마을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이며 한편 마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없앨 것인지’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불임의 마을’에 생명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청년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떠난 마을은 시한부 인생과 다름없습니다. 단지 마을의 대를 잇는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마을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절대적 존재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해서 마을이 나서서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마을은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처럼 지방정부가 나서서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도 중앙정부가 으뜸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니 결국 청년들은 한 겨울 맨손으로 나서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귀농귀촌 2세대 그리고 산내면이라는 2개의 키워드를 관통하는 단어 청년. 그리고 ‘작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인 산내 청년들. 함께 모여 외로움을 달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았으나 언제까지 이슬과 공기만 마시고 살 수는 없는 법. 시골살이처럼 느리긴 해도 그들의 고민은 내적 욕구로 이어졌고 어느 순간 외부의 자극을 받아 드디어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시골에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일과 삶의 비전을 찾아 도시로 떠나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 기회들을 만들어 가고 싶”은 마음과 “실제 이 시골 마을에서 자립하면서 살아가”려는 의지로 2015년 산내

면에 17평의 작은 커뮤니티 식당을 만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마을에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당찬 꿈도 가지고 있고요. 식당 이름은 ‘살래청춘식당 마지’입니다. 모든 이를 환대하며 맞이하겠다는 것과 청년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의미가 담긴 ‘마지’.



산내면 천왕봉로 721에 위치한 살래청춘식당 마지

처음에는 6명이 작당했으나 현재 ‘마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5인. 저희가 찾아간 날 휴일조인 ‘쏘야’와 ‘벼리’씨를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 보았습니다.

**정성원** 다섯 분의 출신지가 궁금하네요.

**벼리** 산내가 고향인 사람은 없습니다. 구성원 중 두 명은 남매인데, 서울이 고향이고요. 여자 구성원이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에서 중, 고등 과정을 밟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도 내려와 산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요. 다른 한 명도 남동생이 실상사 작은학교에 입학하며 스무 살에 부모님과 함께 내려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가 작은학교 2기 출신이에요. 언니가 졸업하는 해에 부모님이 귀농하셨고, 지역에서 산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열한 살에 내려와서 지금 스물한 살이에요. 부모님을 따라서 귀농한 사람들 중에는 기간이 가장 긴 편입니다.

**쏘야** 다른 친구들의 경우에는 부모님 혹은 한 분과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인드라망대학을 통해 산내를 처음 접하게 되었어요. 작년부터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성원** 그렇다면 귀농가정의 자제분은 혼자인 건가요? 대안학교를 통해 내려오게 된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벼리** 이내라는 친구는 남동생 때문에 부모님이 산내에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어머니께서는 고사리 농사를 작게 하고 계십니다. 마지의 나물덮밥에 납품해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귀농자들 중에서 농사 규모가 큰 집은 많지 않고, 저희 집이 유일한 편입니다. 산내가 땅값이 꽤 비싼 편이어서요.

**정성원** 마지에 관련해 사전에 정보를 좀 찾아보았는데, 처음에는 외롭게 지내는 것이 나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으로 친구들을 찾아 모였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이들은 외롭거나 힘들 때는 좌절하거나 혼자 고립에 빠져있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는데, 친구를 찾아 나섰다는 점이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찾아 나서게 했던 힘은 무엇이고, 왜 찾아 나서게 되었는지요?

**벼리** 외로운 상황에서 친구를 찾아 나섰다는 바탕에는, 그들이 전혀 낯선 이는 아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 유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친구도 있고, 길 가다가 마주쳐 인사한 정도로 아는 친구도 있고 그 차이는 있지만, 어디에는 누가 산다더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꼈을 때, 본래 가지고 있던 관계를 바탕으로 드문드문 존재하던 관계들을 모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야** 개개인의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교육이나 혹은 비슷한 영향 하에 있던 친구들은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내 이곳저곳에 드문드문 있는 친구들과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교육과 경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성원** 대안교육에서 배운 가치와 그 속에서의 경험 등이 친구를 찾아 나서게 하는 힘인 것이라는 의견인가요?

**소야** 사실 떠날까 말까 하는 경계에 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곳이 좋긴 하지만 과연 계속 지낼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지점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씩 모이다보니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고요.

**정성원** 젊은 사람들은 도시의 화려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변화가 없고 심심한 이곳에 머무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벼리** 저는 중고등학교 모두 홈스쿨링을 했는데, 열아홉 살에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기 위해 부산에 나가서 자취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한 살 이후로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역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상주의 친구와 10개월 정도를 함께 부산에서 살게 된 거죠.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나가면 편의점이 있고, 심야영화를 보고 걸어 들어오는 게 가능하고, 밥솥이 고장 났는데 지하철로 한 정거장에 수리센터가 있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산내와 같은 시골에서 살면 하다못해 잡화점이나 드럭스토어의 물건들도 배송비에 맞춰 구매해야 하고, 아니면 많은 버스비를 내며 멀리 나가서 구입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처음 몇 개월은 부모님에게서 떨어진 것과 도시에서 주는 편리함에 젖어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삭막함과 외로움, 그리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아이 둘이 살고 있는 원룸이었고, 근처에는 유흥가가 있었는데 밤에 큰 소리가 나거나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면 불안하더라고요. 당장 같은 층에 있는 네 가구의 사람들조차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산내에서는 옷을 새로 사거나 화장을 바꾸었을 때 모두가 알아보는 관심이 귀찮을 정도였는데, 도시에서는 길 가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외로웠어요.

부산에 있는 동물병원에 면접을 보고 합격까지 한 상황이었었는데, 산내에서 함께 활동을 해보자고 하는 친구들의 제안에 고민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장단점이 있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죠. 두 가지를 저울질하다가 결국 산내에 마음이 조금 더 기울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귀농을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었어요. 보통 농사를 지으시는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농사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 하고, 너는 공부를 해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밭에서 나는 아

주 다양한 농작물들을 키웠는데, 제가 일을 굉장히 하기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며 자급자족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던 거죠. 홈스쿨링을 하면서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도 모두 제가 지도록 하셨어요. 고등학교 홈스쿨링을 할 때에는 돈도 제가 직접 벌어서 생활했고요. 특히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본인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식당을 하면서 이런 점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일종의 믿음 같은 거죠.

**정성원** 다른 친구들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다들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산내에 남아있는 건가요? 개인적인 욕망이야 물론 다르겠지만, 도시로 나가지 않고 굳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벼리** 다들 기본적으로 도시 생활에 대한 경험은 있어요. 도시에서 자라거나 성장한 후에 산내를 경험하게 됐죠. 사실 산내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고, 이곳의 분위기가 좋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없었다면 지금 산내에 살고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서로를 외롭지 않게 해주고, 또 작당을 함께 펼칠 수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던 친구도 함께 하게 되고,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어 무슨 일을 할지 막막해 했던 친구도 함께 하게 되었고요. 사실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이 공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성원** 그럼 공간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처음 만들 때,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없어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벼리** 실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모든 과정에서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셜펀딩을 통해 지역의 후원을 받으며 그들을 대하는 것도, 식당의 배치나 메뉴 개발, 임대차계약 등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하는 어려움, 막연함 같은 것도 있었고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처음 이 일을 제안해주신 삼촌 같은 분도 그렇고, 마을의 어른들도 지역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활동이기에 많

은 도움을 주셨고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청년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해주라는 말을 하며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며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다 주시며 심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죠. 사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식당이라는 것이 규모가 큰 사업이더라고요.

**정성원** 마을 사람들의 물질적인 후원, 정신적인 격려가 어려운 과정을 결국 버티게 한 힘인 거네요.

**벼리**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을에서의 지지가 없었다면 과연 이 공간을 열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오픈하고 난 이후 마을에서 계속 와주고 주세요. 외지에서 손님 오면 우리 마을에 이런 청년들이 있다며 자랑스럽게 추천도 해주시고요. 겨울이라 장사가 좀 움츠러든 상황에서는 일부러 들려주시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쏘야** 요새는 좀 눈에 보여요. 사실 오픈 초기에는 너무 바빠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온다는 생각만 했는데, 겨울이 되고 손님도 조금 줄어들고 하니 신경 써서 찾아와주시는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성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벼리** 이렇게 받은 것들은, 결국 저희가 잘 하고 마을과 잘 소통하면서 갚아야 되는 빛인 것 같아요.

**정성원** 다들 이 공간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것 같은데, 마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쏘야**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산내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힘들어요. 저는 머리로는 다른 삶에 대한 가치 지향이 있었지만, 실제로 몸을 많이 움직이며 사는 삶, 시골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것은, 마지를 기반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느껴지는 든든함, 아지트가 생긴 것 같은 기분 때문

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회고를 하며, 마지가 없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흩어져 있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올 겨울 굉장히 막막한 상태였어요. 이 곳에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우연히 찾아온 관계와 상황 속에서 마지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된 거죠. 일을 해보며 느끼는 것들,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경험들, 마지는 식당보다는 학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삶에 꼭 필요한, 함께 울고 웃는 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인 셈이죠.



**정성원** 아이디어가 실제로 물화 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법인데 이 어려움에 는 서로간의 다툼도 포함될 것이고요. 어떤 이견이나 대립점이 있었습니까?

**쏘야** 마지에 대한 첫 제안은 바깥에서 왔어요. 공간에 대한 욕구, 공동 작업을 통한 일자리에 대한 내부의 욕구와 잘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나의 일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각자가 생각하는 점들이 많이 달라서 서로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일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대화, 설전 등이 있었습니다.

초기 여섯 명이 두 명씩 인테리어, 메뉴 개발, 커뮤니티 세 팀으로 나누어져 중심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각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자신의 불편함을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과 본인이 혼자 생각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두 사람의 성향 차이가 갈등을 만들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정성원** 마지를 오픈한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시작이나 마찬가지로. 식당 운영 측면은 어떤가요? 예상대로 가고 있나요?

**벼리**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회계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면, 얼마를 벌어야 원만히 운영이 가능하든가 하는 것을 다들 잘 몰랐죠. 메뉴를 어떤 것을 할지, 원자재 값과 이윤을 몇 퍼센트로 맞추어야 하는지 정도만 생각해서 단가를 정했고요. 예상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어떻게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여름에는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었고, 인건비도 최저 시급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겨울이 되어 조금 움츠러들긴 했어요. 봄에서 가을까지는 꽃놀이나 물놀이, 가을 단풍 등 때문에 어느 정도 외부 관광객이 있지만 겨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불특정다수가 고객이 아니라 한정된 손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다시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도시에 서처럼 마케팅이나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사실 식당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다른 작당을 해볼 수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반과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활동과 관련된 CMS를 시작했어요. 최저 시급도 되지 않는 인건비가 안전망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 장사만이 아니라 새로운 활동, 마을의 큰 행사 등에서 청년들의 몫을 조금 더 원할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과 별개로 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쏘야** 초반에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 계속 일하고, 다양한 메뉴 개발에도 힘을 쏟고,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그러다보니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만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에요.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은 적어도 인간다운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자유'라는 산내의 청년모임 단체를 임의 단체로 만들고 정기후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우리의 삶, 확장해서 보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 사람들의 삶이 비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성원** 사실 식당 일이라는 것이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잖아요. 안 해 본 일이면 더 힘들기도 하고, 식당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전망이 확 밝아지는 것도 아닐 테고. 꿈을 가지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노동의 일상 속에서 고민도 있을법한데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벼리** 실은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메뉴 개발, 서류 정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식자재 구입 등 많은 것들. 처음에는 가치를 보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이 너무 힘들어지면 회의감이 오기도 해요. 각자가 너무 힘들다보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기 힘들 때도 있고요. 그래도 자기 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사장님을 찾는 손님이 계시면, 우리 모두가 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내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메뉴 개발이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척 많고 끝이 없는 부분인데, 만약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애써가며 일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치라는 것이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도 하다 보면 희미해지곤 해요. 일 깨워줄 필요가 있죠. 내가 왜 열두 시간씩 서서 이 노동을 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올 때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보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각자 생각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가장 크지만, 몸으로 하는 일이 낯선 친구들은 그 부분에서 회의감이 오기도 하고요.

**쏘아** 식당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모두가 다 식당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골 지역에도 농사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자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농사만 남은 것 같거든요. 다양한 색깔을 가져와야한다고 생각해요. 각자 가진 개성과 취향을 조금 더 살려서, 다채롭게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각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을 때, 못하는 점은 보완을 해주고 잘하는 점은 더 잘 살릴 수 있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멤버 중의 한 친구가 인디밴드나 관련 기획사 등과 같이 일했던 경험을 살려 최근 작은 음악회를 열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이 친구가 가진 빛깔이 이렇게 빛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마지를 기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분명 중요한 이슈지만,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색깔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는 산내에서 청년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첫 번째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이후의 프로젝트들도 재미있고 발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성원** 마지가 식당을 넘어서 산내면의 문화적 자원들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식당으로서의 역할이 크긴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테고, 한편으로서는 후방기지로서 식당이 가지고 가야 하는 안정성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후방기지로서의 안정성을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인터뷰 중인 벼리(좌)와 쏘아(우)

**벼리**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사실 1년은 해봐야 패턴과 사이클을 알 수 있죠. 냉장고만 해도 똑같은 온도로 설정해 놓더라도 계절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 차이를 몸으로 익힐 필요가 있겠죠. 다른 활동들,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두가 마지에 필요한 서비스나 노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번 달만 해도 월급이 아슬아슬하거든요. 마지를 기반으로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제대로 된 임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다른 프로젝트를 열 수 있을 테고, 그러면서 더욱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안정화라는 건, 아직 멀고도 험한 길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4개월인데, 1주년이 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아직 요일별 데이터도 잘 안 쌓여요. 갑자기 월요일에 손님이 많이 왔다가, 금요일에 아무도 없기도 하고. 알아나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성원** 숨 가쁜 한해를 보내고 있는데, 나의 성장이나 변화를 느꼈던 계기는 있었나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굴곡을 겪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쏘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의견은 결국 서로가 가진 하나의 의견일 뿐인 거죠. 나에게 다른 의견이 일리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견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일을 직접 하며 얻은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 없이 많은 대화와 회의를 통해,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된 점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는 다들 배운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벼리** 저도 비슷합니다. 식당 일이 손에 익고 주방 일에 속도가 붙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부수적인 것이죠. 관계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메뉴 개발을 하는 다른 친구와 성향이 정말 잘 맞지 않았어요. 다 열어놓고 고민하는 편인 저와 본인의 의견을 잘 표출하지 않는 친구 사이에서 두어번 정도 큰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일을 해 나간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 작은 생활 습관 하나까지도 무척 다르잖아요. 저희 다섯 명도 무척이나 다른 가정환경, 청소년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일을 하며, 어떻게 잘 함께 할 수 있을지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맞추어나갈 수 있을지 파악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 크게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서로 의견이 대립하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없는 부분이니 까요. 저에게 큰 화두는 역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정성원**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혹은 그러한 고민조차 없는 친구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슷한 연배의 젊은 친구들에게 제안이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

**쏘아** 청년 모임인 '작은자유'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각자가 따로 있었다면 이러한 삶에 대한 경험을 가져볼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뉘고 공동으로 작업도 하는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물론 힘들기는 하지만요. 재밌다는 것에 힘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벼리** 홈스쿨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규과정을 밟아온 친구들에게 그 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대학을 졸업한 친구, 대안학교를 졸업한 친구, 홈스쿨링을 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식당 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하기 전까지도 가능할지 몰랐고요. 최근 수능이 끝나고 자살, 실종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똑같은 길로만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도 있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길들이 많다는 이야기도요. 학교를 다닐 때 알던 친구들도 있고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사실 볼 때마다 안타깝거든요. 다포 세대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너무 어렵고, 그렇게 많은 스펙을 쌓고 경쟁을 하며 살아도 삶이 녹록치 않고요. 괜찮다, 다양한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쏘아**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희가 다르게 살아도 괜찮고, 만나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개인의 몫으로 남겨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전망이 생겨야 하는 것 같아요. 수원시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개인들이 각자도생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삶을 꿈꿀 수 있는 울타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최근 열정 없는 청년들을 향한 호통과 훈계로 가득 찬 미디어 콘텐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꿈 없는 청춘을 보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충고 이전에 왜 그들의 열정이 사라졌는지, 사회는 그들의 새로운 도전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전 기성세대가 나서서 사회 시스템을 바꾸도록 노력할 테니 청년들은 힘들어도 함께 힘을 내자고 말하지 않는 충고, 그것은 오히려 세대간 갈등으로 아젠다를 바꿔 버리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흐려 버리는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출타동시입니다. 젊은 청춘이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깨쳐 나오려는 노력과 동시에 마을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이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청년의 열정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80년대 국가대표 축구 시험 해설자의 단골

멘트인 '투혼'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나희덕 시인의 「속리산에서」에는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라는 듯.....”

높은 곳, 이름 있는 곳, 돈 많은 곳, 화려한 곳... 산내면의 청년들은 지금 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과 쓴맛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동화 속 판타지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일궈본 사람, 제 힘으로 자기 삶을 밀고나간 사람의 알갱이는 단단하다는 것을. 그 단단한 여정을 향해 가는 청년들을 위해 우리들 각자의 방식으로 응원을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지리산 인근을 지날 일이 있으면 진짜 맛있는 밥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마침 씨앗기금을 모은다고 하니 형편껏 손길을 내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글 정성원

• 작은자유 <http://jirisaneum.net/majj>

## 매탄고등학교 동아리 '골목대장'

마을의 주인 청소년, 골목대장은 자란다

### 다양성과 '골목대장'

어떤 국가나 민족도 모두 흥망이 있고 성쇠가 있습니다. 당대 최강이라 불리며 드넓은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나 페르시아나 몽골이 그렇고 고구려 신라 조선도 같은 궤적을 그렸습니다. 이를 두고 후세인들이 다양한 평가나 해석을 하게 되는데 팩트는 동일하지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불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학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주류와 비주류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비주류라고 해서 누구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해석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견을 존중할 때만이 자신의 관점이 도그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고 학문의 발전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만일 단일한 해석만 존재한다면?

결국 동종교배로 인해 사멸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사의 경우에는 공룡의 멸종에 대한 이론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만일 이 100가지가 불필요하다며 누군가 하나로 정리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온당하다고 봐야할까요? 그것은 기실 학문적 중세시대로의 회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름을 '국정' 대신 '올바른'이라 하든 '아름다운'이라고 하든 '훌륭한'이라고 작명하든 역사를 하나의 시각으로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진화의 방향은 여러 갈래이고 그 결과는 필연적이지 않다.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면 지능을 가진 인간이 다시 출현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하면서 ‘다양성의 증가가 진화’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간의 출현을 불러왔고 인류 문명 발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아닌 단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비단 국정교과서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모두 단일한 복장과 단일한 행동패턴, 심지어 ‘안정적 직장’이라는 꿈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진 근현대사를 건너면서 생성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절박한 생존의 지혜는 현대에 이르러 ‘남들과 다르지 않은 안전한 길’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부실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사회구조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유약함만을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내신 성적 관리와 대학 진학에 몰두하는 여타 고2학생들과는 달리 바쁜 학업시간을 쪼개 틈틈이 마을 활동에 애를 쓰고 있는 동아리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타의 학생들과 달리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점, 게다가 그 활동의 중심이 청소년 입장에서는 심심하고 따분해 보일 법도 한 마을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동아리의 이름은 ‘골목대장’입니다.

**정성원** 동아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진혜린** 안녕하세요, 저는 골목대장 동아리 기장을 맡고 있는 진혜린입니다. 저희 골목대장 동아리는 매탄 4동에 있는 마을만들기협의회 분들과 연계해서 매탄동에 있는 문제점들을 청소년 시각으로 바라보며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동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탄 4동에서 진행되는 ‘산드래미 마을신문 만들기’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수원시 청소년 도시 계획단(시민교통평가단의 청소년 분과)으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성원** 그렇다면 학생들의 시선으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동아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총 13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학년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진혜린** 3학년은 아무래도 입시 문제로 참여하기가 어렵구요,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2학년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성원** 지금까지 골목대장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해왔나요.

**진혜린** 먼저 매탄 4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마을신문에 들어갈 글들을 직접 작성도 해보고, 팀 빌딩 같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시험기간이 끝나서 11월쯤에 나올 마을신문 만들기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탄 4동에서 이루어지는 벼룩시장에도 참여하고,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과정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마을의 안 좋은 점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민교통평가단 활동에서는요, 저희가 직접 매탄고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교통 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느끼기에 불편함이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직접 보여드리는 등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정성원** 김형수 학생은 어떤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김형수** 저는 도시 계획단 활동이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 계획단에서 트램(tram)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좋은 것 같았고, 저희의 의견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렴되는 것을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정성원** 마을의 문제, 더 크게 보면 수원의 문제를 학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바라보던 마을의 모습과 활동을 하며 바라보게 된 마을의 모습이 달라보이기도 하나요?

**진혜린** 예전에는 학교-학원-집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라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각해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마을에 뭐가 있는지 마을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주인의식이 생기고 우리 마을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렇게 보면 제 생각이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정성원** 진혜린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혹 다른 친구들도 마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공은별** 평소에는 마을에 대해 딱히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실제 활동을 하다 보니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이곳저곳을 눈여겨보게 되고... 아무래도 마을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유리** 저는 매탄 3동에 살고 있어서 매탄 4동에 갈일이 별로 없었는데 취재하고 인터뷰 하면서 매탄 4동에도 여러 가게들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 몰랐던 사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진혜린** 덧붙여 의견을 제시해보자면, 저희가 마을 탐방을 했어요. 매탄 4동의 곳곳을 돌아보며 마을 주민 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가게에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인터뷰도 해보는 활동을 하면서 어른들이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는 것에 대해 정이 느껴졌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유리** 네, 더불어 마을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정성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면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좋은 대학교 가라고 하는 압박이 있었을 테고,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나요.

**진혜린** 전혀요. 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활동이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진로도 이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도시계획이나 부동산학과 등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관련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셔서 진로를 그쪽으로 바꾸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정성원** 제일 많은 영향을 받았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진혜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대신 이야기도 해주고 마을 주민 분들과도 더 많이 친해지고 마을신문도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도 동아리 활동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원** 학생들은 이 동아리 활동에 대해 만족하나요.

**손지우** 매우 만족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동아리를 하면서 수원시 사람들과 매탄동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저도 꿈이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안에서 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



동네슈퍼 주인과 바리스타 인터뷰 후 단체사진(위), 팀빌딩 프로그램 활동 모습(아래)  
(제공 : 배상희 선생님)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예은, 최유리, 김형수, 배상희 선생님, 진혜린, 손지우, 공은별

니다. 이제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성원**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만약, 후배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 에이~ 저희 동아리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인기 동아리에요! 하하.

처음 '와'의 취재 아이템으로 골목대장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은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활동내용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것 같아 의지와 계획만 가지고 취재를 하기엔 부족하다 싶어 갈무리만 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이 동아리를 만든 배상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리 결성의 구체적 계기는 교과목 때문이라지만 그렇다고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그것도 과외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과 노고를 쏟아내는 일이 비단 교과목 때문이었겠습니까.

**정성원** 동아리를 만든 동기나 배경이 궁금하네요.

**배상희** 아무래도 지리라는 과목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넓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삶의 영역보다는 '이 지역은 뭐가 유명하다. 다른 지역엔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 지역보다는 타 지역에 대한, 시험문제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내가 지리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깨우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삶과 공간이 연계된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서 골목대장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성원** 선생님의 뜻이 있으셔도 입시라고 하는 훨씬 더 큰 문제가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있어서 동아리를 만드는데 압박감이랄까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배상희** 동아리는 2015년 4월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매탄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옮기게

되어서 안면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리 수업시간에 내가 이런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 뜻있는 친구들은 와서 같이 하자 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친구가 기장 진혜린 학생이었구요, 그 친구를 중심으로 친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정성원** 학생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배상희**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활동할 때 시간적 제약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학생들 수업이 끝나고 활동을 하려고 하면 방과 후 학교에 가야 하고, 주말에는 학원에 가야 하는 친구들이 있고, 게다가 시험기간이면 시험 전 2주 정도는 모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주말에 매탄 4동과 연계해서 활동했고, 시험기간을 피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정성원** 선생님이 그런 제안을 했지만 청소년기 학생들은 보통 입시나 이성이나 연예인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질 시기여서 내 지역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배상희** 아마 이 친구들도 마을에 대한 호기심이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호기심과 관련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자극을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었다면 동아리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성원** 선생님께서 제일 처음 계획하실 때 학생들이 모이면 무얼 가장 하고 싶었나요?

**배상희** 우선은 마을 탐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진혜린 학생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집-학교-학원 이렇게 학생들이 움직이니까 마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매탄 4동의 산드래미 마을신문 만들기 팀과 연계해 마을신문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마을 탐사를 하면서 마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으려 했어요.

**정성원** 아까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자신들의 진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처음 들어 보셨어요?

**배상희**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속 이런 저런 얘기는 했었는데 처음의 꿈과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계속 활동을 하며 “이쪽 분야의 일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은 안했지만 최유리 학생은 꿈이 바리스타였는데 마을 캠프를 하면서 마을의 젊은 커피숍 사장님과 함께 커피를 만드는 경험을 하고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졌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꿈도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 같아요.

**정성원** 꿈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을을,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부분으로 보면 성숙해진다고 이해될 수 있겠는데요. 활동이 길진 않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성장, 성숙해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배상희** 네. 한 남학생이 길을 가다 보도블럭 공사를 한 후에 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서 직접 사진을 찍고 영통구청에 제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동네에 길을 가는데 어두침침해서 불편했어요” 하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고, 잘 되어 있는 점은 무엇이며 또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자꾸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성원**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혹은, 마을에 관심을 갖는 변화의 요인이랄까 동기는 무엇일까요.

**배상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용기를 북돋워 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에 관심과 주인의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성원** 이 동아리에서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요.

**배상희** 저는 함께 활동을 하면서 옆에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사람이랄까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는 않거든요. 다만, 여기에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 너희 해볼래? 하는 정도의, 옆에서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성원** 이제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라 평가하기엔 이르긴 합니다만, 돌이켜 보면 선생님이 처음 생각했던 동아리가 구현되고 있는지, 선생님의 평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배상희** 처음 1년 활동을 한 것 치고는 아이들이 그래도 잘 따라와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아리의 목표랄까요, 지금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지역사회와 관련된 활동을 다른 친구들보다는 일찍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 활동들을 바탕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살든 공동체가 무너진 요즘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활동을 이 친구들이 마중물이 되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마을 안에서 커피집 사장님, 요리사 등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마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 활동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동아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정성원** 활동에 있어 장애요인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크고, 한 학년 올라가면 3학년이 되면서 입시 때문에 또 하기 어려운 것이 큰 제약요인이네요.

**배상희**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님들의 반대도 많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해주길, “너는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다녀? 공부도 안하고!” 하는 말을 듣기 일쑤였다고 해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주말에 돌아다니고 하니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후에 골목대장 동아리의 활동들이 메스컴에도 나오고 인터넷 신문에도 나오고 하니 이제는 좋은 방향으로 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성원** 내년에도 선생님은 1학년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 거죠? 혹시 더 해주실 말이 없으신지요.

**배상희** 네, 내년에 2학년이 되는 학생과 계속 활동을 해 나가려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구체적 생활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은 열정적인 교사, ‘모양’ 빠지는 것으로 이해되던 마을을 제 두 다리로 알고 싶어 하는 학생이 행복하게 만났습니다. 인터뷰라는 공식적 매개의 부담 때문에 학생들은 다 이야기하지 못한 말들이 많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적 때문에 친구도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로 호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주관도, 꿈도 없는 허약한 아이들로 호명되는 청소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학생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몫입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 학생들의 꿈을 번번이 무시하거나 혹은 제대로 꿈 꿀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의 팔과 다리로 마을을 만나고 사람들과 자연스레 소통하면서 대학 진학 후로 유예했던 꿈들을 하나씩 채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마을의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아웃사이더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라는 미명 하에 '현재'에서 유예시켰던 마땅한 대우와 존중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마을의 관심과 애정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당당한 주인으로 더욱 단단히 여물어 갈 것입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그대로 다 빠져 나가 버려 이게 뭐 헛고생인가 싶지만 콩나물은 어느새 쑥쑥 자라 있습니다. 마을 활동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주체적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한 뼨씩 성장하고 심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기 마련입니다. 골목대장과 배상희 선생님에게 따듯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글 정성원

# 변화하는 학교

마을을 살린 학교 이야기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하라

변하는 시대, 변하는 학교

## 마을을 살린 학교 이야기

### 가르침과 배움, 그 이상의 학교

학교가 턱없이 부족했던 80년대. 교실 앞부터 끝까지 빼곡히 차있는 책걸상에 앉아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던 아이들은 오전 수업이 끝나면 오후반 친구들에게 교실을 내어주고 집에 가야 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교실을 사용하리만큼 학생들은 넘쳐났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 가르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교실의 풍경이 우리네 학교의 모습이었다. 학교는 단순히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곳만이 아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잉태시킨 곳이었고, 학부모 회의는 마을의 이슈까지 함께 다루며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는 의지를 다지는 곳이었다. 어느덧 학교는 미술관이나 체험관, 캠핑장으로 그 자리를 내어주고 문을 닫는 경우도 생겼다. 마을을 모이게 했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서로 따뜻한 인사를 나누던 학교는 더는 소중한 곳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모든 학교가 '입시'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도, 상실된 소중한 가치를 찾아가 할 때 학교는 본연의 모습으로 그 기능을 다 할 것이다. 자칫 없어질 수 있었던 한 도시, 마을을 살린 학교 이야기를 만나보자. 이 학교에서 어른들은 삶의 터전을 지킬

방법을 찾았고 아이들은 미래를 보장받았다. 학교를 통해 마을은 생산 기능을 회복했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이고 삶을 일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 정부로부터 마을을 지켜낸 학교, 마코코 수상학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주요도시인 라고스 지역은 주변 토양이 해수면에 의해 잠식되어 거주공간이 부족하다. 한 때 나이지리아의 수도이기도 했던 이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높이 상승의 영향으로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어갔다. 베니스와 같은 규모의 수상도시이지만 정부 차원의 도시 개발 양상은 그곳과는 다르다. 정부에서는 어업을 주로 하는 이곳 주민들이 불법조업을 한다는 이유로 해변 주위 집들의 철거를 요청했다. 또한 재개발을 목적으로 이곳 주민들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 철거를 하기도 했다. 주거지역 조차 불안정한 도시에서 학교가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려워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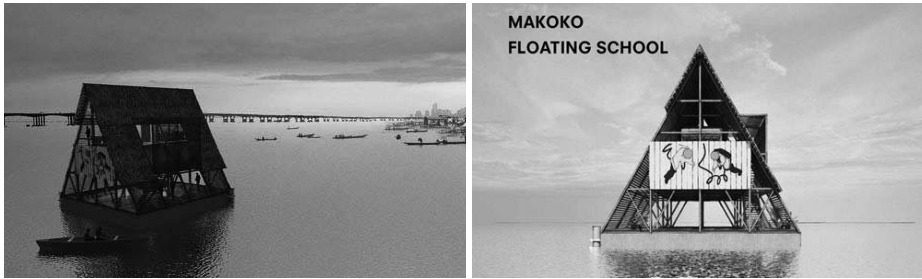


파괴된 라고스 해안가 주택들(출처: <http://www.archdaily.com>)

토양을 근간으로 집을 짓기에는 어려운 지형적 영향과 정부 정책을 감안해 2013년 NLE(네덜란드 소재 건축회사)는 물위에 떠다니는 학교를 고안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지역 중 해안가 빈민촌인 마코코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만든 '마코코 수상학교(Macoco Floating School)'가 그것. 삼각형 모양의 이 건물은 3층 높이로 2층은 교실, 1층은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로 기획되었으며 최대 1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학교 옥상에는 생활식수를 걸러주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설치됐다. 콤포지트 토일렛(compost toilets: 배설물을 퇴비로 만드는 장치를 한 변소. 자동적으로 톱밥을 섞어서 발효시켜 퇴비로 만든다.) 역시 설치되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피해로 생긴 도시의 붕괴를 위한 환경적 관심과 나이지리아 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녹아진 것이다.

이 학교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이나 아프



마코코 수상학교 (출처: 한국일보 기사)

리카 해변 지역에 맞는 건축양식 개발에만 있지 않다. 나이지리아의 인구증가율은 1980~1984년 연 3.4%, 1984~1988년은 연 3.5%로서 2002년의 총인구는 1억 2993만 명을 넘어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이다.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는 도시에서의 주택부족, 실업증대, 식량수입 급증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UN은 28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2050년이 되면 인구 증가가 현재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자생을 위해 젊은이들의 교육 기회는 중요하다.

마코코 수상학교(Macoco Floating School) 이후 계획은 바로 마을 자생.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빈민가인 마코코는 2013년 철거 직전까지 몰렸다가 마코코 수상학교의 성공을 통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2015년 4월 라고스 주 정부는 이 학교의 구조를 마을 전체 재생과 도시 개발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마코코 수상학교를 세운 NLE의 설립자이자 건축가인 나이지리아 출신 쿤데 애드예미(Kunlé Adeyemi)는 애초에 이 학교를 세울 때 마코코마을 재생을 염두해 두었다. 학교를 물에 띄우기 위해 필요한 자재(부표나 그 지역의 목재)들은 비전문가들도 얼마든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도록 비싸지 않는 것으로 디자인했다. 학교를 세우기 위해 고용된 지역 사람들은 학교를 세웠던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주변에서 찾기 쉬운 자재들로 자신의 집과 마을에 필요한 공동 시설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거시설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교는 수업이 없는 동안 이곳에 배를 묶어둔다거나 잠시 그물을 수선하는 어부들에게 좋은 그물을 제공해 주는 곳이 되었다.

한때 철거 위기에 놓였던 한 마을에 학교가 들어서고 그 학교가 중심점이 되어 마을 재건을 이뤄낸 마코코 수상학교 이야기는 혁신이 줄 수 있는 변화와 의미들을 다시금 생각해 한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출처: 더가디언 기사)

### 무지개 빛 꿈이 벽들 사이로 새어 들어오다, 스라포우 직업학교

2010년 캄보디아의 한 대학교 설계 수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장소를 모색하던 핀란드의 두 디자이너는 스라포우(Sra Pou) 지역에 이른다. 애초 이들의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캄보디아 전역을 돌면서 사회 문제와 건축의 필요가 있는 지역을 찾아 NGO단체들과 협업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목적이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건축 디자인만 해주어도 끝나는 것이었지만, 취약계층의 삶을 본 이들이 의욕적으로 자금을 유치한 덕분에 실제 건물 완공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스라포우(Sra Pou) 지역은 도시에서 쫓겨난 시골의 최하층 빈민들이 사는 곳이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이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은 사회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다.

이들은 마을 자생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학교건물을 올리면서 기계와 조립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을 직접 교육시켜 주변 자연물을 이용해 건물을 만들었다. 진흙과 지푸라기를 이겨 벽들을 만들어 외벽을 세우고 벽들 사이에 구멍을 내서 통풍과 채광 효과를 냈다. 지역의 재료와 노동력을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은 스스로 집을 만들 수 있는 간접적 직업교육을 받게 되었다. 학교는 이후 직업이 필요한 마을 주민에게 직업교육을 하고 수익 창출을 돕는 직업학교가 되었다.



이 학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남다르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건축가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끊임없이 이 일을 함께 진행한 NGO단체 블루 텐트(Blue tent)에 전화해 마을공동체에 건축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고 점검했다. 일레로 건물이 다 올라간 뒤 마을 사람들은 학교의 문이 좀 더 견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2012년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한 디자이너들은 마을 사람들이 핸드메이드로 만들었던 문이 견고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역의 기술자들을 다시 불러 문을 철문으로 교체하고 아이들과 주민들이 직접 페인팅하도록 하는 등 모든 과정의 진행을 마을 사람이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이 건물에 대한 오너십(ownership)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은 구호 단체들의 활동에 혜택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도움을 기다리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 사실이다. 처음 학교를 짓기로 결정한 이들이 단순히 건물만을 지어주고 떠났다면 아마 이 학교도 같은 이야기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학교가 가진 의미를 '건물'에 두지 않고 '공동체 살리기'에 둔 혁신가들의 노력으로 학교와 마을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 이후 주민들은 자신이 지은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도가 매우 컸고, 학교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학교를 세우면서 배운 기술들이 그들 삶을 지탱해주는 수단이 됐고 학교건물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선이 필요할 때 주민들은 더 이

상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있는 서로 다른 두 곳의 학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같다. 비록 제 3자의 도움으로 세워진 학교였지만 학교를 통해 사람들은 자립하는 힘을 배웠고, 학교를 통해 마을은 모였고, 살 힘을 얻었다. 건강한 학교가 있는 마을은 건강한 삶을 재생산한다.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학교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과 같은 곳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준다. 혁신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닌 본연이 가진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누군가에 의해 마코코 수상학교와 스라포우 직업학교는 세워졌고 그 혁신은 학교에 본연의 가치와 기능을 더해주고 빛나게 하였다.

글 김수향

〈참고자료〉

- 한국일보(2013. 03. 11) '물에 떠다니는 학교' 100명 수용에 놀이터까지
- 더가디언(2015. 06. 02) Makoko Floating School, beacon of hope for the Lagos 'waterworld' - a history of cities in 50 buildings, day 48
- YR ARCHITECTURE DESIGN(2015. 04. 16) Design for Social Impact: Sra Pou Vocational School
- <http://www.archdaily.com>

##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하라

### 군더더기를 뺀 학교교육의 본질

학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본질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핵심가치(Core Value)’이다. 다른 어떤 곳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유일무이한 가치. 학교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 우리는 학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건물, 학생들의 수준, 교사진의 연구 성과, 대학입시 성공률... 이것은 학교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긴 하지만 본질이 될 수 없다. 학교의 본질은 ‘가르침과 배움’이다. 이 본질에 충실할 때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규명할 수 있는 학교의 모델들은 가르침은 있지만 배움이 일어나지 않든지, 가르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가르침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르침의 즐거움이 있고 배움의 열정이 있는 곳. 학교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고 살아 있는 곳. 그곳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학교의 모습을 되돌리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 스스로 배움을 설계하는 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Rhode Island)의 프로비던스(Providence) 고등학교는 교육 현장과 현실 세계간의 장벽을 깬 학교의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 학교의 빅 픽처 프로그램(Big Picture program)은 다른 학교에도 확대되어 현재 50여 개가 넘는 학교에서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빅 픽처 프로그램의 특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학습계획서(Learning plan)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인턴십(LTI: Learning Through Internship)과정이다.

학교는 먼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계획서를 작성하게 한다. 개개인의 관심사에 기초한 이 학습계획서는 미래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게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목표를 적게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과 함께 고민한다. 학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기본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질은 무엇이며 실제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은 무엇인지 상담한다. 상담은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생 수준에 맞게 학년별 통합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대학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될 뿐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공부와 과정에서의 동기, 즉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는 것이다. 내면적 동기 부여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열정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하다.

또 한 가지 이 학교의 중요한 교육적 요소는 바로 인턴십이다. 학생들은 그들의 열정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졸업 후 들어가고 싶은 회사나 일하고 싶은 직종에서 일하는 멘토와 짝을 이뤄 일주일에 2회를 해당 회사나 기관에 들어가 인턴과정을 수료한다.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 3개의 인턴십을 거쳐야 졸업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요소는 학생들이 진짜 현실세계에 부딪쳐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꿈이 실제 직업의 세계에서는 어떤지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정말 이 일을 간절히 원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한다.

빅 픽처 프로그램을 도입한 멧 이스트 고등학교는 정기적으로 그 지역의 사업가를 모아 학생들이 본인의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직접 유치하는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지역의 사업가들은 사업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필요한 사업아이템은 직접 투자하기도 한다. 이 사업설명회를 위해 학생들은 소비자 수요조사에서부터 자료와

통계를 스스로 찾아보고 마케팅 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의 기술고등학교나 일반 실업고등학교와 자칫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차이점은 바로 개인의 모든 관심사를 다 허용한다는 것이다. 특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자동차, 기계공학)뿐 아니라 건축, 법률, 창업 등 다양하다. 학교는 말 그대로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학생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배움을 스스로 설계하고 학습의 주체로 선다.



빅 픽처 스쿨 수업 모습(출처: 구글 이미지)

### 배움의 형식을 깨다

아리조나 주에 위치한 카르페디엠 스쿨(Carpe Diem School). 이 학교의 교실은 마치 회사의 사무실이나 콜센터를 옮겨놓은 듯하다. 약 300개 가까운 칸막이가 설치된 런닝센터(Learning center)에서 학생들은 각자의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한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4일,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자에게 배정된 컴퓨터에 앉아 하루 일과를 소화한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들을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혼자 공부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불리는 코치들과 면대면(face to face)수업을 하는데 혼자 온라인 수업을 했던 것 중 심화 수업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위한 컴퓨터 활용을 도와준다. 각 수업은 55분씩 돌아가고 온라인과 교사와의 일대일 수업을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돌려가며 진행한다.

이 학교의 특이점은 풀타임 교사의 채용수가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카르페디엠 스쿨은 수학, 언어학, 과학, 체육, 사회 및 선택 과목 등에 각각 한 명의 풀타임 교사를 고용하고 모든 학생들을 담당해 가르치게 한다. 전학년을 한 교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는 전체 시스템과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한 학생의 전 학년 과정을 완벽



카르페디엠 스쿨 수업 모습 (출처 : <http://innovationleadershipforum.org>)

히 이해할 수 있어 그 학생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과목당 한 선생님을 배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연속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학교에 비해 과목당 교사에게 높은 월급을 지급해줌으로서 수준 있는 교사를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 채용에 대한 비용이 온라인 멀티미디어 수업으로 현저히 절감되면서 교육의 질을 위한 연구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학생 개개인의 성취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다. 풀타임 교사 이외에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조교사(assistant coaches)들이 도움을 준다. 또한 상담교사들도 따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진로와 학교 생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준다. 이들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지역 내 인턴쉽 기업들을 매칭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카르페디엠 스쿨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성과에 있다. 2009년에 주 학교평가(AIMS test: Arizona Instrument to Measure Standards, 4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아리조나 주의 학교평가제)에서 거의 모든 학년과 과목에서 학생 수행능력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아리조나 주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 수행능력 평균이 65%라면 이 학교의 수행능력은 92%였다. 2010년에는 수학 수행능력과 독서 능력에 있어서 아리조나 주에서 1위를 달성했고, 2010년 학교평가에서는 주 학교 전체에서 상위 10%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비즈니스위크지(Businessweek)는 2009년 리포트에서 미국 내 최고 수준의 고등학교 중 하나로 카르페디엠 스쿨을 선정했고, US 뉴스&월드 리포트(US News&World Report) 역시 2010년 카르페디엠 스쿨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했다.

카르페디엠 스쿨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런닝센터와 교사와의 일대일 수업을 오고가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배울지를 스스로 디자인하고 학습한다. 온라인 수업으로 혼자 공부하면서 몰랐던 부분은 일대일 수업을 통해 해소한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라면 개인별, 수준별 학습이 불가했을지 모르지만 이 학교의 수업 방식은 스스로 학습 분량과 목표 그리고 과정을 디자인하며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 세상으로 나아가라! 아웃턴십(Outrenship)

일반적인 인턴십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국내의 아웃턴십도 이런 학교의 본질 찾기 교육에 발맞춰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사회로 나온다는 의미의 아웃턴십은 10대를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앙트로프러너십: Entrepreneurship)’ 배양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인턴십도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공교육 안에서 진행되는 인턴십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색이 짙다.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은 단순히 학습적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살아내야 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많은 어른들이 그것에 동의함에도 입시 위주 교육의 한계는 극복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직업을 갖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거나, 진로나 꿈을 이루는 것에서 한 단계 나아가 사회의 필요를 발견하는 안목을 배우는 것이 바로 아웃턴십의 목표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한 책임을 갖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기도 한다. 공교육에서 힘든 현장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재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가치) 고민하게 하며 이러한 고민을 연결해 나만이 할 수 있는 역할(필요)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준다.

단순히 딱딱한 의자에 앉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여러 재능과 꿈을 잘 다듬어 줄 수 있는 기업들과 매칭해 한 달간의 기업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학교 밖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아웃턴십에 참여한 서울외고 조민경 학생(고3)은 사회적 기업인 열린옷장에서 한 달간의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이렇게 정리했다 “저는 열린옷장에서 뉴스레터 콘텐츠를 기획하는 편집장으로서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느낀 것 중, 사회인으로서 꼭 가져야 할 것들은 인간관계, 신뢰, 전문성,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끼리 서로 친하지만 존

중하고 배려하는 자세와 신뢰, 자기 분야의 전문성,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게 앞으로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시간을 최선을 다해 보내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앞서 학교 교육의 본질은 결국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했다. 가르칠 게 없고 배울 게 없는 학교의 현장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다. 학교는 졸업장을 내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아이들은 학원으로 대안교육으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아이들의 12년 인생을 의미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학교가 우리에게 절실히 보인다. 가르침과 배움의 케미(요즘말로 화학작용이 일어날 만큼의 큰 상호작용)가 일어날 수 있는 학교의 모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이 시대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

글 김수향

〈참고 자료〉

- <http://innovationleadershipforum.org>
- [https://www.youtube.com/watch?v=-s\\_065rVW10](https://www.youtube.com/watch?v=-s_065rVW10)

## 변하는 시대, 변하는 학교

‘하늘천 따지 검을현 누를황’이 울러 퍼지는 서당에는 어김없이 회초리 한 개가 훈장님의 권위를 세워주며 그 옆에 놓여있다. 졸음을 쫓아내며 목청껏 읊조리는 소리가 울러 퍼지는 혼한 서당의 풍경에 책걸상이 놓이고 먹과 벼루 대신 공책과 연필이 놓인 학교로 변한 건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는다. 얼마 후 교과서와 칠판이 교구재의 전부이던 학교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다양한 미디어 교자재들이 칠판과 분필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변화하는 사회가 바꾸어 놓은 학교의 단상들은 지금도 꾸준히 변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에 가장 보수적인 학교는 사회의 변화를 앞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다.

학교의 고유한 가치는 놓치지 않으면서도 시대적 필요를 읽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학교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한다.

### 전통 학교의 붕괴, 스티브 잡스 스쿨

2013년 네덜란드에서는 암스테르담을 위시한 7개의 지역에 ‘스티브 잡스 스쿨 (Steve Jobs School)’이 개교했다. 학교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기존 학교들의 모든 양식과 방법을 지양한다. 이 학교가 주목받은 이유는 ‘애플 기술(Apple Technology)’로 불

리는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입학 첫날 교과서와 수업계획 시간표 등을 받는 것이 아니라 O4NT(The Education for a New Era Foundation)로 불리는 아이패드를 지급받는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상의 학교인 아이패드에는 수업을 위한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고 각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 과정이 심어져 있다.



스티브 잡스 스쿨 수업 모습. 아이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자에 맞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스티브 잡스 스쿨 홈페이지)

O4NT는 네덜란드 교육부가 정한 58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을 똑같은 교육시스템에 몰아가는 대신 자신의 수준에 맞게 교육받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 모두에게 지급되는 교육용 아이패드 안에는 개별 학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단계의 교수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어 각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맞춤형 교육은 아이패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사들은 학기 초 개인학습계획(IDP: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을 세운다. 코치(학교에서는 교사라는 용어 대신 코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들은 6주마다 이 계획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학생들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점검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다시 수립한다. 결국 이 모든 과정들과 아이패드를 사용한 새로운 학습방법의 최종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그들의 교육 과정과 방법을 디자인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개별화된 학교생활에서 우려되는 점은 바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이다. 학교 특성상 아이들의 사회생활도 온라인의 'sCoolSpace'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과 코치들은 모두 자신의 아바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스카이프(Skype, 화상통화)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등과 같은 방법으로 소통한다.

물론 이런 아이패드에 밀착된 삶이 학교 전체의 삶은 아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만들어진 언어의 방, 수학의 방, 체육관, 테크놀로지 연구소 등 다양한 '주제의 방(Subject Room)'에서 개인 학습계획에 맞게 세워진 활동들을 함께 한다. 부모와 코치들은 아이데스크 러닝 트랙커(iDesk Learning Tracker)로 학생들이 하루 동안 어느 과목에 시간을 할애했고, 어느 정도 실력 증진이 있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학기간을 아무 때나 수립해 사용할 수 있다. 이 학교 학생이라면 전세계 어디서든 가능한 스케줄링 시스템(TikTik sCoolTool)을 통해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등교 전날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모든 학교 생활이 디지털로 기록되고 자료로 남겨지는 학교. 자신의 학습 계획을 개인의 진도와 습득능력에 맞게 세울 수 있는 학교. 교사는 최첨단 기술을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코치의 역할로서 있는 학교. 테크놀로지의 발전 없이는 꿈꿀 수 없는 새로운 학교의 단상이며 전통학교의 모든 시스템을 위협하는 학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한때 네덜란드령이었던 라틴아메리카 수리남(SURINAM)에도 스티브 잡스 스쿨의 방식을 도입한 학교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스티브 잡스 스쿨은 교사 양성과 교수법 개발이 어려운 일부 국가들의 부족한 교사 자리를 채움과 동시에 테크놀로지 사용법(Technology literacy)도 함께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꽤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 학교의 방법을 고수하기 힘든 개발도상국에 교육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출처: 스티브 잡스 스쿨 홈페이지)

### 위험한 것을 가르치는 학교, 브라이트웍스 스쿨

교사도 없다. 시험도 없다. 이쯤 되면 학교가 갖는 주요 요소들이 벌써 두 가지나 사라졌다. 하지만 학생과 창의성,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학교.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브라이트웍스 스쿨(Brightworks School) 이야기다.

학생들은 일반 드릴과 임팩트 드라이버(impact driver, 압축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드라이버에 타격을 주면 회전력이 발생하여 볼트를 풀거나 조이는 충격식 드라이버)의 차이를 스스로 작동해보며 배우고 있다. 교사가 없는 대신 협력자들(Collaborators)이 있다.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정하면 이를 조정해주는 퍼실리테이터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은 철저하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학교 한구석 학생들이 밴조(banjo: 목이 길고 몸통이 둥근 현악기)를 두드리고 있고 또 한 구석에서는 자신이 만든 도넛을

나눠주고 있다. 다른 구석에서는 행글라이더를 3D모형으로 만들고 있다. 그야말로 부모들이 하지 말라고 말리는 모든 위험한 것들을 다 사용해 보고 있다.

불을 사용하고, 옷은 항상 엉망이 되기 일쑤이고, 가전제품을 분리해보고, 예술작품도 만든다. 학교는 학생들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흥미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능하게 세팅해 주는 역할을 한다. 학교는 왜 이러한 무모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일까?



(출처 : 브라이트릭스스쿨 웹사이트)

극장과 예술가들의 요새들로 가득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학교는 학생들의 '창의성'에 집중한다. 미래는 어려운 과업들을 마치 흥미로운 퍼즐 조각을 맞추듯 쉽게 여기며 즐기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 학교의 생각이다.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창의적이며 세상에 필요한 변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점철시키는 그런 강인함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관점이다.

또한 이런 위험한 도전들을 통해 아이들은 어른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의 든든한 지원 속에 있다



는 안정감과 동시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는 다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방침은 도전하고 실행하며 배우는 것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학생들을 만들며 미래의 리더를 양산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열정과 창의성의 융합, 블루스쿨

1980년대 얼굴을 파랗게 화장하고 신명나게 무대를 누비는 행위 예술 그룹이었던 블루맨 그룹(Blue Man Group)은 등장만으로도 파격이었다. 이 예술가 그룹이 만든 블루스쿨(Blue School)은 태생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창의성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다.

물을 공부하기 위해 학생들은 앵무새 복장을 하고, 할렘 르네상스(1920년대 뉴욕시의 할렘에서 개화한 흑인 문학 및 흑인 음악 문화의 부흥)를 공부하는 일환으로 재즈 클럽을 되살려보기도 한다. 이런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기반 위에 학생들은 열정을 쏟아낸다.

단순히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학교가 아니다. 이 학교는 사회적 이슈와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 플래쉬 카드 속에 등장하는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 학교 아이들은 현실에서 맞닥뜨려 고민한다. 예를 들어 뉴욕시 재활용 문제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3D 모델로 뉴욕시를 만들어놓고 방법들을 고민한다.

또한 기술학교나 도제형식으로 무언가를 연마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다. 학

생들에게 사회의 필요와 문제들을 보고 이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적이고 빛나는 아이디어들을 도출시키게 한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을 배울 수 있게 지원해준다. 학생들은 사회의 필요에 재빨리 반응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혁신가이자 능동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가이기도 하다.



(출처: 구글 이미지)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에서 학교는 전통적인 틀을 버리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고 있다. 혁신과 도전이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기존 학교들이 추구한 지식의 전달과 습득이라는 기본 목표를 뒤로 했다. 여기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기관이 아닌 미래의 인재상을 만들겠다는 공통적인 목표가 보인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의 필요와 문제를 보고 기꺼이 그것을 변혁하는 데 자신의 노력과 가치를 사용하겠다는 미래형 리더를 키우겠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세계 시민의식을 갖고 혁신적 사고와 이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춘 리더들을 양성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동의가 혁신적인 학교의 탄생을 이끄는 동력 아닐까.

글김수향

<참고 자료>

- <http://stevejobsschool.nl>
- <http://www.schoolsofsustainability.com/updates/2014/10/17/brightworks-school>

# 스스로 움직이는 참여의 힘

우리에게 몸놀이가 필요하다

치료와 소통의 블루칩, 몸 활동

파크렛 프로젝트

주니어스

## 우리에게 몸놀이가 필요하다

### 몸으로 논다는 것

최근 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우리가 ‘몸’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흔히 생각하는 것은 ‘건강(Health)’ 혹은 다이어트와 연결되는 ‘몸매(shape)’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몸은 더 많은 의미들로 우리 삶과 연결된다. 겉으로 보여지는 몸에만 집중하기보다 본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몸은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제 2의 언어이자 정신 건강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몸이 주는 의미만 잘 이해해도 우리의 삶은 훨씬 풍부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몸’이 갖는 다양한 의미와 그것이 현대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도록 하겠다.

### 놀이 철학으로서 몸이 갖는 의미

언젠가부터 우리는 ‘몸’으로 노는 시간을 상실한 시대에서 살고 있다. 저녁 먹으러 들어 오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집집마다 메아리처럼 울릴 때까지 아이들이 골목을 장악하고 놀던 시절이 있었다. 골목 놀이의 특징은 장난감과 같은 별다른 매개체 없이 땅이나 돌멩이, 나뭇가지 등의 자연과 뒹굴며 뒹박질하는 것이다. 놀이의 주체는 당연히 아이가 되고



몸놀이 모습(출처 : Middletown Cooperative Preschool "What is bigbody play and why is it important")

아이는 자연과 함께 오롯이 몸을 사용하며 놀았다. 지금의 아이들은 놀이의 주체성을 빼앗겼고 이는 유아기부터 학습되어 왔다. 핸드폰으로 뽀로로를 보며 밥을 먹는 것이 식당에서 아이들의 흔한 모습이다. 미디어 시청은 놀이 행위 자체의 주도권을 오롯이 내어주며 아이들은 수동적인 놀이에 길들여진다. 키즈카페에서는 항상 선생님이 대기 중이고 그곳에서 아이들은 상호작용보다 놀잇감에만 집중한다. 놀이터에서는 보호자가 상시 대기하며 아이들의 놀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며 중계자 역할을 자청한다.

이런 놀이 문화의 변화는 아이들을 점점 놀이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상업문화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몸을 사용하는 신체 놀이의 현격한 저하이다. 모래밭에 뒹구는 것도 개울가에 발을 담그는 것도 조심스럽다. 대신 수많은 체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숲 체험, 농장 체험, 시골 체험, 군대 체험... 몸을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낯선 것이 되었고 몸을 움직여 내보내던 많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몸에 간직하게 되었다.

이러한 몸놀이의 부재는 성인이 되어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몸을 사용하는 일은 취미나 여가에서만 가능하다. 그나마도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몸을 움직이는 취미들은 작심삼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몸이 사무실 안에, 교실 안에 갇혀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현대사회는 이전에 없던 많은 사회적 병폐들을 함께 떠안게 되었다.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여 노는 놀이는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스트레스를 떠안는 완충제

작용을 한다. 17세기 시인이자 철학자 쉴러(F.Schiller)는 놀이를 인간의 도덕성을 더욱 굳건히 해주고 한 개인의 미성숙한 부분을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 외부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은 '상황'이며 인간 내부에 존재하면서 불변하는 것은 '인격'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매개하는 중간 지점에 '충동'이 있다고 했다. 쉴러가 말하는 충동은 앞서 설명한 상반된 힘, 상황과 인격이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 와중에 특정 목표를 성취하도록 몰아내는 에너지이다. 그런데 이 둘 중 한 충동을 따를 경우 어느 한쪽의 힘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인격과 상황을 둘 다 만족시키는 것, 감성 충동과 형식 충동의 조화, 그것이 바로 '유희 충동'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상황을 인격에 따라 변형시키는 것, 또는 인격에 맞는 상황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철학자의 사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잘 놀기만 해도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인격을 넘어서게 해주는 '그 무언가'는 상황을 컨트롤하고 다음 스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 무언가'는 실제로 잘 놀았던 그리고 잘 노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잘 노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특징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견되는 '유연성'이다. 쉴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이 바로 '유희 충동'이다. 주어진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현실 혹은 그것을 극복하기에 힘들어 보이는 내 능력을 넘어서 그 상황의 주인이 되는 것. 수많은 놀이를 창조하고 그 안의 규칙을 만들거나 지키면서 그 안에서 배우게 되는 자율성과 책임감. 상대와 소통하는 법,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 긴장과 이완의 반복에서 배우는 긴장 완화법, 놀이에 푹 빠져 시간가는 줄 모르게 몰입하는 것... 놀이를 통해 배워진 이 모든 것들은 삶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유평라펠리아(Eutrapelia)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심각해질 수도 있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심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결국 놀이를 통해 얻어진 여러 '힘'으로 우리는 삶에 엮어진 문제들을 그대로 직시하며 헤쳐나감과 동시에 문제에서 한층 떨어진 시각으로 여유를 가지며 관망할 수도 있다. 이 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주저앉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이다.

## 뇌의 가장 친한 친구, 몸

하버드대 의대 정신과 교수인 존 레이티(John J. Ratey) 교수는 "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뇌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운동이 생물학적 변화를 촉발해서 뇌세포들을 서로 연결시킨다"라고 말한 바 있다. 레이티 교수는 신체와 정신이 하나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운동과 뇌의 관계를 실제 사례를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한 뇌 연구의 권위자이다. 레이티 교수의 연구 중 운동을 통해 학업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사례가 있다. 몇 년 전 국내에도 방송을 소개된 미국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Naperville Central High School)가 그것이다. 미국 일리노이 주의 네이퍼빌(Naperville)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최고의 학군으로 손꼽힌다.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는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에 이름을 올린 학교이다.

이 학교는 0교시에 전교생이 1.6km를 달리기를 하는 체육수업을 배치했다. 달리는 속도는 자기 심박수의 80~90%가 될 정도의 빠르기 즉, 자기 체력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뛰도록 했다. 이후 1, 2교시에는 가장 어렵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과목을 배치했다. 이렇게 한 학기동안 0교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학기 초에 비해 학기 말의 읽기와 문장 이해력이 17% 증가했고, 0교시 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2배 가량 높았다. 또한 수학, 과학 성적이 전국 하위권이었던 이 학교는 전 세계 과학평가에서 1위, 수학에서 6위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운동이 어떻게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장박동수가 증가하면 뇌세포의 성장에 비료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성장인자인 BGF(Brain Growth Factor)의 혈중 수치가 증가한다.(KIDSTI의 과학향기 제1689호) 또한 BGF와 더불어 분비되는 여러 성장인자들은 다양한 과정을 거쳐 정신적인 환경을 최적화해 각성도와 집중력, 의욕을 고취시킨다. 이들은 또한 기존 뇌세포의 기능을 강화하고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고착되는 과정의 속도를 현저히 빠르게 한다. 뇌세포를 새로 만들어 내며, 창의력이라고 알려진 뇌의 인지적 유연성도 대폭 증가시킨다. 실험에서는 단 한 번의 달리기를 했음에도 테스트에 대한 대답 속도와 인지적 유연성이 향상되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렇듯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생성되지만 운동 직후 이 뇌세포들이 할 역할을 잡아주지 않으면 바로 죽고 만다. 즉,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뇌세포 간 연결을 이뤄 새로 생긴 뇌세포를 기존 지식체계 속에 포함시켜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고등학교가 0교시 체육시간 이후 가장 어려운 수업을 배치한 이유는 결국 운동을 한 직후의 뇌가 학습을 하기 가장 좋은 상태로 세팅이 되기 때문이었다.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 운동 모습(출처: 구글 이미지)

최근 타임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체 활동이 아이들의 두뇌 활동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은 9~10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뇌의 백질과 신체 운동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백질은 뇌의 조직으로 회백질 사이를 연결해주는 신경 섬유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신체적인 운동을 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머리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신체운동을 한 아이는 운동을 하지 않은 아이에 비해 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백질이 많을수록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아닷컴 2014.08.28) 연구팀은 “운동으로 건강이 좋아지면 백질을 통한 두뇌 속 신경신호 전달 활동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몸놀이가 아이 두뇌를 바꾼다』(원제 A moving Child is a learning child: How to body teaches the brain to think)의 저자 질 코넬(Jill Connell)은 그녀의 책에서 “움직임이 자동화되면 복잡한 사고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갓난아이들은 물건을 집고 입으로 가져간다거나 걸다가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등의 아주 단순한 신체 활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흥미로운 점은 일단 뇌에서 전달하는 모든 신경신호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복잡한 사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운동 신경이 발달해야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신체 활동은 실은 뇌의 발달과 연관이 있으며 이후 인간은 비로소 복잡한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소근육과 대근육을 사용하는 물리치료를 활용한다. 뇌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처치는 다름 아닌 신체 운동이라는 것이다. 치료 이후 말과 발음이 더 분명해지고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발전이 있다는 임상 자료가 많다. 위의 두 이야기는 뇌와 몸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우리는 고대 인류보다 지식과 정보는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뇌의 용량에 한참을 못 미치는 뇌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우리가 몸을 점차 사용하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전화번호와 스케줄 알기는 휴대폰이 대신하고, 지식의 저장은 포털사이트가 대신하고 있는 요즘, 걷는 것을 대신하는 자동차와 대중교통, 수렵과 채집을 대신하는 마트, 놀이를 대신하는 미디어, 소통을 대신하는 SNS. 몸을 움직이면서 함께 움직였을 뇌기능의 수행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놓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움직여야 하는 몸을 앓혀놓고 100을 표현할 수 있는 몸으로 10을 표현하며 살게 한다. 보고 듣고 걷고 맛보고 움직이고 표현하고 뛰고 만지고 부딪치고 뒹굴고... 몸이 만드는 수많은 '동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의 몸이 쇠잔해짐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가고 뇌는 시들어진다.

글 김수향

<참고 자료>

- KIDSTI의 과학향기 제1689호(2012. 09. 10), 「운동으로 학습능력 향상시키는 방법」
- 동아닷컴(2014. 08. 28), 「신체적인 운동하면 할수록 똑똑해진다. 연구결과로 입증!」

## 치료와 소통의 블루칩, 몸 활동

태초의 언어가 하나였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몸의 언어일 것이다. 몸은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근원을 끄집어 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소통의 도구이다. 몸을 통한 소통은 때론 타인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기도 하고 본인도 몰랐던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이끌 수도 있다. 소통의 가장 주요한 수단인 언어(활자와 구두를 포함)는 이성의 통제를 받아 밖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본능과 좀 더 가깝게 맞닿아 있는 몸은 '언어'보다는 좀 더 우리 자신의 본질인 본능을 표현해줄 수 있다.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만 잘 이끌어 준다면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는 몸으로 소통하는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몸을 통한 치료와 소통의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몸은 경박하고 정신은 높다라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몸을 통한 소통과 그 방법에 대한 인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 소개할 몇 가지 사례들은 몸을 활용한 활동으로 나와 타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 사회나 개인의 병리적 영역을 치료한 것이다. 몸을 통한 소통은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될 것이다.

## '테러리스트 양성소'가 '교육의 오아시스'로

독일에서 학교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절감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으로 올라간다. 독일 베를린 노이켈른에 위치한 뤼틀리 학교는 '테러리스트 양성소'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악명 높은 학교였다. 학생의 88.2%가 외국학생이었던 이 학교는 하우프트슐레 중에 하나였다.(독일의 중등 교육은 11세부터 해당되며 학생들은 인문계의 김나지움과 실업계인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우프트슐레는 김나지움과 레알슐레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의 기본적인 중등학교 의무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흔히 '잔반 쓰레기 학교(Restschyle)'라 폄하해 부르기도 한다.)

혈통을 중시하는 독일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민자 2세들의 학교,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주 베를린, 그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노이켈른 지역에 있는 이 학교는 골치 아픈 학교임에 틀림없었다. 노동이민 2세인 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사회적 기반이 약한 터키와 아랍계 자녀들이며 내전 중인 아프리카나 세르비아 등 고국을 도망쳐 무작정 홀로 베를린에 체류한 청소년들도 상당수였다.

이 학교가 독일에서 악명을 떨치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 학교 교사들이 베를린시 교육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 학생들의 교내 폭력 상황이 너무 심해 교사들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니 학교 내에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을 배치해 주거나 아예 학교를 폐쇄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이다. 편지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칼, 가스총, 몽둥이 등 흉기를 소지하고 등교해 폭력과 기물 파괴를 일삼을뿐 아니라, 교사를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여 칠판을 돌아서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전해졌다. 또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구조 요청에 대비해 꼭 휴대폰을 지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 간의 폭력은 차치하고서라도 심지어 교사에게도 이토록 살벌한 학교가 오늘날 독일 수도 한복



독일 뤼틀리 학교 앞에 경찰이 상주하는 모습(좌)과 공연 연습을 하는 학생들(우)  
(출처 : <http://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736170/Der-Ruetli-Skandal.html>)

판에 존재한다는 사실, 게다가 교사들이 나서서 학교 문을 닫자고 주장한 이 사건은 독일 을 발각 뒤집어 놓았다.

이 학교의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약 270만 유로(약 400 억 원)의 거금을 투자해 건물을 새로 짓고 시설을 정비했다. 그러나 단순히 시설 정비와 학교의 사립화를 위한 노력으로만 그치지 않았다. 학교의 어려움을 돕고자 <더 영 아메리칸스(The Young Americans)>라는 비영리 단체의 공연예술 전문가 그룹이 나섰다. 196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 그룹은 그 해 유럽 순회공연을 하던 중 뤼틀리 학교의 어려운 소식을 접하고 3일 간의 무료 워크숍과 공연을 자청했다. 이 워크숍이 목표했던 바는 무대 위에서 펼쳐질 작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몸 안에 움츠린 감정적 에너지들의 찌꺼기를 없애고 학생들과 교사, 관객 모두가 한 마음이 되자는 것이 었다. 이들은 2박 3일의 연습을 통해 '춤추는 뤼틀리 학교:우리에게는 다른 모습도 있어요!'라는 공연을 올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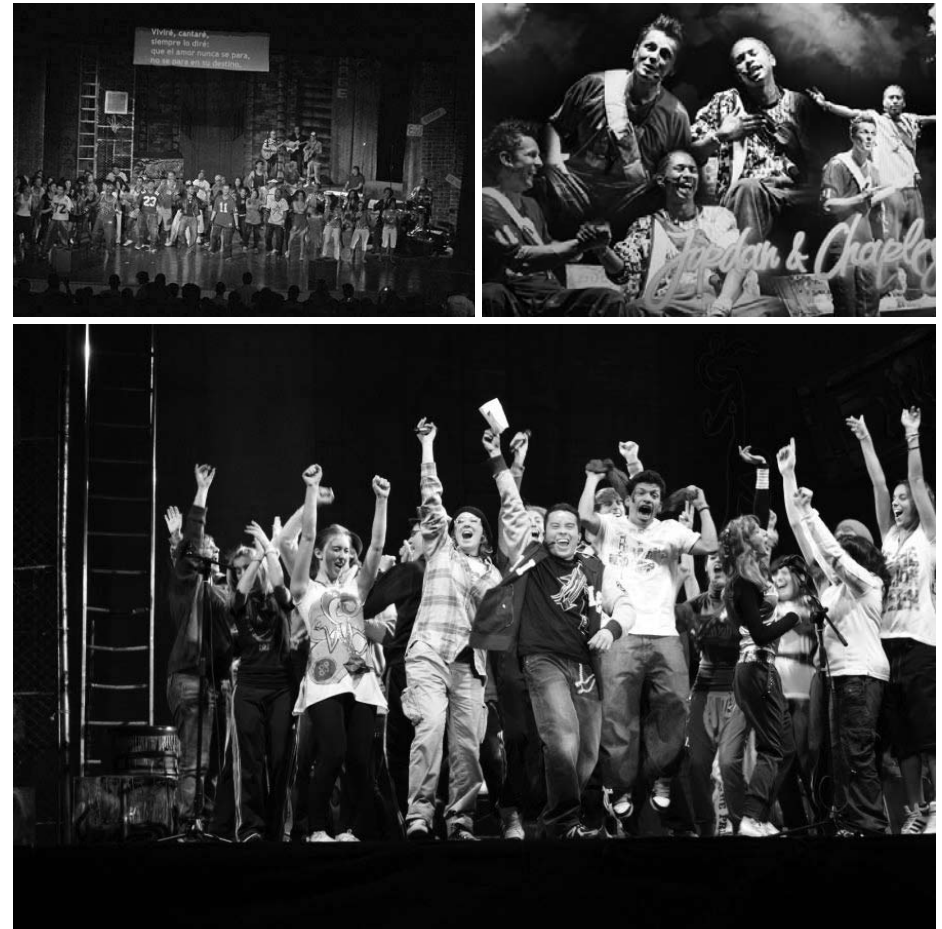
공연 이후 독일의 유력지 슈피겔 온라인(2006. 5. 24.)은 당시의 연습 분위기를 이 렁게 전하고 있다. 학생 중 하나인 수하(Souha)는 흥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친구 들 사이에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들 동안 함께 연습을 하니깐, 마치 가 족이 된 느낌이에요. 학교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이야기했다. 학생들 이 영 아메리칸스와 함께 춤을 출 때 단 이들을 연습한 초보자임이 쉽게 드러났지만 무대 위를 휘젓고 다니며 기쁨과 희열로 가득 찬 그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쳤 다. 공연 막바지의 공동 공연에서는 참여자와 관객으로 온 학부모와 지역주민 모두 함께 눈물을 흘리며 마감했다."

### 학교 폭력, 몸으로 풀다

더 영 아메리칸스(the Young Americans)와 함께 한 이 공연예술은 이 학교를 변화시키 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됐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 독일은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국 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인터내셔널 밴드 <젠 로소 (Gen Rosso)>팀은 필요가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일주일 동안 학생들에게 춤과 노래를 지도하고 함께 대형 극장에서 공연을 한다. 또한 2012년부터 독일에서 뮤지컬 공연을 통 한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가르치고 함께 공연하는 뮤지컬 '가로등' 은 폭력은 폭력을 낳고 결국에는 비극을 불러오게 되는 과정과 비극의 순간에 동반되는

청년들의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춤과 음악을 배우고 전문가로부 터 멘탈 트레이닝을 받기도 하면서 30번이 넘는 워크숍을 통해 공연을 준비한다. 프로젝 트에 참여한 학교들은 공연 후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며 프로젝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베를린 그립스(Grips) 극장의 교육연극 '위버 융스(Über Jungs)'도 폭력 예방교육 으로 유명하다. 법원으로부터 요리수업에 참여하라는 판결을 받은 다섯 명의 폭력적인 청소년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14세 이상 청소년이 대상이다. 극단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연극을 관람한 후 그 내용을 주제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제공한다. 교재에는 전체 적인 줄거리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토론, 교실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연극 대본, 수업



젠 로소공연 모습(출처: 구글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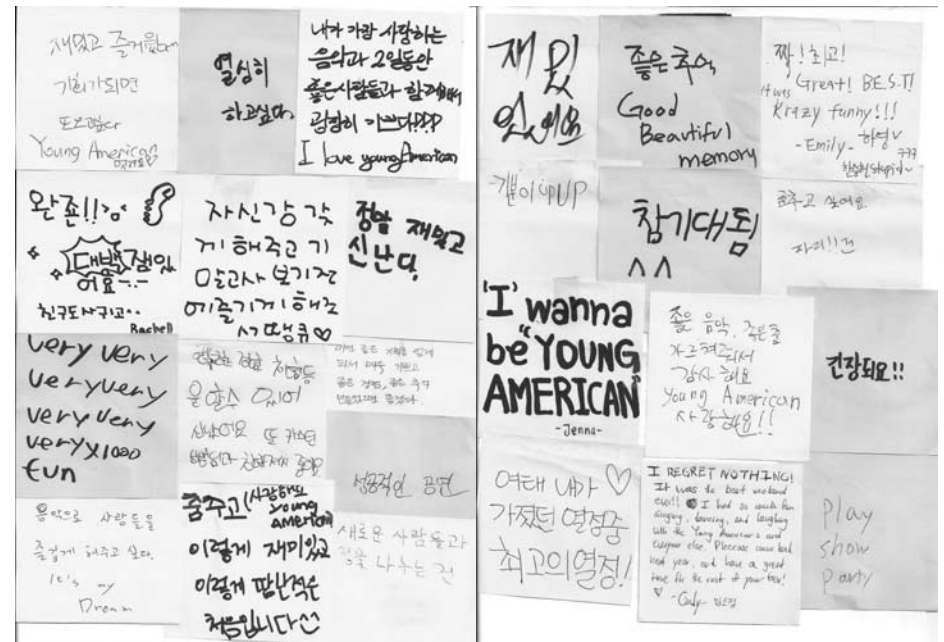
시간별 주제 등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뮤지컬, 연극, 공연과 같은 몸 활동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은 흥미롭다. 그들은 공연을 준비하고 스스로 공연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되고 실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전에는 왕따를 경험한 학생이 24%였으나 이러한 몸 활동을 포함한 많은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12%로 줄었고 가해자도 24%에서 19%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전보다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 몸으로 마음을 치료하다, 콜롬비아 몸학교

몸을 통한 활동의 또 다른 순기능은 부정적 감정의 해소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콜롬비아는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면에 극심한 빈부 격차와 가난과 폭력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이다. 최대 납치국가, 대인지뢰 피해 최대국가, 최대 난민 발생국가,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가 등의 수식어가 붙은 콜롬비아. 분노와 공포, 부조리와 가난 등으로 불행한 삶을 사는 이곳에 1997년 무용수이자 교육가 알바로(Alvaro Restrepo)는 유럽의 여러 지식인과 무용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몸의 학교(el Colegio del Cuerpo)>를 개관하였다. 콜롬비아 최초의 예술대안학교인 몸의 학교는 차별, 폭력, 가난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로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꾸릴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에 주목,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신체교육법 진행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무용가를 양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면서도 현대 무용을 가르치는 비영리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장이자 무용가 알바로 씨는 아이들이 '몸에 대한 존중'을 체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폭력에 대한 공포가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는데 아이들에게 춤은 사치가 아닌 '치료'였던 것이다. 초등학교와 난민촌 중앙 마을회관에서 아이들을 모아 춤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이런 예술적 경험이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준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이 학교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갖게 되었다. 무용가가 아니어도 인생의 진로를 찾는데 적극적이 되었다. 상황과 현실은 변한 게 없지만 아이들은 변했다. 변한 아이들이 그 사회를 바꾸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일 것이다. 몸 활동은 그렇게 한 인간의 부정적



더 영 아메리칸스의 한국 공연 모습(위)과 참여자들의 후기(아래)

이고 어두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미국의 더 영 아메리칸스(The Young Americans), 독일의 그립스(Grips), 이탈리아의 젠 로소(Gen Rosso), 그리고 콜롬비아의 몸의 학교(el Colegio del Cuerpo)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모든 소통과 치료의 매개로 '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더 영 아메리칸스는 20대 중반을 넘지 않는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미국 내에서도 치열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말 그대로 공연예술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2012년 한국을 방문해 짧은 투어를 마친 적이 있다.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얻는 공연 수익으로 이들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무료로 워크숍을 해준다.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단 이틀 동안 공연을 배워 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들에게는 황당하기 그지 없다. 몸치거나 박치라는 이유로, 몸을 사용해본 적이 없었던 십대들은 처음 자신에게 허물없이 다가와 허깅하는 젊은 외국 청년들에게 금세 경계의 눈빛을 해제한다. '다르다'는 것이 그들의 관계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없음을 몇 번의 레슨을 통해 배운다. 입시와 사교육에 찌든 아이들에게 2박 3일의 시간은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참가자들은 전한다. 참여 학생의 학부모는 워크숍 참여 이후 성적도 오르고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과 열정이었다고 전하는 학생들은 2박 3일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라고 감히 말한다. 더 영 아메리칸스의 워크숍에서 몸은 이들과 학생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영어가 미숙한 아이들도 한국을 찾은 푸른 눈의 미국 형과 누나들이 열정적으로 공유해주는 춤, 노래, 랩, 마임 등의 노하우를 전달받았다. 마지막 날 부모들과 지역 주민을 초청한 자리에서 공연 전문가들과 함께 올리는 공연은 보는 이들에게 달라진 아이들의 눈빛을 확인시켜준다.

일본에서는 아예 지역 자치구가 년 단위로 이들을 초청한다. 교도소, 학교, 장애인 등 특별한 치료와 변화가 필요한 그룹을 돌며 활동을 하고 있다. 2011년 고베에 있었던 대지진 이후 유령도시와 같던 그곳을 찾아 큰 감동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몸 활동의 참여는 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억압된 감정을 긍정적인 통로로 표출하게 해 주고 에너지들을 되받게 해준다. 이런 순기능들이 학교폭력, 재해, 빈곤, 억압 등 우리 앞에 놓인 사회적 현실로 병든 자아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 이래도 몸을 방치하겠습니까?

2015년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발표한 보고서 『The Value of Arts and Culture to People and Society(문화예술의 개인적·사회적 가치)』에는 런던의 예술자선단체 <온리 커넥트(Only Connect)>의 교육 프로그램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온리 커넥트가 2006년부터 약 6년 간 재소자 및 전(前)재소자를 대상으로 연극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런던의 재수감 비율이 평균 57.5%인데 반해 연극 교육에 참여한 재소자들의 재수감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25.9%로 측정되었다. 문화예술 교육이 재수감 비

율을 낮추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연극 교육에 참여한 재소자들이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연극을 직접 제작·출연하면서 다시금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NPC, 2011)

셰익스피어는 “연극은 자연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했다. ‘자연’이 인간의 본성과 같은 의미라고 할 때 연극은 자신의 본성과 마주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서 몸은 본인과의 소통을 돕는 좋은 도구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몸 활동’을 통한 자신과 타인과의 소통은 지금 곳곳에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묵혀두고 쫄쫄 묶어두고 있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

글 김수향

### <참고자료>

- 아르떼 365\_해외소식(2006. 09. 28.)
- 아르떼 365 연구리포트 「해외 연구보고서를 통해 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 한국교육신문(2015. 03. 16.), <독일> 주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전담기구 창설
- 몸의 학교 <http://mephisto9.tistory.com/186>
- EBS 지식채널e(2009. 07. 27.) 몸의 학교

## 파크렛 프로젝트 Parklet project

### 작은 공간의 변신, 공공 공간의 힘

한국은 2명 중 1명이 도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인구가 2천 5백만 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도시는 비좁다. 높은 빌딩과 아파트 사이 하늘 한 칸을 보기 어렵다. 빼곡히 가정집이 들어선 주택가에선 옆집 저녁 메뉴쯤은 쉬이 알 수밖에 없다.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큰 공원이 집 근처에 있기를 다들 바라지만 나무 한 그루 심기에도 빠듯하다. 그래서 한국의 도시 생활자들은 주말이면 우르르 줄을 지어 등산로에 들어서는지도 모른다.

#### 비좁고 삭막한 도심 속,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어디 없을까?

사실 땅덩어리 넓은 미국이라 해도 대도시 중심가는 한국 도심과 마찬가지로이다. 미국 대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도시 생활자들의 숨통이 잠시나마 트일만한 재미있는 실험이 시작됐다.

공공 디자인 회사 <리바(Rebar)>는 샌프란시스코 시내 공공장소의 70%가 주차장이란 것을 듣고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해보기로 했다. 사람들이 어울려야 할 공공 장소가 개인 자동차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립된 지 1년밖에 안된 신생 디자인 회사 리바는 2005년 도심 속 주차 공간을 사람들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실험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바로 '공원; 파크(Park)'를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을 뜻하는 영어 '파킹(Parking)'에 'ing'를 괄호로 구별해, '주차장이 잠시 숨은 공원: Park(ing)'이라는 재미있는 이름도 붙였다.

#### Park(ing) project

미국 도심 공용 주차장은 길가에 동전 미터기가 있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동전을 미리 내고 주차하는 형태가 많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에도 동전 미터기가 있는 주차장이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 옆에 나란히 있다. 잠시 쉬어갈 벤치 하나 없는 삭막한 거리였다.

리바는 주차장 하나를 2시간 정도 빌려 그 자리를 미니 공원처럼 꾸몄다. 이동식 단계를 깔고, 벤치를 놓고 나무 화분을 갖다 놔다. 누가 봐도 그럴싸한 공원이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은 물론이다. 개인의 차 한 대가 주차하는 공간이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가다 잠시 쉬기도 했고, 누군가는 차 한 잔을 하며 책을 읽었다.



2005년 11월 리바가 진행한 최초의 'Park(ing)' 모습(출처: 리바 홈페이지)

리바 공동 창업자 매튜 패스모어(Matthew Passmore)는 그날의 이 실험을 아주 근사한 영상과 사진으로 남긴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영상과 사진을 보고 Park(ing)에 참여하고 싶어 했다. 이는 입소문을 타고 '주차장을 공원으로 만드는 날! : Park(ing) Day'로 1년 뒤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다.

## 두 시간의 실험, 10년 뒤 전 세계로 확산 중

리바는 사람들의 문의에 누구나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Park(ing)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했다. 대신 최초의 아이디어 소유권은 리바에 있고 이를 언급하도록 했다. 상업적 목적만 아니면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실험에 함께 하며 사진을 남기고 블로그를 통해 소문을 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확산되던 Park(ing) Day는 2011년 더욱 특별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중국 베이징과 이란 테헤란에서도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난관도 있었다. 일부 장소에서는 경찰이 공원을 폐쇄한 것이다. 그래서 리바는 사람들이 공원을 정리하고 자리를 뜰 때 그 자리만 청소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 마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가꿀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Park(ing)의 목표이기도 했다.

Park(ing) Day의 규모가 커지자 제일 먼저 반응이 온 곳은 샌프란시스코 시청이었다.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 해왔던 것이다. 시청은 허가절차를 마련하고, 리바와 긴밀하게 일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갔다. 그리고 이는 2011년 이후부터 '파크렛(Parklet)'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게 이른다. 또한 파크렛 매뉴얼을 함께 발간했다.

파크렛 시행 5년째인 현재, 파크렛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으며, 미국 아이오와 등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람들은 예쁜 파크렛을 사진 찍어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소문을 낸다. 각각의 파크렛에는 카페와 상점들이 주최를 하고 기업이 후원하거나 자원봉사자, 디자인 업체 등이 참여해 아이디어 싸움을 벌인다.

## 파크렛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도시문제 연구소 <미팅 오브 더 마인즈(Meeting of the Minds)>는 파크렛은 결국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파크렛이야말로 커뮤니티의 아름다움을 위해 상인, 지역단체, 기업, 주민 등 구성원 각자의 역할들이 만나는 최적의 지점이라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멋진 거리 프로젝트(The San Francisco Great Streets Project)는 샌프란시스코 디비시데로 거리(Divisadero Street)를 파크렛이 생기기 전과 생긴 지 2개월 후 비교하여 실증적 영향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파크렛이 생긴 이후 보행자가 37% 증가했고, 파크렛을 만든 가게는 손님이 늘었고, 거리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80%에서 90%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다. 미팅 오브 더 마인즈는 “공공장소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를 만들어낸다. 한 사회는 경제능력이 각기 다른 계층이 공공장소에서 만나 통합이 되며 사회적으로 보다 건강한 형태가 되도록 한다”는 콜롬비아 보고타 전 시장의 말을 인용하며 파크렛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다양한 파크렛의 모습들(출처 : <http://inhabitat.com>)

## 시민이 만드는 작은 실험

더불어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 확산 모델의 가장 큰 강점은 아래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였다는 점, 확산될 때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잘 뒷받침 했다는 사실이다. 리바 창립자 매튜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파크렛은 시민운동으로 봐서도 안 되며 상권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봐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했다. 시민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확산된 것이 바로 '파크렛'의 매력 아닐까?

파크렛의 사례를 보며 한국의 자치단체가 정해둔 수많은 '걷고 싶은 거리'가 생각났다. 도로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심고 인도를 넓힌다고 사람들에게 '걷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누군가 공공 공간에 대해 느꼈던 욕구와 필요가 하나의 실험이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이것이 나비효과처럼 확산해 나가는 것을 보며,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작은 실험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새삼 느낀다. 그리고 그 실험의 방향이 맞다면 하루 하루 살기 바쁜 도시인들이지만, 기꺼이 시간을 내 동참할 것이다.

글 황명화

<참고자료>

- 뷰앤뉴스(2013.01.21.) 수도권 인구 2천500만 명 돌파
- 인하비타트(2014.06.10.) INTERVIEW: Matt Passmore of Rebar Studio
- <http://cityminded.org>

스스로 움직이는 참여의 힘

## 주니버스 zooni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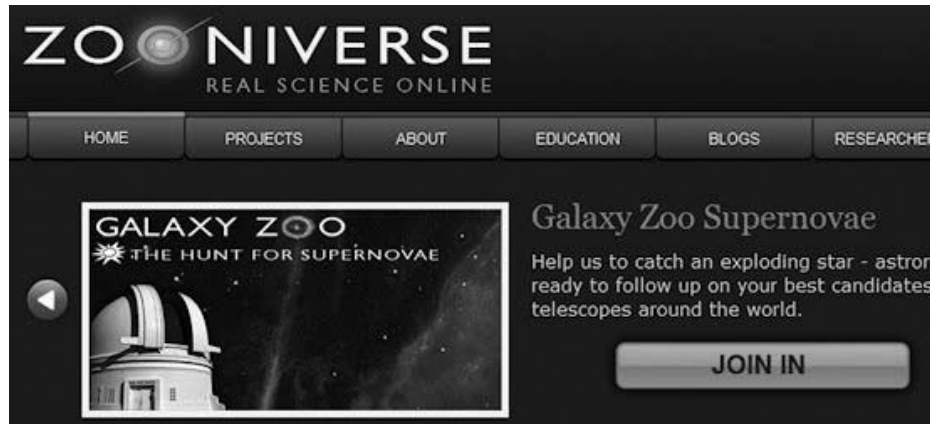
### 밀실에서 뛰쳐나온 과학, 시민 참여는 진화한다

과학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 한 명 한 명이 암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고, 우주에 떠다니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 현대 과학은 우주 행성 사진을 찍어 지구로 보내고, 아프리카 초원 야생 동물의 생활을 24시간 무인 카메라로 촬영하며, 우리 몸 속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관찰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신기술이 쏟아내는 정보들은 인터넷의 힘을 빌려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소중한 정보들이 지니고 있는 행간의 숨은 뜻을 발견하자는 빅데이터가 최근 화두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학과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자동 소프트웨어들은 현존하는 인간의 눈과 인지능력을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니버스'라는 시민 참여 과학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이 보이는 방대한 데이터 수집 능력과 분석 능력에 인간의 인지 능력을 연결한다.

### 클라우드 소싱과 과학연구의 결합

2007년 옥스포드대학교의 천문학자 크리스 린토티(Chris Lintott)와 그의 동료들은 '갤럭시 동물원'이라는 그들의 웹사이트에 7만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일반인들에게 분석을 요청하였다. 갤럭시 동물원은 24시간만에 7만 장의 분석된 사진을 받았고 그 후 1년간 5

천만 장의 천체 사진이 일반인들에 의해 분석됐다. 이 사이트는 현재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갤럭시 동물원을 시작으로 린토티 박사는 2009년 주니버스라는 시민 참여 과학 프로젝트 플랫폼을 개설하였다. 주니버스에서는 의학, 지질학, 생물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주니버스 갤럭시 동물원 웹사이트 갈무리

21세기의 과학자들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데이터 폭발이라고도 한다. 방대한 자료를 다루기 시작한 과학자들은 더 많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더 많은 과학자나 학생들을 고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었다. 컴퓨터가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 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숫자나 통계가 아닌 사람의 눈으로 이미지를 직접 관찰하고 무엇인가 다른 패턴을 인지해 내는 작업은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생각해낸 방법이 대중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는 비즈니스 및 마케팅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린 클라우드 소싱을 과학연구에 적용한 것이다. 클라우드 소싱은 클라우드(대중)와 아웃소싱(위탁)의 합성어로 대중의 지식과 지혜 즉, 대중의 지성으로 정확하고 믿을 만한 결과물을 얻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건을 산 후 구매 후기를 쓰는 일, 신제품을 사용해 보고 사용 후기를 알려 주는 일 등 기업 경영,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서 클라우드 소싱은 없어서는 안 될 집단지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과정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주니버스가 진행하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도 데이터 분석 방법의 하나로 클라우드 소싱을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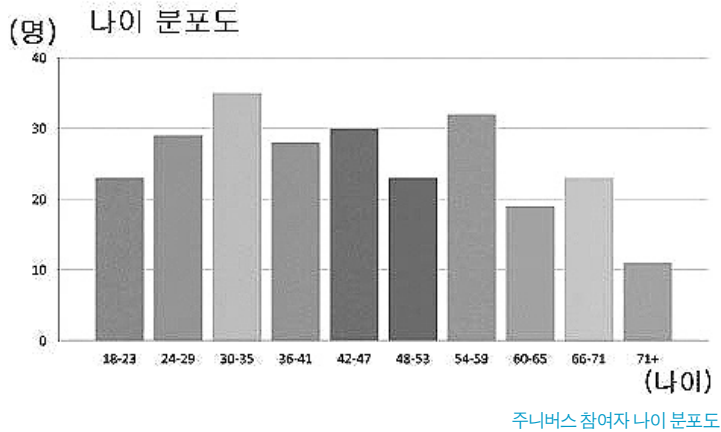
## 밀실에서 뛰쳐나온 과학



전 세계에 있는 주니버스 자원 봉사자 분포도(출처: 주니버스 블로그)

주니버스는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 된, 누구나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시민 참여 연구 플랫폼이다. 주니버스의 운영 단체인 <시민 과학 연합>은 과학 발전을 돕고자 하는 전 세계 인적 자원(대부분이 자원봉사자)을 모아 과학자들과 연결시켜 준다. 참여하게 된 동기도 목적도 나이도 교육 수준도 다르다. 옥스포스대학교에서 최근 주니버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 300명의 나이가 20대부터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참여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하다. 모잠비크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호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주니버스 웹사이트로 들어가 고롱고사 프로젝트를 클릭해 보자. 간단한 사전 교육과 함께 일련의 사진과 동영상은 보여 준다. 사진을 보며 어떤 동물 몇 마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클릭 몇 번으로 알려주면 된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주관식 과제는 다행히 없다. 분석 후 진행되는 다른 참여자나 전문가들과의 온라인 토론이 싫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해보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 같다. 동물이 한 마리도 없는 초원 사진을 몇 십 장 보다가 갑자기 원숭이 한 마리라도 발견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화석에 관심이 많은 아이가 화석 찾기 프로젝트를 클릭한다면 케냐 사막 화석 사진들이 뜬다. 어린 시절 천문학자의 꿈을 가졌던 직장인은 은하계의 사진을 분석할 수 있다. 사진과 관련된 내용을 나와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자원봉사자나 전문가와 토론하고 싶다면 갤럭시 동물원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된다.

개인이나 기업에 이윤을 남기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과학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기반하여 그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한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다. 주니버스는 현재까지 10개 이상의 시민 참여 과학 프로젝트를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37개이다.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은 2014년 2월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학계와 기관들도 영국의 옥스포드대학교, 영국국립해양박물관, 미국의 미네소타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 등 매우 다양하다.



### 무엇이 시민 참여 과학 연구를 특별하게 하는가?

주니버스를 통해 진행되는 과학 연구 프로젝트가 여타 과학 연구 프로젝트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일까? 주니버스는 시민 참여 연구 플랫폼의 강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 : 실제로 갤럭시 동물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대학원생들이 3년 반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을 일반인들은 6개월 만에 끝냈다.
- **집단지성을 이용한 검증 과정** : 소수 과학자들만이 수행해오던 작업과는 달리, 많은 수의 일반인들이 수행하는 상호 검증 과정을 거치므로 오류 발생의 확률이 급격히 줄어든다. 오류뿐 아니라 여전히 가끔씩 터져 나오는 과학자들의 의도적 데이터 및 실험 결과의 조작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밝혀낼 수도 있다.
- **인간만이 보유한 인지 능력의 활용** : 컴퓨터로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뜻밖의 성과를 사

람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인간의 눈은 비슷해보이는 이미지에서도 이상한 것, 특별한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특히 이미 깊은 지식으로 중무장된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패턴을 초심자인 일반인들이 발견해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로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패턴을 발견하는 사례이다.

- **뛰어난 과학교육의 장** : 시민 참여 과학 플랫폼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과학 교육의 새로운 기회이다. 또한 과학 프로젝트의 참여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과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과학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관심 지속도와 이해도는 증가된다.

### 시민 참여 연구방법의 진화

이상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는 시민 참여 연구의 어려운 점은 없을까? 가장 잘 알려진 어려움으로는 시민연구자들의 참여 지속성이다. 과학적 호기심과 열정으로 참여하던 시민연구자들이 참여과정상의 비효율성이나 단순작업에서 비롯된 지루함으로 참여를 중단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초심의 열정과 호기심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니버스 플랫폼에서 최근에 수행했던 '셀 슬라이더 프로젝트'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시민 참여 연구 방법의 효율성과 흥미를 가미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떠나 연구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싶어 하는 참여자를 위하여 강렬하고 효율적인 참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각기 다른 종류의 암세포와 체질이 다른 환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찾는 것이었다. 시민연구자들은 암으로 고생하는 자신과 주변의 지인을 떠올리며 암세포 영상을 분석했다.

영국에 살고 있는 47살 클레어의 엄마는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도 2012년 피부암에 걸렸다. 친구와 친지들에게도 암은 그리 멀리 있는 병이 아니다. 클레어는 오랫동안 암연구센터에 돈을 기부했지만 이 돈이 실제로 어떻게 암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영국 암연구센터와 주니버스가 함께 추진했던 셀 슬라이더 프로젝트를 듣고 클레어는 바로 암세포 연구 참여자가 되었다. 셀 슬라이더는 암세포 연구원들이 올려놓은 수백만 장의 세포 사진을 보고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나 온라인 게임

을 하는 형식으로 일반인이 사진을 분석하는 프로젝트이다. 클레어는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노트북을 들고 소파에 앉아 연구원들이 올려놓은 사진을 보고 사진에 달린 질문에 답했다. 사진 한 장을 여러 사람이 함께 분석하니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다.

셀 슬라이더 프로젝트는 많은 의학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았다. 2012년 5월 런던 과학박물관에 영국 암 연구소 연구원, 주니버스 연구원, 소프트웨어 전문가 50명이 이틀 동안 모였다. 이들의 임무는 방대한 양의 암세포 사진을 일반인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48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암 연구소 연구원들은 분석해내야 하는 세포들의 특징에 대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에게 설명하였고 주니버스 연구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많은 토론을 했다. 이들간의 토론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암세포 분석 게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해 10월 24일 셀 슬라이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영국 암연구센터의 폴 파로아(Paul Pharoah) 교수는 클레어 같은 일반인 연구자의 시간과 노력은 최첨단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얘기한다.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3개월 만에 온라인 참여자들은 연구원들이 18개월 동안 분석해야 할 분량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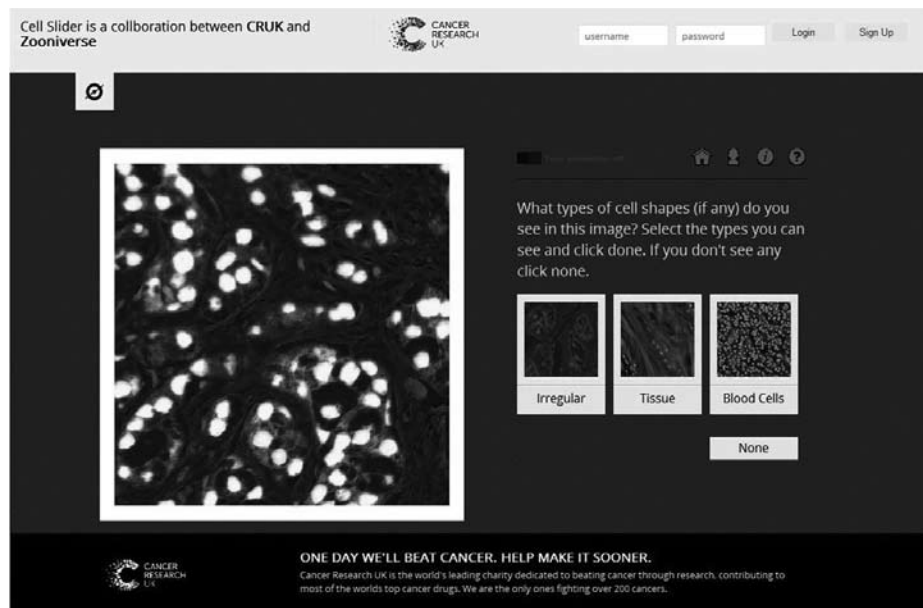
진들을 분석해냈고 목표했던 250여만 장의 암세포 사진들을 모두 분석한 뒤 셀 슬라이더 프로젝트는 종료되었다.

셀 슬라이더 프로젝트는 보다 많은 수의 잠재적 시민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적인 과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프로젝트이다. 시민들은 과학적 호기심과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 참여했지만 데이터 수집이나 영상 패턴 분석 등의 어찌 보면 반복적이고 지루할 수 있는 작업이다. 이에 시민들이 보다 흥미롭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게임이나 사용법이 쉬운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 이는 아마추어들의 과학 연구 프로젝트 참여 효과에 반신반의하던 과학계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시민 참여 과학연구와 디지털 사회혁신

주니버스 프로젝트는 과학이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과학에 가깝게 다가간 대중의 힘과 기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준다. 주니버스에서는 이미 모아진 과학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패턴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활용했다. 하지만 시민 참여 과학 연구는 이러한 분야 이외에서도 다양하게 시도되며 그 사례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과학적 질문의 제시, 다양한 환경이나 재단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수집된 데이터의 1차 필터링 과정이나 인간의 시각, 청각 등을 이용한 패턴 분석 과정, 과학모델의 테스트와 검증 과정 등 다수의 참여가 과학적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시민 참여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주니버스를 포함해 다양한 시민참여 연구가 가능해진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 참여 연구의 방법과 과정의 공통적 특징은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과학 연구 참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과학 연구란 그동안 밝혀지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내고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와 분석,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발견의 정확도는 높아지게 된다. 디지털 기술이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 빅 데이터 수집 능력, 모아진 데이터의 공개화, 분산되어 있는 인간들을



셀 슬라이더 프로젝트 웹사이트 갈무리

이어주는 네트워크화는 바로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디지털 기술이 마련해놓은 새로운 연구방법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엘리트 전문 과학자들만이 참여 가능하던 연구 작업에 시민들이 초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이다.

주니버스 사례에서 살펴본 시민 참여 연구는 과학 데이터 및 연구과정의 개방화, 연구 참여자의 네트워크화 등을 통하여 기존의 연구과정에서 만들어낼 수 없었던 정확도와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식의 연구 방법이다. 또한 디지털 사회혁신의 핵심요소로 이해되는 개방성과 분산성에 기인한 참여, 관계맺기, 공동생산하기 등이 과학이 결정하는 시대의 흐름에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비슷한 시민 연구자 및 전문 과학자와 '관계맺기'를 하고, 연구결과를 '공동생산'하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할법한 과학영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는 배가된다. 과학 기술 발전이 얼마나 한 인간과 현대사회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해볼 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과학 연구 기회의 증가는 유의미하다. 과학 기술이 만들어나가는 미래사회에 대한 방향 결정에도 몇몇 엘리트 과학자와 이를 이해하는 몇몇 정책입안자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의 적용이 확대될 수 있음을 예측해본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학 연구도 소수 과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글 김미경, 김정원

〈참고 자료〉

- 나사 사이언스 뉴스(2011.04.22.) Citizen Scientists Making Incredible Discoveries
- 데일리팜(2015.09.23.) 아스트라, 병용 항암제 개발에 크라우드 소싱 이용
- 내셔널 지오그래픽(2015.09.21.) Big Data for Big Animals: Citizen Science Helps Mozambican Wildlife
- 더 텔레그래프(2014.09.29.) Cell slider: science from your sofa
- 와이어드(2012.10.24.) Citizen science project crowdsources identification of cancer cells
- 이에스에이저널(2012.08.01.) The future of citizen science: emerging technologies and shifting paradigms
- <https://www.zooniverse.org>
- <http://www.cellslider.net>

## 한국사회와 평생학습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평생학습의 기반을 위협한다

민주시민교육 조례, 단단한 주체의 형성을 고민할 때

자유학기제, 마을은 아직 준비중?!

##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평생학습의 기반을 위협한다

### 국정 교과서와 국민적 자긍심

중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 한 토막은 이렇습니다.

외국의 어떤 청년이 제과점에서 제일 맛있고 값싼 빵을 사가길 근 한 달여, 이를 가여이 여긴 여주인은 어느 날 맛있는 야채와 마요네즈와 햄을 얇게 저며 그 빵 속에 몰래 넣어 두었고 어느 날처럼 찾아 온 청년에게 기쁜 마음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후 찾아 온 청년이 노발대발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오랜 시간 국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스케치를 한 후 필요하면 그 빵으로 지우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캔버스가 마요네즈로 물들어 가는 모습을 본 청년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을까요. 당시 국어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교훈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의를 가졌다고 해도 꼭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경우, 지금까지는 보육료 지원을 통한 육아부담 덜어주기가 중심이었다고 하면 향후에는 미혼과 만혼에 대한 대책으로 그 초점이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지난 10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현행 초중고 12년 학제를 10년으로 단축시켜 청년들의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추겠다는 발표의 맥락이 이해가

갑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국가적으로 위낙 중요한 사안이다보니 다양한 대책이 나오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가고 그 고심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어 선생님 말씀처럼 선의가 곧 좋은 결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2년 빨리 사회에 진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는 만무합니다. 게다가 국가가 나서 젊은 남녀의 집단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창조적 발상’을 들으면 참 대략 난감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그것을 달성시키려는 정책 사이에 비록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 해도 그들의 고뇌까지 힐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의 경우에는 그 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프레임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교과서를 이처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는 이유를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국정 교과서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일본 언론으로부터도 조롱받고 있는 마당에 어떤 국민적 자긍심이 생길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분들은 부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희 나라는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왜 국정 교과서를 안 만드니?”

### 국정 교과서 정책의 비국민화

다음의 글은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문재인 대표가 한 말입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 문장을 읽은 여러분은 논리적 충돌이나 별다른 가웃거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위의 글은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문 대표가 아닌 박 대통령께서 십 년 전인 2005년 1월 한나라당 대표 신년연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국정화 강공 드라이브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맥락이기 때문에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 있고 그것은 자연스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출직 공인으로서의 도리입니다. 평소 소신과 발언을 보고 투표를 했는데 당선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유권자로서는 참 황망하기 그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2005년부터 십 년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 생각이 바뀌셨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현재는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 계시다는 것. 이것이 강공 드라이브의 원천이라면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군사 작전 하듯 비밀리에 국정화 TF를 가동한 비정상적인 일의 원천도 결국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냐”라는 언론의 보도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언제부터 국민과 비국민의 구분이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기 시작했는지, 이런 겁박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세월호 사건처럼 국민은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일이 평생학습과 과연 무관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핵심은 시민교육에 있으며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 기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성찰과 공공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라는 시민적 덕목을 길러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화의 핵심은 힘을 골간으로 하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 없는, 결국 민주적 방식을 거부하는 몰상식한 형태입니다.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이 근육의 논리가 사라질까요? 아니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 사회 전방위적으로 각종 파열음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추측일 것입니다. 결국 평생학습계 역시 무풍지대가 될 수 없음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학계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 민주주의를 위한 마음과 학습: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승희(서울대 교수, 교육학)

한국 교육의 제일 화두는 암기식 교육과정을 탈피해서 사고



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암기는 ‘사실’을 필요로 하며, 사고력은 복수의 사실과 맥락을 통한 ‘논리’를 필요로 한다. 논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사실들간의 관계가 주어진 맥락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사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 예컨대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인가 혹은 박정희의 공적이 무엇인가 등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그것은 논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사실은 가릴 수 있지만 논리는 가릴 수 없다. 혹은 달리 표현하면, 논리는 암기될 수 없으며 암기될 수 있는 논리는 논리가 아니다. 가려진 사실과 무리한 논리가 낳는 결과는 ‘의문’과 ‘질문’이다.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로막는 일은 결코 교육이 아니다.

교육이 사실 혹은 ‘사실화된 논리’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사상통제가 된다. 역사 과목의 목적은 사상통제가 아니라 역사적 내러티브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이다. 이것을 역사문해(historical literacy)라고 말한다. 이때 역사교과서는 바이블이 아니며 하나의 교재에 불과하다. 수업에서는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을 키운다. 그 문해력은 교과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형성된다. 사실,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자체가 훌륭한 교육적 소재이며, 민주 시민을 교육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다. 이 과정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시민성에 대한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 단지 ‘현명한’ 리더와 ‘우둔한’ 군중의 이분법이 있을 뿐이다. 웹사이트에서 본 어떤 댓글이 생각난다. “역사책이 어떻게 1종이나, 복음서도 4종인데...”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결코 교육학적 쟁론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 체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은 그 자체가 반교육적 논쟁으로, 교육의 ABC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논쟁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 논쟁에 다수의 교육학자들이 앞장서서 지지선언 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낮 뜨거워질 뿐이다.

내가 볼 때 역사교과서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마침내 손에 있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한 구석에 이런 글귀가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두 가지 이유로 환호한다. 하나는 그것이 다양성을 허락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

는 비판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면 충분하다. 세 가지도 필요 없다.(E. M. 포스터) 혹은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는 깔끔할 수도, 정돈된 것일 수도, 조용한 것일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어느 정도 혼란이라는 양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몰리 이빈스)”

오늘의 역사 교과서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게 던져진 하나의 시험대이자, 민주시민 교육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이 갈등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집단적 노력을 통해서 민주시민이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이해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 교육이 교실에서 교과서를 놓고 시험을 보며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 느끼게 될 것이다.

교실 안에서 교과서로 기억된 사실은 단지 감옥의 독방에 갇혀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죄수와 같다.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세상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는 순간 그 ‘사실’은 오히려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게 된다. 평생학습 혹은 성인교육의 맥락은 바로 이 ‘배신감’에서 출발한다. 흡수자들, 헬조선, 그리고 이 배신감이 결합하는 순간 현 집권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학교라는 감옥 안에서 강제로 주입한 ‘사실’은 기실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감옥을 탈출하는 순간 지성사의 거대 흐름과 만나게 되며, 그 허탈감과 상실감은 어쩌면 기존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1979년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한 역사이다.

일찍이 헤겔은 ‘역사는 교육된다’고 말했다. 독일어 bildung은 어쩌면 교양화로 번역해야 마땅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은 인류 문명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개인의 지력이 성장하는 것처럼 한 사회의 지력도 성장한다. 평생학습, 성인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은 한 사회의 지력을 성장시키는 일이다.

아마 계획된 수순에 의해 박근혜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끝까지 밀어부칠 것이다. 이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며, 아마 국정화는 실행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적 실천들이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궁금하다. 장기적으로, 한 시대의 지성과 민주주의의 성장이라는 지형을 향해 조금씩 힘을 보탬 때이다.

## 국정교과서로 인해 평생학습의 기반이 약해진다

정민승(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교육학)



다이나믹 코리아.

하루가 다르게 대형 사고가 터지고 대형 비리가 공개되고

그래서 대형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에 살다보니, 어지간한 일들은 별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 나랑은 상관없는 거대한 일들이 벌어졌겠거니... 싶기도 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우리는 또 새로운 뉴스를 맞는다.

이번엔 국정 교과서다.

반대의견이 나오는가 싶더니 국정 교과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국정 교과서 집필거부 선언 보도에 이어 역사학자는 90프로가 좌익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사실 나만해도 국정으로 국사를 배우는데다, 검인정이 어떤지는 겪어본 적도 없으니 국정으로 돌아간들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싶기도 하다. 대통령의 독주는 좀 심한 듯도 하지만, 그렇다고 IMF가 또 온 것도 아니니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질 일일 거다.

이렇게 해서 오늘이 지나간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싶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평생교육과 국정 교과서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기도 할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생교육은 국정 교과서와 깊은 상관이 있다. 어떤 상관인가? 한마디로, 교과서 ‘국정화’의 주장은 평생교육의 철학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철학에 기초해 있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 내용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것이 평생 ‘학습’이 대두된 이유이고, 평생교육의 발전 동력이다. 그런데 국가가 발행하는 한 종의 교과서는 ‘다른 입장을 배제한다’는 철학을 관철시킨다. “너희는 이것을 배워라, 이것이 진리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학문으로도 이견이 없는 자연과학적 지식이라고 해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지는 집필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교육자는 여러 교재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하물며 입장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인문학적 지식을 ‘하나의’ 교재로 정리한다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

어쩌면 ‘어린’ 학생들이니 ‘올바른’ 역사를 정해서 배워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도 있

을 수 있겠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린 학생들이라 더 문제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검인정이건 국정이건 “이것을 배워라”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일방향적으로 정해진 교과서의 내용을 달달 외워 시험을 보는 것. 이것은 배움이 아니라 고문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학습이라면 진저리를 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다. 정말로 ‘창조경제’를 부흥시킬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다면 ‘검인정’으로도 부족하다. 아이들이 여러 검인정 교과서를 상호비교하고, 그 차이에 대해 토론하며, 자기 입장을 세워가도록 하는 정도는 되어야 ‘창조적’인 인재가 커나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국정 교과서는 교육학적으로 볼 때도 전혀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게다가 국정 교과서 주장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아이들은 교과서대로 배우니 국가가 교과서를 바꿔야겠다”는 논리도 들어가 있다. 나아가서, 심지어는 청년들의 애국심 부족까지 교과서 탓이다. 이렇게 되니, ‘국어 교과서에 좌익인 황석영 글이 실렸으니 아이들이 헬조선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다. 하나는 ‘아이들은 교과서대로 크다’는 편견이고, 두 번째는 ‘교과서를 내 입장대로 바꾸는 것이 옳다’는 신념이다. 하지만 ‘성인 사람’이라면 다 알지 않는가. 아이들은 ‘틀은대로’가 아니라 ‘본대로’ 크며, 권력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좀 더 평생교육 이야기를 하자. 평생교육은 무기력한 사람들을 신나는 삶으로 이끄는 일이라는 데 아마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평생교육은 학습의 생동감을 통해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소비의 노예가 된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승진에만 골몰하는 사람들, 이젠 늙어 쓸모없어졌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독적 쾌락에 빠진 사람들에게 배움을 통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은 사람들이 ‘앞’만 보지 않고 ‘옆’을 보게 돕는 일이기도 하다. 함께 학습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옆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즐거운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아마 평생교육에 ‘투신’하는 사람들은 지역주민들, 지친 성인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평생교육은, 철저히 ‘학습자 존중’에 입각한다. 정해진 지식을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습득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런 ‘기쁨의 학습’을 할 수 없다. 잘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에게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배운다는 것은 ‘내 밖의 것’을 ‘내 안’으로 들여오는 일인데, 자기 논리나 자기 입장에 빠져서는 제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서라는 공통지식의 ‘국정화’는 이런 ‘기쁨의 학습’이 피어나갈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한다. ‘너는 좌익, 너는 우익, 너는 옳다, 너는 틀렸다, 이런 분들이 애국자다, 이런 역사를 외워라’. 국정화의 논쟁 속에서 대화는 끊기고, 옆 사람에 대한 배려는 사라진다. 지금보다도 더,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자기 삶의 상당부분을 정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다. 평생학습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을 요청한다. 주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배제와 이분법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표현할 자유와 권리를 꿀떡 삼키고 그저 속으로만 웅얼거리게 하는 것. 이런 문화가, 합의 없이 교과서가 국정화로 진행될 때 벌어질 일이다.

평생교육과 국정 교과서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틀렸다.

국정 교과서 논쟁은 문화를 만들고, 특정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만들고, 학습자를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간다. 평생학습의 기반이 약해지는 건 시간문제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낼 일이 아니다.

## 평생학습관점에서 바라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



신민선(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민주주의는 시대에 따라 정치체제의 적용이 달라졌을지라도 이념적 가치만은 시대와 체제를 떠나 오늘날까지도 자유·평등·박애라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해 왔다는 데 대다수가 동의한다. 그렇기에 자유민주주의이든, 사회민주주의이든 민주주의라는 큰 뿌리에서 비롯된 그것들이 자유·평등·박애의 핵심 가치를 달리 해서 적용받는 사회와 국가라면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가치 체계가 그곳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내가 던고 선 땅 위에서 실천이 되고 있을 때 더욱 진정성이 빛나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끊임 없는 질문과 토론이 그 누구와도 자유롭게 오가는 소통의 환경이 허락되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민주주의의 내재적 가치는 확연해질 터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민주시민으로

오픈하게 살고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가치체계를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한 실천적 경험을 하고 있는가? 에 대해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사회는 1987년을 변곡점으로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규제가 퇴조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주적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모든 부분에서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율적,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는 늘 열린 대화와 토론, 조율을 필요로 하며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존중한다. 이러한 민주적 터전 위에서 21세기를 맞이한 국가는 평생학습 정책을 지역사회에 접목하였고, 시민의 학습권은 민주주의의 시민성과 맞물리면서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화두이자 동시에 시대가 추구하는 책무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평생학습이 지역사회의 실천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역동성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평생학습사회에 살고 있다는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과연 평생학습사회에 살고 있는가?'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대화와 토론, 숙고와 논쟁이 일상의 학습과정에 내재되어 있는가?' 평생학습이 동네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은 아직까지도 시민 주도의 풀뿌리 담론을 시민사회의 지평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있어서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시민이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이 열린 공간을 통해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사회적 행동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 평생학습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87년 6월 항쟁에 의해 민주적인 사회와 국가로의 전환 요구가 붓물처럼 터져 나온지 거의 30년이 다되었어도 아직까지도 평생학습은 시민들의 역량과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학습현장의 과제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놓고서도 극명하게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 개편을 둘러싼 전 국가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작 역사 교과서와 관련한 시민들의 소박한 목소리를 공유하는 토론은 평생학습현장 어디에서도 열리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는 그 어디

에도 없는 가운데 국가권력과 정치인들의 정쟁으로 인한 치열한 갈등만이 소용돌이 치고 있을 뿐, 침묵하는 평생학습의 광장 앞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오로지 선택적 평가판만 요구받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쟁의 발단은 첫째,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둘째, 6·25 전쟁과 북한 체제에 대한 서술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셋째,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 넷째, 산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의 명암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네 가지 핵심 쟁점은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시민력을 위한 중요한 학습주제가 될 수 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전개하는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획일성을 강요하는 국가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왜 배우고 가르치려 하는 것인가? 그것은 지난 세대들이 남긴 경험적 유산으로부터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교훈과 지혜를 터득하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과정이고 그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다양한 조건들을 진보시키기 위한 후세들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교육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획일적 평가와 해석을 담은 한 가지의 시각만으로 역사의 관점을 바라보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더불어 당시에 표출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열린 눈과 마음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축적된 경험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주적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민주시민사회의 성숙한 학습시민으로 나아가는 이유이다.

역사적 사건과 사실은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는 있어도 이미 기록과 경험으로 역사가 된 분명한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시대마다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권력이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역사의 사실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인 '시민이 주인 되는 공론의 장'이 지역 곳곳에서 전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학습의 일상성을 강조하는 평생학습의 경계 없는 학습의 장이 필요한 것이다. '공론'이 없는 '단정(斷定)'을 강행하는 국

가와 정치체제가 존재하는 시대는 이미 다양성 추구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불행한 사회이다.

역사로 남겨진 기록과 경험은 죽은 개념이 아니다. 사실을 미화한다고 해서 포장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과관계를 영원히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거나 직접 경험한 역사적 사실들은 오늘까지도 명백하게 살아 움직이는 관계의 개념이자 현재와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연결이기에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인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무대에서 개인과 사회가 겪어가는 여정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과 현상들이 어떤 모습의 역사로 남겨지고 어떻게 평가되고 해석되어질 것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현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의 장, 공론의 장이 동네 곳곳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소리로 재해석되고 실천되어질 때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유지되고 발전적으로 계승되어질 것이다.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을 계기로 평생학습이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향해 진일보하는 시금석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1969년 6월 9일 경향신문 기사에는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반공법과 관련해서 입건된 어떤 회사의 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정간첩 혹은 관련자 아니냐고요? 그러나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이라고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크레용과 물감에 단지 '피카소'라는 상표를 썼기 때문에 고초를 당한 것입니다. 피카소가 한 때 프랑스 공산당 활동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국의공산 계열에 동조하고 찬양고무하는 일"에 해당한다는군요. 당연히 광고를 금지시키고 판매 중인 상품도 피카소라는 이름을 지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검찰의 우국충정은 한발 더 나아갑니다. 당대 최고의 사회자 광규석 씨가 사회를 봤던 한 TV쇼에서 "좋은 그림을 보고 '피카소' 그림같이 훌륭하다고 말한 이면도 캐"내었다고 합니다.

이 회대의 살풍경은 단지 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과 발언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오직 국가가 정한 단 하나의 기준만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받아들게 되면 '올바른' 문학과 '올바른' 영화와 '올바른' 인생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지녀야 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 빠진 부분이 있군요. '올바른' 평생학습도 해야겠네요.

이렇게 보니 올바르지도 않고, 올바를 생각도 없고, 올바라서도 안 되는 평생학습 그 자체의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요. 올바르지 않은 평생학습이여 굴욕.

글 정성원

## 민주시민교육 조레, 지금은 단단한 주체의 형성을 고민할 때

### 중앙정부는 있어도 지방정부는 없다

1948년에 제정된 초대헌법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명문화 되었었지만 당시의 허약한 토대와 이승만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제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4·19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5·16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의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놓고 안하겠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 1962년에 공포한 헌법에는 '지방자치의 경우 법률로 정한다'고 명문화 했으나 실제로는 법률 제정을 하지 않는 창조적 방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통치에 대한 자신감의 반영인지 10년 후인 1972년 유신헌법 부칙 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며 지방자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백 년이고 천 년이고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지방자치를 실행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구상이 그야말로 유신이라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1991년 지방의원선거에 이어 1995년 단체장선거가 일제히 시행되면서 제도적으로는 드디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쉽게 '지방정부'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사실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지방자치제를 규정한 헌법 117조도 그렇고 하위법인 지방자치법에도 단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부라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지자체는 사법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을뿐더러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많기도 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으로서의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냐 단체냐'의 명칭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스스로 지방자치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률 1조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재정과 인사권을 틀어쥐고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실행하는 하부조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기에 교과서 국정화 관련한 홍보를 반상회를 통해 진행 하라는 공문을 천연덕스럽게 지자체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 조례는 싹틔줄이다

지방정부는 비록 사법권은 없으나 입법과 행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비록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전제이긴 하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조건과 특색에 맞춰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는데 '국어진흥조례'나 '근대건조물 보호조례' '아동친화도시조례' '생활임금조례' '공유촉진조례' 등이 있으며 한편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법률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성이나 지역적 특성이 약하기 마련인데 비해 지방정부의 조례는 보다 현실적이며 시민의 일상생활에 더 밀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례야말로 국가 법률의 간극을 메우는 싹틔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로부터 시작되어 국가 법률 제정에 이르는 상황도 만들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작은 도시인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우리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까지 연결된 것이 그것입니다.

최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시민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 2014년 서울시에 이어 2015년 9월에는 경기도에서 그리고 11월에는 성남시에서 제정을 했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지역적 특성보다는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사안이기에 조례보다는 국가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90년대 후반부터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노력을 전개하였고 지난 15대 국회에서부터 18대까지 3건의 발의와 각종 노력을, 그리고 이번 19대에는 2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론화 부족, 추진 주체들간의 이견, 추진 동력의 약화 등이 혼재되어 결국 입법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를 실질화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중국에는 국가적 아젠다로 이끌어내는 경로가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경기도나 다른 지역의 제정 및 활동에 타산지석의 효과가 있을듯하여 사단법인 <시민>의 이사이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인 위정희 씨를 만나 보았습니다.

**정성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이후의 활동 내용이 궁금합니다.

**위정희** 행정라인과 운동라인과 실천라인으로 나눠서 본다면 지금은 행정 중심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2015년 5월 꾸려졌는데(위원장 동국대 홍윤기 교수) 시민사회, 학계, 행정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6월쯤 조례에 따른 사업을 진행해 봤어요. 약 1억 1천만 원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 연구사업, 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번에는 저희 자문위에서 개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의 유형이라든지 선정, 평가까지의 제반 과정에 자문위의 활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 주요 역할 중 하나는 종합계획안 수립인데 지난 10월 중순까지 자문단과 행정팀이 함께 회의를 통해 3년 연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완을 한 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발표 할 계획입니다.

**정성원** 종합계획안 수립 과정에서의 이견이나 쟁점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요.

**위정희** 그렇죠. 이 업무가 행정의 어떤 단위로 소속, 추진되어야 하느냐와 관련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 평생교육 틀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자문위 구성을 오픈하지 않고 평생교육과 하나의 부속 자문위처럼 구성하려고 했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가 결합해서 자문위의 확장과 민주시민교육을 독립적 의제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시장님께 직접 이야기 해서 새롭게 틀을 만들었던 거죠.

내용적 쟁점으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계획안을 검토할 초기 당시에는 '민주시민교육사'를 양성해서 현장의 시민들 속으로 내보내는 구조를 주로 검토했었는데 논의가 진행되어 가면서 이 프로세스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평생학습 현장에서 '누구나학교'나 '뫼든지학교'처럼 교육의 형태가 새롭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강사를 양성해서 보내는 방식이 안 맞다는 것이 핵심 논란의 하나여서 현재 종합계획안 속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표준교육안'이라는 용어였습니다. 학자나 교육을 오랫동안 교육 공학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어떤 표준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할 때 사용 할 중요교재, 기본교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건데, 이를테면 선거 시점에 '선거에 대한 이해' 이런 정도의 기본 매뉴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 가이드라인은 필요할지언정 교사의 지도안처럼 민주시민성은 이것이고 개념은 무엇이고 라는 등의 틀이 정해진 표준교육안 개발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개념은 여전히 논쟁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입니다. 중간에서 지원하는 허브 역할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단순 위탁으로 갈지, 그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초에는 지원센터(혹은 시민교육센터) 설립단을 자문위원 플러스 시민사회 거버넌스와 함께 별도로 구성해서 논의와 실험을 통해 하반기, 늦어도 2017년에는 떠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정희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정성원** 얼마 전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관련한 토론회를 방청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자료집에서 민주시민교육사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사 양성과정 커리큘럼을 보았는데 지식과 정보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고 이것을 수료한 사람들이 강사로 나설 경우 제대로 된 시민성의 함양이라기 보다는 지식·정보의 전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민주시민교육사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그 문제가 정리가 된 것인가요.

**위정희** 정리된 것은 아니라 일종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논의 초기에는 민주시민교육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어요. 행정이나 조례를 만든 의원이거나 시장님이 보기에 '교육사 백 명, 이백 명 배출'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눈에 띄는 성과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 교육생들도 시민성, 민주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타인을 가르칠 만큼 성숙되었다고 하는 성과보고가 있으니 매력적인 방식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시민사회 분야 자문위원들이 수없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점차 다른 분들도 공감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서 '절대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종합계획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홍윤기 교수님의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민주시민교육사와 표준교육안이 그대로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안에 담긴 핵심 사업 내용은 무엇일까. 위정희 씨 이야기에 따르면 크게는 중간지원조직의 구성과 실제로 시민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사업의 큰 쟁점이며 시민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1)거버넌스 구축 2)시범 및 공모사업 3)서울시형 민주시민교육 연구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유형은 ①사회적 약자와 민주시민교육 ②학교와 민주시민교육 ③지역과 민주시민교육 ④법정의무교육과 민주시민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당장은 서울시 공무원 교육부터 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의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과는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정성원** 먼저 시행을 해 온 서울시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 조언을 하신다면요.

**위정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센터를 만들고 교육사를 양성해서 보내는 것은 우리가 비판해 온 관제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주체가 달라서? 박원순 시장이어서? 저는 아

나라고 봅니다. 방식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센터는 정말 100퍼센트 지원체계여야 하고 실행사업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센터가 먼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구조를 만들어내는, 기반을 조성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칫 민주시민교육사 양성, 인증제도, 표준교육안 등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시민은 민주적이고 정치참여적이고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변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서울시의 논의와 경험을 일방향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서 자기 지역 단위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시의 연구용역안 내용이 종합계획안에 담기지 못했다면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넓은 시야에서 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탄탄한 거버넌스 구조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 따라서 시나 도는 이것의 구축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중심이 잡혀야 센터나 시범사업이나 기타의 일들이 효율적이면서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기반확충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부터 조례와 관련하여 「경기지역 민주시민교육 준비 토론회」가 '(가칭)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준비모임' 주최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라는 것을 감안해도 주최의 준비정도가 아직은 매우 미약하고 논의 내용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서둘러 서울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고자 했고 이어서 경기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생각을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1일에 박승원 경기도의원(광명)을 만나보았습니다.

**정성원**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드실 때 당연히 선행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셨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1년 전에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니 서울시 조례도 보셨을 텐데요. 비슷한 점도, 차이도 있을 텐데 경기도 조례만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의 차별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승원** 서울시 조례에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없었는데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집어넣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만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체계적이고 중

합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에 이런 생각을 넣어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차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보류되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센터 설립 부분만은 뺐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하게 요청해서 센터 설립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갔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위탁'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위탁하는데, 다만 서울시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법인과 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을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센터를 설립하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법인과 단체에 위탁하자는 것을 조항에 넣었던 이유는, 도청에서는 센터를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부분을 빼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성원** 진흥원 산하로 들어가는 문제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거네요.

**박승원** 진흥원 산하로 가는 것은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를 통과시킨 후 여기저기서 전화를 주셨어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강의를 받았거나 하는 분들이 전화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이것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지어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의 내용, 성격, 질 등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를 잘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몇몇 사람들의 집단들이 모여서 하기 보다는 시민적, 도민적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우리가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도민 삶에 어떤 것을 가져올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 철학적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적인, 방법적인 논의까지 다양하게... 이런 논의만이라도 1년 내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성원** 방금 1년 내내 이것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이 1년 동안 계속 토론 주체로 나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진행할 일종의 네트워크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토론회 진행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 주체의 형성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주체가 단단해져야 행정과의 건강한 긴장감도 생기고 일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 베이스가 아니라 이것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그룹과 기관 단체들이 모여 논의하고 토론하고 때론 논쟁을 하면서 기본을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큰 방향이나 포부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박승원**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깊게 고민한 적은 없지만 대략 3가지 방향에서 큰 사업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이나 향후 경기도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룹과 단체와 기관들이 모여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청이 나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짧게라도 별도의 논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 지난 토론회(11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지역 민주시민교육 준비 토론회'- 편집자주)에도 왔던 푸른경기21 같은 단체도 잘 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교육관련 단체에서 해도 괜찮지요. 그렇게 1년 정도 논의를 해보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제안을 해도 되겠죠. 그 논의 과정에 당연히 공무원들도 참여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난 토론회 때도 물어보니까 2천만 원짜리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2천만 원 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것, 페이퍼 정리하는 정도밖에 안되



박승원 경기도의원(교육위원회)

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제대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구가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 형태로 정리되는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입니다. 2천만 원으로는 한두 사람이 앉아서 페이퍼 정리 작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최소 5천만 원 이상 정도는 되어야

다양한 형태의 설문이나 토론회, 자체 간담회 등을 열고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가면서 집필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중장기 사업계획 용역 과제를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년에 부족하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 교육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집단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도 내년에 몇 개 진행을 해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원** 지난 토론회 때 다른 참석 의원님이 '내년에 다른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민주시민교육사 양성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내용과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사전에 교감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박승원** 없는데요, 저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민주시민교육사라고 교육을 받은 몇 분이 계셨는데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런 틀거리도 만들어놓지 않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 한 사회에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이나 방법 등을 스스로 터득하고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좀 더 알려서 함께 지역 안에서 공동체적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플랜을 갖추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대책 없이 민주시민교육사 양성교육 해놓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원** 제가 오늘 오전에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관련 자문위원 중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자문위에서는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최종 보안을 거쳐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직전 단계라고 합니다. 홍윤기 교수님(동국대 철학과)이 자문위원장인데 그분은 민주시민교육사 양성과정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지만 그것에 대해 내부적 이견이 있었고, 많은 토론을 통해 결국 양성과정은 종합계획안에서는 빠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내부 합의로는 성립되지 않았던 문제인데 홍 위원장님은 강한 확신이 있으니까 경기도나 성남 등을 다니시면서 그것과 관련된 주장을 하시지만 서울시 저간의 사정을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론회 때 그런 주장이 나와서 이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에게 의견을 여쭙았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내년에는 조그맣게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주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주체의 문제는 처음의 조례에는 센터의 개념이었다가 논의 과정 속에서 그것은 삭제된 것이고요. 이것이 센터가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갈지...

**박승원** 진흥원으로는 못 갑니다. 조례에 정치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갖는 법인, 단체라고 했는데 진흥원은 도지사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곳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법인, 단체냐 라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조항은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는 있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위탁이라고 명시를 해놓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프로그램을 위탁할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하는 거죠. 현재 법적인 기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정성원**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넓고 남북이 괴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을뿐더러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 베이스로 가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투입될지는 모르겠지만 각 지역별로 왜 민주시민교육이 잘 안되는지, 실무자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도 단위에서 각 지자체의 어떤 부분을 뚫어주면 훨씬 더 잘 할지와 관련한 전략적 고민을 하는 역할, 그래서 전체에 활력을 불어주는 역할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정말로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저희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11월 6일에 시민교육 심포지엄을 했는데요, 평생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도 6대 영역 중에 시민교육이 있으니까 잘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것과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던 말이죠. 저는 시민교육을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담당자들은 일에 쫓기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쓰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함께 풀어내서 더 좋은 생산물을 만들고 각 지자체별로, 해당 기관별로 실행을 한 이후에 다시 보완을 해 나가고. 그런데 현재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니 결국엔 제대로 못하는 형국이 아닌가 합니다.

모델사업, 시범사업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도 단위에서는 각 지자체가 잘 못하는 것, 힘을 써서 뚫어주는 것들을 잘 개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프로그램들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요. 성남시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기초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데 도에서까지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있는 것이죠.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1년 동안 토론도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시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지금 단계로서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승원** 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의 별반 차이점을 못 느끼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얘기하고, '민주'를 빼고 시민교육이라고 하자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웃기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럼 평생교육이라고 말하지 무슨 시민교육이라고 말하냐는 거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교수 집단이나 전문가 그룹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사회가 첨예하게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니까 모든 용어를 최대한 낮추고 낮춰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욕심 같아서는 민주시민정치교육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기본 원칙과 방향에 맞게끔 가는 것이 맞다. 사실은 민주시민정치교육원, 이게 힘드니까 민주시민교육센터로 지칭하는 거지만, 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 작동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치 일반에 대한 것을 정말 교육을 안 시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가 나쁜 것이고 정치인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소수 정치 집단과 언론이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정치가 갖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정치훈련을 어린 아이 때부터 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교육해야 하죠. 민주시민정치교육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레가 있으니까 매번 뒤로 빠져있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대상도 연구하고 적절하게 배치해가면서 해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도 단위라면 도 단위대로 시군 단위는 시군대로 하고, 시군 단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도 단위에서 컨설팅해주고 지원해주면 되니

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현장 활동가 중심이기 때문에 늘 시스템 아니면 현장에서 필요한 것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관장님도 수원시평생학습관 안에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고민과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이런 것을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더 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성원** 끝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승원** 이런 게 만들어지면 깊게 들여다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민주적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영향이 아이들에게 미치고 내 이웃도 민주적으로 변화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우리 사회를 민주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장이 열렸을 때 자기 것,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새로운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생각을 교류하고 협력하고 공동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꿈들을 같이 가꿔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혹은 전라도로 가는 철로를 깔았을지라도 열차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열차가 있어도 승객이 적으면 왜 깔았냐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침로가 깔렸으니 신나게 판을 벌여야 합니다. 그 열차 안에서는 민주정치와 관련한 교육도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교육은 지식과 정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생활과의 조우 속에서 만나게 되는 전인적 변화의 장면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차는 민족독립을 위해 만주로 떠나는 결연한 독립군의 기차가 아니라 화창한 봄날 동네 이웃과 떠나는 소풍열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과 교육 활동은 평생학습계에도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은 민주시민교육과 어떻게 만나고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해야 할까요. 서로의 고민이 숙성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직조될 때 시민교육이 환한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글 정성원

## 자유학기제, 마을은 아직 준비중?!

### 진주여고 학생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우려

오늘 아침, 지난 4월에 진주여고를 자퇴한 한 학생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의 고등학교엔 아무런 정의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 그렇기에 나는 경쟁만 남은 배움 없는 학교에서 1등급 생산품이기를 거부한다. 정답 있는 공부를 해야 갈 수 있는 대학진학을 포기한다. 내 몸을 움아매는 실을 끊기 위해, 배움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 정답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용기를 낼 것이다.”

그녀의 용기에 대해 박수 혹은 조롱이 ‘간혹’ 뒤따를 테지만 세상은 ‘예의 무관심’으로 대응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고생은 빙산의 아주 작은 귀퉁이에 불과합니다. 수면 밑에 존재하는 다수의 학생들 역시 이 학생의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앨빈 토플러는 2012년에 내한하여 “한국이 더 발전하려면 교육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조언이 부족해서 기존 교육 시스템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주입식 교육의 폐해를 경험했고 자녀를 통해 과당 경쟁의 현장을 목격한 어른들은 학위만 없지 모두 다 교육학 박사들이고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설 때마다 교육과정을 개편한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사교육 시장은 양

적 질적으로 더욱 영토를 확장하고 있고 실질적인 교육 개편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일까. 저는 박근혜정부의 교육 핵심 정책인 자유학기제에 관해 새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 혹자는 ‘입시 경쟁체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죽만 울리다 말 것’이라는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희망의 단서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입시의 변화는 단지 대입시험 방식의 변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입시는 교육부에서 컨트롤할 수도 없는 국가의 핵심 아젠다입니다. 그것은 서열화된 대학의 문제와 맞닿아 있고 한국 경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이해득실을 두고 계급 간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휘발성 높은 정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쉽게 합의되거나 해결책을 만들기 어려운, 그야말로 문제적 이슈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입시 경쟁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응당 전면 재검토해야겠지만 오히려 주입식 교육, 일방적 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체계가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정책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의 긍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학교의 풍경을 바꾸고 더 나아가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킬 계기로 삼는 것이 어찌면 더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자유학기제와 마을의 준비

한국의 중등교육은 대입을 위한 징검다리일 뿐 그 시기에 걸맞은 적절한 인성교육은 물론 저마다의 꿈과 재능을 모색하거나 탐구하는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의 수업을 생각하면 선생님의 일방적 강의, 주입식 교육의 풍경이 먼저 그려지게 마련입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좋은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저는 수업 풍경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완고한 경계들을 흔들어야 하고 오직 하나의 정답 이외에는 말할 수 없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하며 친구가 성적의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의 공동체성을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름 아닌 자유학기제의 핵심기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업의 혁신이 진행된다면 교사는 전통적인 교사가 아닌 코치나 멘토의 역할로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이고 학생은 국무위원 들처럼 일방적으로 받아쓰는 수동적 인간이 아니라 토론하고 발표하는 적극적 참여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한 자유학기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그런데 이런 식의 문장만으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바뀌는 점은 ①교과목 수업시간을 줄이고 ②줄어든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탐색,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선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③학생과 교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을 보지 않고 ④교과목 수업도 국어·영어·수학 과목에서는 주입식교육보다는 성찰과 토론과정을 거쳐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과학 교과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실험·실습하며 현장체험을 하도록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진로탐색은 자유학기제를 구성하는 작은 하위 구성단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학교에서 담당하는 것이 매우 버거울뿐더러 마을 입장에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접점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마을이 아이를 품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관용구처럼 사용하지만 실제 그런 행동과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곁을 내주고 수고를 감내하고 애정을 주어야 하는 일이기에 머리와 팔다리가 따로 놀기 십상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직 마을은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꼭 온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에서 노출하는 단편적 정보 이외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공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느냐고 종주먹을 들이 대는 것은 맥락 없는 폭력일 뿐입니다. 그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한구용 과장(좌), 성수용 장학관(우)

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필요하다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을의 준비를 고민하기 위해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정정책과 한구용 과장과 성수용 장학관을 찾아갔습니다. (응답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A'로 표기했습니다.)

**정성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A** 2014년까지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포함해서 93개교가 진행했는데 2015년에는 89.6%인 55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주당 32시간에서 33시간 수업을 하는데 교과수업은 학교별 자율적으로 20~22시간 정도를 하고 나머지 10~13시간 정도를 자율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지(主旨)교과 수업을 하더라도 교과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과 영역에서 필요한 핵심 성취 교육 같은 것을 추출해서 자유롭게 진로탐색과 관련된 수업 활동을 합니다. 단순히 교과 지식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과를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죠.

**정성원** 자유학기제는 학교 내에서 참여형이나 토론식 등 수업을 혁신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결국 교실풍경을 바꾸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닌가요.

**A**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 국정과제로 대두되었을 때 정부에서는 진로체험에 포커스를 맞추어 홍보를 해버려서 언론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것보다는 수업의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 자기학습 이런 함께 하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걸 수업혁신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정성원** 수업의 형식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교사이고 또 자율활동도 교사의 몫입니다. 결국 이런 교사의 짐을 덜어주지 않으면 1학년은 기피 학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A** 교사 부담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그렇게 바꿔 가야한다는 기본철학에는

동의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이미 혁신학교 운동을 통해서 수업을 바꿔야 한다는, 이것이 당위인데 실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가야하죠.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수라든지, 포럼, 원격교육, 집합연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사연구회를 조직해서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자, 수업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려움을 해소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담당자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 단위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지원과에서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로라는 것이 진로 인식, 진로 탐색, 진로 준비 및 설계 등이 있는데 초등 6학년 선생님이라고 하면 6학년에 맞는 진로는 어느 정도 내용인지, 그런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 속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무언지,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화해서 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이라도 진로교육을 해보아야겠다는 하면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 이맘 때쯤이면 어느 정도 체계화돼서 나올 것입니다.

**정성원**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요구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사회환경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꿈을 키워가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이의 학교 안 생활과 바깥 생활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한 고리가 자유학기제의 교육방향일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의 자원을 제공하면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과 끼를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 인프라가 아직은 아이를 받아서 교육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업체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물론 여건이 안되면 직업인을 초청해서 강연이나 토론, 캠프를 할 수도 있고 박람회나 강의형처럼 간접체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자기가 진출할 진로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더 필요하다면 직업인과 대화도 해보고 한발 더 나가면 체험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 여건에 맞춰서 나가야겠지요. 지역사회에 억지로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경기도청 차원에서도 MOU 체결을 4,500건 이상했고 사이트에 다 등재시켰습니다. 자료는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있다고 해서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체험 인프

라는 그냥 통계수치로 몰아부쳐서 형식적으로, 견학 위주로 하게 되면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하려면 질 높은 체험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을과 학교가 아이와 학부모의 요구,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최적화 하느냐 그래서 아이가 밝게 행복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역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교육의 장을 제공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올해 5월에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모든 공공기관은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진로체험처는 양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발성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그리고 예의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얼마나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수원청소년희망등대센터>를 발족시킨 수원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 기관은 단지 자유학기제에 대응한 맞춤형 조직은 아니지만 진로진학 상담이나 직업체험처 발굴, 직업진로 축제 등을 자기 사업으로 안고 있습니다.



수원청소년희망등대센터의 최상록 센터장(좌), 임정원 창의진로부장(가운데), 변효정 미래진학부장(우)

**정성원** 이 기관은 진로교육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A** 그건 아닙니다. 시장님의 민선 6기 정치공약 사항 중 하나여서 진로교육법과는 무관하게 설립된 기관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보다는 진로 정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서 청소년이 진로 탐색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컨설팅이나 강좌, 진학정보 세

미나 등을 해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유학기제와 맞물려 들어가서 진로체험처 발굴 등의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원** 직업체험처는 어떻게 발굴하고 있나요?

**A** 현재까지 14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법 제정 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공기관 중심으로 부탁을 드려서 진행하고 있고 일반 기업, 개인 기관은 방문을 해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체험처로 개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다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계획이 미흡한 곳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에는 개별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나 협회 등을 통해 접촉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처 발굴은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질의 기관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면서 한편으로는 멘토(해당 기관의 체험 담당자)교육이라든가 학생들이 오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담은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원** 직업체험처 등록 기관을 살펴봤는데 시민사회 영역은 2곳밖에 없더라고요.

**A**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도 나가 봤는데 생각과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아이는 우리 마을이 키운다는 마음으로 교육기부나 재능기부로 접근을 해서 예산 준비를 안했는데요, 그분들이 심하게 말씀하시면 ‘재능기부가 아니라 재능착취다, 강사료 등 시에서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사례금 수준은 안 될 것이고,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원** 희망등대센터가 만들어졌지만 기관 혼자 하긴 어려운 일일 텐데요?

**A** 현재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수원 41개 동에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거든요.

협의회 회장님을 모셔서 마을과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과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원시민의 의식수준을 믿습니다.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우려는 의식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살짝만 건드려주면 참여를 잘 하지 않을까,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잘 하지 않아요. 의식이나 운영 능력 면에서 시민단체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연계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특별히 저희가 친밀한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분은 그분들인데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지역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원을 서로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시행할 학교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창용중학교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라 아직 경험은 없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한 우려와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 김기군 교감선생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 인프라나 예산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시범학교에는 4~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1,1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외부강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의 몫이 그만큼 더 크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는 교육청에서 1학년 2학기에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렵다. 외부 기관에서 진로체험 하는 것도 힘들고 잡월드 같은 곳은 하늘의 별따기다. 마땅한 기관이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긍정적 요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교과 선생님들은 지난 겨울방학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별도로 추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당연히 가중된다. 하지만 창용중학교는 혁신학교 5년의 경험이 있어서 학생중심 체험중심 배움중심의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자유학기제는 마을이 함께 가야 한다. 관내 우수기업이 먼저 개방함은 물론 다양한 기관, 직장, 영업장 등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이것을 단위 학교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기껏 부모 회사 가서 체험하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 창용중학교도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학교보다 외부에 나가서 체험하는

것이 당연히 좋고 그것도 단발성이 아니라 자주 나갔으면 좋겠는데 외부 자원이 부족해서 두번만 생각하고 있다. 정규교과 시간에 직업인 특강 진로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하기에는 벅차다. 체험이나 탐방 등에 전문가 결합이 필요하고 그런 인프라가 절실한데... 지역, 마을에서 자신의 자원을 조금씩만 내어 준다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2014년 8월에 이미 경험을 한 숙지중학교의 김선미 선생님입니다.

**정성원**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형태가 얼마나 변경되었나요?

**김선미** 저희는 작년 3월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1학년뿐 아니라 전 학년이 수업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월 1회 전체 교사 또는 인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개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 형태는 모둠 또는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바뀌어갔고 올해는 정착 단계에 있는데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개념도 안 샀습니다. 혁신학교 준비학교를 하면서 공개수업도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 형태도 변하고 회의 문화도 변하면서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는 것이 맞물려 들어가니까 생각보다는 겁나지 않고 그렇게 3주를 준비하니까 이거 참 매력적이네 하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들도 “이거 괜찮다 조금만 보완하면 아이들에게 유익하겠다” 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부담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도 연수를 갔더니 기존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자유학기제를 하면 그것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현재 업무에서 2.5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현대 시행을 해보니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 말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부담이 있대요. 준비과정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계속 활동 위주의 수업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



모둠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제공 : 숙지중학교)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면 내년에 안하시겠냐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성원** 업무가 그렇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선미** 자유학기제가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이 학생도 없지만 선생님들도 문제 출제와 채점 등의 부담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했더니 그것도 없진 않지만 이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아이들과 어울려서 일방적 강의식에서 볼 수 없었던 결과물을 낸다든가,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든가, 자기 의견을 스스로 발표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내가 한 것에 대한 형성평가나 동료평가, 개인평가 등 평가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필평가만이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매시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필평가의 함정은 학교에서 열심히 안하더라도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똑똑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안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중요하다 하는 포인트만 듣고 시험을 봐도 정말 늘 열심히 했던 아이보다 성적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안 해도 다음에 열심히 하면 지필평가를 잘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과정을 계속 평가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주의를 주거나 거기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 하나면 '너는 참여 안했잖아' 이릅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들이 있고 그 공동의 작품을 통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점수도 있고, 아이들이 동료평가를 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른 모둠을 평가하고 그것이 평가에 반영되고. 물론 숫자적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정의적 능력 평가라고 해서 서술형으로 기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아이들을 더 신경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평가가 다양해지고요.

'아이들은 지필평가만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고정관념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이렇게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할 때 느슨하지 않을까? 또는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선생님들 말씀이 장치를 여러 가지 쓰면 그 평가들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예요. 그 장치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필평가 점수와 서술형 평가, 정의적 영역 평가에서 이렇게 구술하는 것의 두려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점수는 80점' 이렇게 하면 애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점수가 80점

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하나 자신의 행동과 참여 등을 세세하게 구분해서 평가해 놓으면 사람들이 80점인 점수와 정의적인, 이런 저런 부분에서 참여를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낱말이 평가한다면 어떤 것을 더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겠느냐, 무섭겠냐 하면 아이들은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훨씬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면서 다독거리고 격려해주면 아이들이 평가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성원** 1년의 경험동안 아이들의 변화를 실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선미** 일단 아이들 마음이 밝아진 것이 확실한 거 같아요. 사실 기존의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부모님들이 압박하는 것도 있고, 운영을 하다보면 평가가 절대 무시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게 어쨌든 수행평가로 돌려지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물론 어눌한 아이도 있고 잘하는 아이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물이 완성되고, 나한테 책임이 오롯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둠 별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부분을 내 친구가 도와 줄 수도 있고 협력하다 보니까, 실증적 데이터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학교폭력이나 교우관계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우관계 부분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진로탐색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중1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할 거야'라고 단정 짓고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하게 접근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성적과 관계없이 두각을 드러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강의식으로 했을 때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펼쳐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아이들이 '오?' 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너 혹시 이 길을 생각해 보겠니?' 물론 그 학생이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겠니?' 하면 학생이 스스로 생각을 해 보고 또 '관련 자료 한번 찾아볼래?' 하면 검색도 해보고 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아이들은 자기 나름으로 생각을 하고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 하면 준비하는 아이도 있고 '이거 좀 어렵네' 하며 수정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한 학기에만 그치면 혼란이 올 수도 있겠지요. 저희 학교는 2, 3학년도 모둠 수업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 다행인데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이고 자유학기제를 진행했는데 모둠 형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1학년만 하거나 1학

년도 하는 사람 있고 안하는 사람 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을거라 생각합니다.

**정성원** 초기에는 학부모의 우려나 거부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요, 학부모들도 어떤 변화가 있나요?

**김선미** 학부모들은 지필평가를 안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할거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또 지필평가처럼 점수로 나가는 성적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성적을 가늠할 수 없는 불안감도 있었고 그래서 학부모 모임이 자칫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첫 모임에서 한 학부모님이 얘기하길 ‘아이가 너무 행복해 한다.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나도 처음에는 불만스럽고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한데 더 이상 바랄게 뭐냐’ 그러자 다른 분들도 ‘맞아 내 아이도 좋아해’ ‘학교 가는 걸 좋아하더라구’ 이런 분위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해서 더 이상 민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성원**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김선미** 직업체험처 발굴은 학교의 경우 진로부장님이 해주는 것이 좋은데 학교 사정에 따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거의 탈진할 지경에 이르고 다시는 자유학기제 말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진로부장님이 오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체험처를 많이 알고 계시고 발품도 많이 팔면서 개발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전화도 많이 해야 하고 발품도 많이 팔아야 한데요. 체험처를 발굴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하고 싶은 분야 선호도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 하려고 하는데 이게 100퍼센트 다 안되고, 50퍼센트 되기도 힘들죠. 그래서 매칭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협업 가능한 기관 리스트를 정리한 책자가 내려왔었습니다. 되게 두꺼워서 기대를 하고 봤는데 수원은 몇 개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력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먼저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

다. 그리고 덧붙이면 직업체험처 발굴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경험과 체험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더 중요합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호기심이 관심을 잉태했고 관심은 발품을 이끌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입체적으로 취재를 해 보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직업체험기관에서 실제 이 업무를 시행해 본 담당자의 속마음도 들어보아야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사람들의 생각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 제도의 실질 담지자인 해당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도 꼭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른 시일 내에 후속 취재를 꼭 해 볼 요량입니다.

이번에 만난 일곱 분이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을 아이들의 배움터로 만들어 주고 자신의 품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기엔 아직 마을의 준비가 덜 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썼듯 아직 자유학기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한 바가 일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올 하반기부터 대다수 학교에서 시행이 되며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마을의 당당한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한두 기관이 나선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고민으로 안고 열심을 내는 기관,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을 중심으로 지혜가 모이고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마을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 봅니다. 필요하다면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꺼이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글 정성원

2015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무크지

## THE 와

펴낸 곳 수원시평생학습관

펴낸 날 2015년 12월

펴낸 이 정성원

주소 1623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전화 031-248-9700

팩스 031-248-9902

홈페이지 [learning.suwon.go.kr](http://learning.suwon.go.kr)

아카이브 [wasuwon.net](http://wasuwon.net)

누구나학교 [nuguna.suwonedu.org](http://nuguna.suwonedu.org)

페이스북/트위터 @suwonedu

※ 2015년 발행된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의 기사 중 일부를 엮었습니다.



표지 : 백색모조 220g, 내지 : 백색모조 80g, Soy ink